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아만 버리고 하심 할 때
희망찬 미래 열려"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허풍이나 떨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결점을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7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06호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비구니 스님 호계위원 진입 다시 '원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 개정 '부결'

절차상 하자로 원로회의에서 인준되지 못했던 종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진입이 무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은 8월 11일 개최한 제199차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다뤘다. 이날 종헌 개정안은 종헌에 명시한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결의가 이뤄졌다.

종정 자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각급 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등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은 의원 62명 중 찬성 52표, 반대 10표로 의결정족수인 54명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연령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 · 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하는 종헌 개정안은 62명 중 찬성 53표, 반대 9표로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또한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진입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도 62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41표, 반대 21표로 성안되지 못했다.

원로회의에서 주장한 멸빈 단서 조항 삭제 등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돼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총무원장 선거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종헌 개정안은 총무원에서 철회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안 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지난 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근거로 개정 작업을 했던 중앙종회법, 교구종회법 등을 번안했다.

사실상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입법 회기였으나 모든 종헌 개정안이 부결되며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특히 비구니 참종권 확대로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호계 · 법규위원 진입의 무산은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실천승가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구니 호계위원 임명은 승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비구니스님들의 당연한 권리로 남녀평등이라는 사회적 조류에 부합하는 종단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종도들의 열망이었다"며 "종단 내 뿌리 깊은 여성차별의식에 의해 좌절되는 퇴행적인 모습을 15대 중앙종회는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실천승가회는 이어 "중앙종회가 자신들의 특권에 안주해 종단 내 불평등적인 요소에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찬성 41표 · 반대 21표 받아
의결 정족수 결국 못 넘어
실천승가회 등 비판 성명도

불교여성개발원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불교계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반대 21표라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비구승가의 본심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종회 NGO모니터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NGO모니터단은 논평에서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오랜 시간 설득과 협상을 통해 상정됐지만 또다시 부결돼 중앙종회가 이 시대 불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제시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스님이 밝힌 빛, 오늘의 우리 이끈다 자유와 평화, 자비사상으로 우리민족의 앞길을 밝힌 만해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는 만해축전이 8월 11~13일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열반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은 '청년 만해'를 주제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고찰하고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11일 열린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을 비롯해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온 이세중 변호사, 쌍용차 해고노동자 돕기 캠페인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비롯해 휴머니즘 영화를 만들어 온 모흐센 마흐말바프 등 사회활동가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관련 기사 3면〉 인제=노덕현 기자

대각회 "법인관리법 찬 · 반 보류"

11일 분원장 회의서… 오는 26일 이사회서 결정

(재)선학원과 더불어 조계종의 최대 사찰 보유 법인인 (재)대각회가 분원장 회의를 열고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인관리법)'에 대한 찬 · 반을 발표하려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발표를 보류했다.

대각회의 최종 입장은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이사회 이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대각회(이사장 도업)은 8월 11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분원장 중진 스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해 보광, 흥교, 혜총 스님 등 이사진 7명과 분원장 18명이 참석했다.

애초 공개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사 보광 스님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장시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이사진과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 차가 확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분원 소속 관계자는 "법인관리법에 대한 우려가 커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이사와 일선 분원의 입장이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법인법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분원장 회의에서도 전체 150개 분원 중 140여 곳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사장 도업 스님은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입장 보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도업 스님은 "회의가 열렸던 만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지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됐다"면서 "총무원과의 대화 여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성원 간 의견 온도차 '확연'
"총무원과의 협의 통해 조율"

이어 "오는 8월 26일 열리는 대각회 이사회에서 찬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사회에 앞서 대각회와 총무원의 업무협의회가 있다. 이를 통해서도 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26일 회의에서 전체 분원장의 의견과 괴리되는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 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조계종 · 선학원 간 반박 오가

이와 함께 조계종과 선학원은 서로 주장과 반박을 이어갔다. 선학원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 관리법의 문제 조항들을 예로 들며 종단이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재단 사업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계종은 1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선학원의 주장에 대해 "선학원은 종단처럼 사찰을 등록 받아서는 안되며 현재 소속된 분원에 대한 지원관리와 선풍진작, 수좌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법인관리법은 법인을 사유화하려 하거나 탈종을 기도하려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계종 승적을 버리고 탈종하는 분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종도로서 살고자하는 분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학원 해당 분원에 대해 직접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재

조계종 교육원, 13일 직지사서… 115명 행자 입교

제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재를 알리는 고불식이 8월13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봉행됐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청소년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소년출가자 7명을 비롯해 남행자 73명, 여행자 42명 등 115명의 행자가 입교했다.

고불식에서 교육원 교육부장 정도스님은 "사회와 역사에 부응할 수 있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승가의 일원으로 성장해 줄 것"을 행자들에게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은 "이번 수계교육을 계기로 수행자의 각오를 다시고 새로운 준비를 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은 오는 27일 회향하며, 이에 앞서 26일 5급 승가고시가 치러진다. 고시 합격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 지사 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충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임명

자승 스님, 11일 임명장 수여… 지역불교 활성화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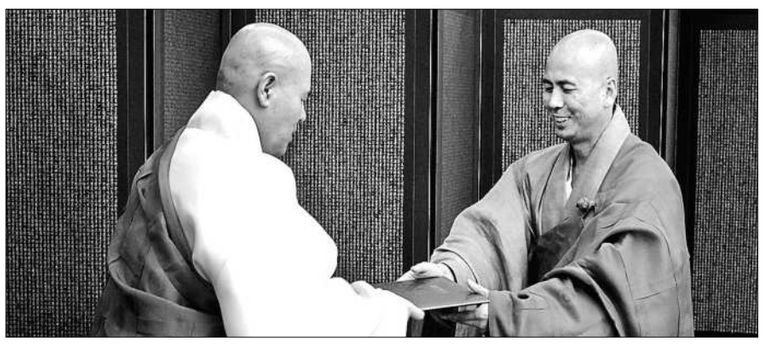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호성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호성 스님은 2008년 주지 부임이래 3번째 본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열심하고 화합하니 계속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지난 8년간 교구발전과 문중화합에 높은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교 용지 확보와 지역포교 및 복지사업에 매진해 큰 성과를 이뤘다"고 치하했다.

이에 대해 호성 스님은 "안동청소년수련관을 개원한 이후 지역 청소년 포교 지형이 바뀌었다"면서 "수련관 이용 청소년이 주말에만 200명을 넘는다. 미술치료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 배치하니 매우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불교계는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포교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불교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환경위, 고리원전 현장 방문

8월 22일~23일 워크숍, 원전실태 견학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가 최근 재가동하기 시작한 노후원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현장방문한다.

8월 22~23일 워크숍을 개최하는 환경위원회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원자력발전소의 실태와 현황을 견학한다. 이후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향후 탈핵활동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고 불교환경의제21 추진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2015년 활동계획 역시 논의된다.

환경위는 올해 주요활동으로 밀양송전탑건설 반대, 탈원전 성명서 발표, 탈핵 토론회 및 한일국제세미나 개최 등 탈핵활동을 전개해왔다. 배현진 기자

"가자지구 폭격 즉각 중단하라"

KCRP, 12일 호소문 발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8월 12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참혹한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종식을 호소하고 나섰다.

KCRP 종교간대화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은 없으며 전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도 없다"면서 "전쟁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생명들보다 더 소중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정의가 전쟁과 탐욕을 이기는 세상이 팔레스타인과 온 지구에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1005호 20면 문화면 톱기사 제목중 "불상에 생명력 넣는 '불복장' …의식 아닌 문화유산"을 "**(중략)…의식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정정합니다.

비판·견제 '눈길'… 출석률 등 구태 '여전'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 성과와 과제

사찰운영위法 등 쇄신 입법
총림법 통과로 8대 총림 열어
활발한 종책질의로 종무행정
미비점 지적 등 성과 이뤄내

종회의원 낮은 출석률 해결돼야
위원회 많아도 '유명무실' 평가
비구니 권익 향상 여전히 '구태'



제194차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에 대한 비하 발언이 이어지자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모두 퇴장했다. '사부대중 공의의 민주적 종단 운영'의 1994년 종단 개혁의 기치 실현은 아직 요원함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 출범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가 제199차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는 10월 16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2개월 여의 시간이 있지만 입법회기를 모두 마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15대 중앙종회는 막을 내렸다.

제15대 중앙종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13회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다뤘다. 전반기 의장은 보선 스님이, 후반기 의장은 향적 스님이 맡아 의사를 진행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산중총회법 등 종단 1차 쇄신입법들을 대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승가의 청정성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시된 총무원의 쇄신 법안을 중앙종회가 입법화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다.

또한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 총림 지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8대 총림 시대를 열게 한 것도 이번 중앙종회의 주요한 성과이다. 삼장염불원법을 제정해 수행의 다양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단기출가법을 만들어 출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활발해진 종책질의도 이전 중앙종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의 허점을 날카롭게 질의해 종단의 종무행정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성과가 상당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종회의원 출석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다양한 입법 성과에도 승려법, 교구법,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방법 등 종단 선거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옥의 티'이기도 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위한 법규위원과 초심호계위원의 진입이 무산된 것은 비구 스님 중심의 종단 풍토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194차 임시회에서는 이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비구 의원 스님의 차별 발언이 이어졌고, 결국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10명이 모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특별위원회가 제정돼 활동을 펼쳤음에도 소정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은 향후 중앙종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했다.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제15대 중앙종회의 4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종단 쇄신 입법을 통과시키는 등 종단 안정에 적지 않은 부분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의원들의 입법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책질의가 활성되지는 했지만 종단 종무행정에 비판·감시·견제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종책질의 역시 특정 의원 몇몇에 집중돼 있고, 종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종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15대를 기반삼아 16대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용주사 주지 선거 '성관·성월·성장' 3파전

중앙선관위 후보 자격 인정… 20일 산중총회

"본사 운영위 결정 따르라"
송담 스님 유시 논란까지

용주사 주지 선거가 성관·성월·성장 스님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8월 14일 오전 11시 용주사 산중총회 후보자 자격심사와 구성원 명부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모두 '이상없음'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용주사 전강문도회 운영위원회가 주지 후보자인 성월 스님이 본사 주지 피선거권이 없다며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승적조치특별법에 의거해 문제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승적조치특별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총무원 총무부도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한 만큼 성월 스님 주지 후보 자격은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선문 스님의 반발로 전강문도회의 이의제기는 호법부에 이첩하도록 결의했다.

용주사 산중총회 구성원은 모두 203명으로 확정됐다. 구성원이상자와 타교구선거권 행사자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비구 168명과 비구니 35명이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용주사가 차기 주지를 선출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이어 온데 우려를 표하고, 중앙종회에 관련법을 개정해 장기간 주지선출이 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를 주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용주사 주지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전강문도회의 최고 어른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은 8월 10일 유시를 내리기도 했다. 스님은 하안거 해제와 백중 법회를 앞두고 대중 스님들에게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중 의사 결정 기구인 용주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반대편 측은 유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용주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호)는 13일 오후 2시 관음전에서 전강문중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진 긴급회의에서는 진위 논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현대사 속 불교의 역할은

22일 승가교육연구자 워크숍

종단 교수아사리 및 장학승 등 승가교육 전문연구자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대 한국사회 속 불교의 역할을 모색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연구소장 혜명스님)은 오는 22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승가교육전문연구자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강사로 나서 '한국사회의 현황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스님들은 현 한국사회의 현황과 종교, 국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종단의 현실과 미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일심법계관 (一心法界觀)

생활법문 ❶

생활법문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3.4

이 관법은 한 번 생각하거나 잠시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무한히 넓은 아량과 이해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음을 허공같이 만들고 바다같이 키울 수 있는 뛰어난 공덕을 지닌 놀라운 관법이다.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관념을 가졌던 착하던 악하던 바르던 그르던 지혜롭던 어리석던 따질 것 없이, 마음은 생각하고 굴리는 대로 조성되는 게 그 본질인데,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못 부수고 무엇을 창조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비록 싸우고 다툴 일이 자주 생겨도 실상 내 안의 마음은 별로 고통스럽거나 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형의 마음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과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그 궤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는 습성도 있고 업도 숨어있고 바탕 근기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무언의 제약적인 틀도 숨어있어 성품이 맑게 빛나는 붓다와는 달리 모든 중생은 한계적으로 그 의식이 작용한다.

허나 마음 안에 숨은 의식의 바탕만은 전혀 고정된 게 아님으로 어느 방향으로나 제멋대로 분출될 수 있다. 즉 마음은 품기 나름이고 생각은 일으키기 나름이며 심체는 다스리기 나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의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힘이며 마음이 갖는 제약 없는 본성이다. 또 어떤 사념도 다 마음이라는 한 틀 속에서 뿜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런 견해를 일심법계관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알면 누구의 어떤 생각도 증오 없이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어떤 수련법도 마음의 눈을 키움에는 이런 관법의 자세를 따라잡지 못한다.
자기 나름대로 수십 년을 닦은 수행자들도 하찮은 일로 쉽게 대립하고 흥분하는 것을 보면 이 관법의 소중함을 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키우는 데는 관법 중에 제일 큰 관법이 바로 일심법계관이다.
참 마음을 깨친 거룩하신 붓다들이 바로 이 같은 관법으로 모든 분별심을 해체하여 칸막이를 즐기는 중생심을 가볍게 조복하고 계시다. 이 관법은 내 안의 사나운 분별심을 간단하게 허물어버린다.

인과는 무섭지만 마음은 한량없는 자유성을 가진 공(空) 즉, 생각은 자유!

해탈을 구하기에 오히려 속박이 생기는 것이다. 해탈성을 알면 피곤함이 없는데도 말이다.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송상섭 편역 | 여시아문) 중에서



“끊임없는 관심이 문화재 지킨다”

긴급 점검– 불교문화재가 위험하다

① 문화재 특별 점검을 통해 본 성보관리 실태
② 흔들리는 불교 건축문화재 보존 대책은
③ 아직도 부실 위험, 예방적 보존 ‘방재’


E등급을 받은 보물 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8월 7일 발표한 특별점검 결과는 불교문화재 중 건축문화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수백년 전 만들어져 자연적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인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특히 이러한 훼손 정도는 사지에 방치돼있는 불교문화재에 집중돼있다. 사찰의 전각과 사찰 경내 문화재의 경우 스님들과 불자들이 상주하며 일정수준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지의 경우 이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물 이하 문화재로 갈수록 더욱 도드라진다. 시도지정문화재 중 구조안성성 분야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254건 중 264건이 불교문화재였는데 대부분이 사지와 사지에 있는 문화재였다.

사지의 불교문화재의 경우 풍화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이끼류 · 지의류 번식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와 F등급을 받은 보물급 불교문화재 92건 중 32건에서 이끼류 피해가 보고됐다. 이번 결과는 이들 문화재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자라는 예산, 불교계 역할 중요

그렇다면 임야에 방치된 문화재, 특히 석조문화재를 관리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보존과학 전문가인 전광룡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야외에 있는 건축문화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도입하는 문화재 관리사, 문화재 지킴이 등의 영역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끼 · 지의류는 화학제거 시 훼손부분이 더 많기에 물리적 제거가 답”이라며 “사찰문화재가 상태가 나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주체인 전국 16개 지자체 중 10개 시도가 아예 정기조사 규정이 없는 등 제도의 허점있기에 시민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D등급이하 불교문화재
대다수가 사지 유적
불교 · NGO 관심으로
지속적인 관리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전담부서 설치에 맞춰 불교계 자체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야 한다. 결국 불교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다. 성지순례 등을 활용해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가신도들에게도 문화재 보호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종단기구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연구와 보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서산 마애불의 경우 보호각 설치 이후 오히려 풍화가 빨라지고, 훼손이 심각해지는 등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건축문화재의 경우 암질에 따라 보존처리가 달라진다. 개별 문화제에 맞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전자화 · 통합화를 추진하며 현장 전문인력인 ‘문화재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불교계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사업에 선정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가 8월 19일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교육 및 상시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으며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조사 결과 중 사지 내 문화재 현황과 보존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대불청을 불교 문화재 지킴이 대표단체로 키워가겠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축적한 문화재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활발한 지킴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못다핀 꽃’의 그림… 교황에게 선물

나눔의 집 할머니, 18일 명동성당서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8월 18일 교황이 서울 명동 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 할머니들은 교황에게 고 김순덕 할머니(1921~2004)가 생전에 그린 ‘못다핀 꽃’〈사진〉을 전달했다.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꽃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이 그림은 김 할머니가 일본의 만행과 피해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1995년 완성했다.

나눔의 집 측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고 계신 할머니들을 대신해 교황에게 그림을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황 집전 미사에 초대된 위안부 할머니는 김군자(88), 이용수(87), 강일출(86) 할머니다. 할머니들은 “교황께서 우리말을 듣고 국제 사회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외국 주요 인사들에게 이 그림을 선물해왔다.

한편 8월 1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역대 최초로 광복절을 맞이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위안부역사관 등을 살펴봤다. **배현진 기자**

만해 스님의 빛 북극성처럼 길 비추네

‘청년만해’ 만해축전, 8월 11~13일 … ‘나눔의 집’ 등 수상


2014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강제 징용 조선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와 평화, 자비사상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힌 만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사회 곳곳에서 인류평화와 화합에 기여한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해축전이 8월 11~13일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열반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은 ‘청년 만해’를 주제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고찰하고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만해마을을 기증받은 동국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동국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젊음의 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11일 열린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만해축전의 백미였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1000명이 행사장에 모였다.

만해대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을 비롯해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온 이세중 변호사, 쌍용차 해고노동자 돕기 캠페인인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비롯해 세계평화와 종교역할 등 휴머니즘 영화를 만든 모흐센 마흐말바프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활동가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만해축전 시상식에서는 특별한 축하메시지가 함께 전해졌다. 교황 방한을 앞두고 前만해대상 수상자인 드봉 르네 주교와 김성수 주교가 축전의 성공 개최와 사회 평화에 힘을 모으자는 축전을 보내으며 조선불교도연맹도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해 ‘겨레가 힘을 모아 평화구축과 통일에 힘쓰자’는 축전을 전해왔다.

지구촌 소외계층 보살핌 주목
‘나눔의집’ 평화대상 받아
동국대 청년불교학교 큰 인기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상을 받은 활동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잡고’ 고광헌 대표는 “만해 스님의 사상이 활동가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며 “이번 상 수상으로 시민들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일출 할머니 등 나눔의집 할머니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군속에 대한 보살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신경림 작가를 교장으로 6월 28일 청년만해학교, 청년만해 비보이대회 등이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본행사장에서도 젊었을 때의 만해 스님의 사진과 발원 등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기도 했다.

행사는 10일 사전행사 학생시낭송대회를 시작으로 11일 만해 스님 열반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와 시낭송회, 제12회 유심작품상 시상식, 전야음악회가, 12일 제16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유심시조아카데미 학술세미나 등이 이어졌다. 13일과 14일에는 다문화가족예술제와 인제문화예술대동제, 창작21작가회가 마련한 평화시낭송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져 대미를 장식했다.

인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現 이주민 정책은 인권 유린 제도”

4대종단 인권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철폐 주장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진오, 이하 마주협)를 비롯한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이 시행 1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규탄했다.

마주협 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은 8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용허가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만 골몰하고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며 “이주노동자를 간편한 도구이자 값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처 변경 금지와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게 한 제도다.

회일 스님(마주협 공동대표)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대접받지만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위안부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며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황의 방문을 환영할 자격이 없다”며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일 주 문



불국사 자원봉사단 3천만원 기부

불국사 자원봉사단 대표 종상 스님은 이 8월 13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군종교구 하계 정기교육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8월 11~14일 가평 백련사에서 예비군승 60명을 대상으로 2014하계정기 소집교육을 진행했다.



실상사 세월호 천일기도단 조성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8월 30일 실상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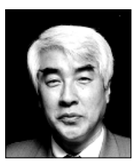
민추본 7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8월 13일 '북한 TV 단막극으로 본 주민 생활' 이라는 주제로 7차 월례 강좌를 개최했다.



화백포럼 특별강연

송석구 前동국대 총장은 8월 13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주 화백포럼에서 '행복은 나의 창조' 를 주제로 강연했다.



금강대 여름방학 어린이영어캠프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15일 금강대에서 논산 지역 학생 45명을 초청해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동산불교대 11회 명사초청법회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8월 30일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전통문화와 불교' 를 주제로 11회 명사초청법회서 강연한다.



진흥원 창립 39주년 기념식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3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창립 39주년 기념식과 2014 대원문화의달 발표회를 개최했다.



언론인불자연합회 수련대회

정일태 언론인불자연합회장은 8월 21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8월 정기법회를 , 8월 30~31일 축서사에서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국제선센터 간화선법회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8월 2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마음현상탐구, 가치를 바탕으로 원을세우자' 특강을 진행한다.

"네팔 밀교 원류는 금강계 만다라"

네팔인 최초로 위덕대서 불교학 박사받은 나빈 법사



'금강경 만다라' 신앙 근원 밝혀
2001년부터 진각종 종비장학생
"한국과 네팔 문화교류 앞장 설 터"

네팔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한국에서 꽃을 피웠다. 네팔인 최초로 한국의 불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가 탄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나빈 법사다.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로 유명한 네팔은 '티베트불교의 아버지' 파드마삼바바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한 역사가 무색하게도 근대에 들어 인도 힌두교에 밀려 승가가 붕괴되고 수행 전통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나빈 법사가 한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네팔불교협회와 진각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빈 법사의 은사인 나레시만 교수는 네팔 최고대학인 국립 트리부반대학교에 불교학과를 설립하는 등 현재 네팔에서 新불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인도 델리대 불교학과 수학시절 동기인 진각종 무애정사를 비롯한 진각종의 지원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공부를 마치고 카투만두로 돌아간 나레시만 교수는 1999년 구호단체 JGO를 설립해 진각종과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통한 포교에 나섰고, 이어 국립대에 불교학과를 설립했다. 지속적인 유대관계 하에 진각종은 나레시만의 제자인 나빈 법사를 종립대인 경주 위덕대로 초청해 박사로 길러낸 것이다.

나빈 법사는 2001년 한국에 건너와 위덕대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번 봄학기에 '네팔 밀교, 금강계 만다라에 관한 연구' 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빈 법사는 이번 박사 취득에 대해 한국에서 네팔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빈 법사는 "네팔 불교는 부처님 재세시 전해진 불교로, 현재 밀교의 대명사가 된 티베트 밀교보다 순수하다" 며 "대승불교인 한국불교 안에도 밀교 요소가 있기에 많은 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불교의 접합점을 찾고 알리고 싶다" 고 말했다.

나빈 법사는 논문 주제인 '금강경 만다라' 에 대해 "우리가 불상, 불탑, 사찰을 신앙대상으로 삼는 그 근원이 바로 금강경 만다라" 라며 "4세기 경 전해진 네팔 밀교의 모습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 고 말했다.

향후 나빈 법사는 네팔 이주민을 위한 법회 활동과 강연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네팔에서는 JGO활동도 활발히 펼친다.

"네팔불교는 산스크리터 원전이 많이 남아있기에 부처님 당시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불교에 소개해 보다 많은 이들이 네팔 불교, 그리고 밀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 불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전달

8월 13일, 비구니 학인 스님 5명에 각 500만원씩



전국비구니회가 설립한 법륜비구니장학회(이사장 명성 스님)가 8월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접견실에서 '제 5회 장학금 수여식' 을 가졌다.

이날 법륜비구니장학회는 자성 · 유신 · 지공 · 설경 · 성법 · 도일 스님 등 5명의 비구니 학인 스님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명성 스님은 장학금을 수여한 뒤 축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며 "수행과 학문을 열심히 연마해서 한국불교의 희망이요 동량이 되길 희망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명우 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계환 스님(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 동국대 도서관장), 이인자 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더불어 사는 사회되도록…"

조계종 화쟁위 3기 출범… 14일 위촉장 수여



2010년 발족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3기 출범을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4일 3기 화쟁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화쟁위원회는 도법 스님(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지홍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안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흥선 스님(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정문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덕산 스님(결사총괄부장), 초우 스님(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김종빈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전 검찰총장, 전 봉은사 신도회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 자리에 자승 스님은 "화쟁위원회 3기는 1기와 2기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말리고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위촉식 이후 3기 화쟁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도법 스님과 부위원장에 지홍 스님과 김종빈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3기 화쟁위원의 임기는 2014년 7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신성민 기자**

부석사 마애아미타불 점안법회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8월 9일 마애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이완섭 아산시장, 김제식 국회의원, 김형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마애아미타불입상은 높이 4.5m, 폭 1.5m로 산신각 인근의 자연석 바위에 조성됐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우란분절 49일 기도 회향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8월 10일 우란분절(백중) 49일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회향 당일에는 진여문 앞에서 영가를 청정도량으로 모시는 시련의식부터 영가를 위로하고 죄업을 씻어내는 대령 · 관욕의식이 진행됐다. 회향법회에서는 주지 원학 스님의 천도법문 '부모은중경' 과 천도재가 진행됐다. 앞서 원학스님은 입재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천도법문(부모은중경) 설하며 불자들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백중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름 유출 피해 지역서 봉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여수희망프로젝트-여수 바다를 지켜라!' (이하 여바라)를 7월 31일~8월 1일 진행했다.

'여바라' 는 올해 1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희망을 잃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모인 청소년 봉사활동프로그램이다. 신덕마을 주민들은 "어리게만 봐왔던 청소년들이 기특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까지와서 이렇게 예쁜 벽화를 그려줘서 너무 고맙다" 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실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종산내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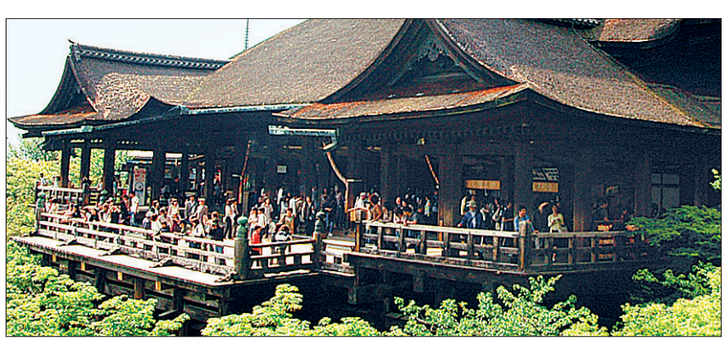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총본산 제동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3번길 13-11 (제동리 321-2번지)
전화 : 055) 295-5100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신라 장보고 대사가 해신으로 모셔져 있는 연력사에는 원도군이 기증한 장보고 대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이들은 이 비석 앞에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합작품인 동대사


정수사를 둘러보는 답사단의 모습

한중일 넘나든 해상왕 기상 직접 확인

장보고아카데미, 8·15 광복절 맞아 일본 속 백제문화 탐방

8 · 15광복절을 10일 앞둔 8월 5일 저녁,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 답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완도 신흥사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저녁예불을 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생애 처음의 일본여행을 앞둔 흥분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전남 완도 신흥사에서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대표 법일)의 일본 불교문화답사에 참여한 완도지역 아이들이었다. 8월 6~8일 진행된 이번 답사는 신라말 장보고 대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연력사 등 일본 사찰, 백제유적을 둘러보고 불교문화 전래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답사에는 완도 어린이 25명과 함께 지도교사 4명이 참여했다.

답사단의 출발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법일 스님은 아이들이 불교문화 유적을 보고 역사의식과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당부했다.

법일 스님은 "장보고의 후예들이 장보고와 역사적으로 큰 인연을 맺었던 엔닌스님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백제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예불에 이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조별모임이 진행됐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과정이 소개됐다.

이번 답사단이 방문하는 지역은 백제가 문화를 전해 준 일본 고대문명인 아스카문화가 꽃을 피운 오사카와 나라, 교토 지역이었다.

8월 6일 이른 아침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고대 백제인들이 터를 잡고 한반도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문화를 만든 나라 지역 이었다.

백제불교의 흔적이 그대로, 법륭사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백제인이 일본에 건너와 지은 절인 법륭사였다. 법륭사는 일본건축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찰로 고대 일본 백제계 쇼토쿠 태자의 원찰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법륭사는 7세기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됐다.

특히 법륭사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미 절실된 백제양식의 불상 2구를 볼 수 있었다. 600년경에 녹나무를 깍아 만든 '구세관음' 과 '백제관음' 으로 1년에 단 한차례 외부에 공개된다. 답사단은 운 좋게 그 기회를 잡았다.

'구세관음' 은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떴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 아이들이 더욱 유심히 보는 듯했다. 투명 유리관 속에 모셔진 백제관음은 세속을 넘어선 존재인 듯 육감적인 느낌이 배제됐다. 부드러운 얼굴선, 눈썹의 감성적인 곡선, 서산마애불에서 보이는 '백제의 미소' 를 연상케했다.

법륭사의 가치는 1500년전 한반도에서는 잃어버린 백제탑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비록 670년에 원래의 탑이 불타 없어졌으나, 이후 복원된 지금의 탑 또한 당시의 백제기술을 이어받은 장인에 의해 복원됐다. 이렇게 보면 백제인들은 탁월한 건축감각을 지녔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건축가들은 신라에 와서 무려 80미터나 되는 황룡사 9층탑을 세운사람이다. 법륭사탑은 그에 비하면 33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최고의 건축가는 백제인들이라 말할 만하다. 여기에 보존과 기록에 있어서는 탁월한 일본사람들의 기술력이 더해져 완벽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장보고 대사 인연 서린 엔락쿠지

이어 답사단은 장보고 대사의 비가 서 있는 엔락쿠지로 향했다. 장보고 대사와 엔락쿠지와의 인연은 1200여년전으로 거슬러 간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보면 일본 엔닌(圓仁) 스님은 장보고 대사의 도움으로 당나라에 유학해,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적산법화원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엔락쿠지를 중창했다.

완도군은 엔닌스님과 장보고대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엔락쿠지에 공적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장보고의 고향 완도에서 온 아이들은 기념비 앞에서 화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김재현 학생(완도 수산고)은 "장보고 대사의 후예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한중일을 넘나들며 해상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편 것을 본받고 싶다. 또 엔닌스님 일화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자신을 빛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합작품, 동대사

여름날 일본여행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와의 싸움이다. 탑사단 29명에는 초등 · 중등 · 고등학생들이 함께했다. 서로를 잘 챙겨주는 역할을 나눠서인지 순례에는 큰 장애가 없었다. 답사단에 두 번째 날 세계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동대사를 향했다. 동대사는 한국의 고대 삼국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절이다.

낯선 이국땅에 와서 세계최대의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설명에 아이들은 신기해한다. 동대사 가람의 총책임자는 고구려인 고려복신(高麗福信)이 맡았으며 청동대불의 주조는 백제인 국중마려(國中麻呂)가, 그리고 대불전 건축은 신라인 저명부백세(猪明部百世)가 맡았다.

이 기술자들을 모아 동대사를 완성한 스님은 백제계 행기 스님과 양변 스님이었다. 추호림 학생(완도 수산고)은 "이게 우리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신기하다"며 감탄을 토했다.

사천왕사와 오사카성

일본 답사의 마지막 날 답사단은 오사카로 향했다.

"성덕태자는 누구에요?"

한 아이가 질문했다.

"한국과 일본 고대 역사에서 이 분을 바로 알아야 한일역사를 바로 본다"는 답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성덕 태자는 일본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다. 백제계인 성덕태자는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의 많은 사찰을 건립했다. 당시 백제계의 유명한 가문인 소가(蘇我)가문의 후원을 받아 불교국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비조사, 법륭사, 사천왕사 등은 성덕태자가 발원하여 만든 국찰이었다.

일본 답사를 마치고 완도로 돌아오는 길에, 답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소감을 들었다. 몇 명의 아이들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는 문화, 경제의 교류를 이해하는 듯 했다. 답사를 통해 부쩍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발길을 옮겼다.

일본=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사카성 앞에 놓인 130톤의 돌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리는 답사단

日 엔닌스님, 장보고 도움으로 당 유학
적산법화원서 공부 후 엔락쿠지 중창
"선조들 불교문화 日전파 자랑스러워"

'지구촌 보물 1호' 현지사 대적광전 - 누구도 몰랐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실체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안녕과 남북한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전쟁을 방지하는 인류 평화의 파수꾼


▷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부처님, 우주법계에서 최초로 불과를 얻은 법왕

2600년 전에 남섬부주에 사람몸을 받아 부처님이 되셨던 석가모니부처님은 그 때 처음으로 불과를 이루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겁 전에 불과를 증득했으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서 인신(人身)을 받아오신 것입니다. 이 인신의 몸을 응화신(應化身)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이미 오랜 겁 전에 성불하셨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전이 〈법화경 여래수량품〉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최초로 불신(보신)을 증득하여 부처님이 되신 분이 '노사나불' 이시고, 그 부처님의 청정법신불 이름이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3신을 말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체의 존재이지만 각자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만고(萬古)의 비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실체를 밝힌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리 우주법계에서 최초로 불과를 얻으신 석가모니불의 법신불이면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총섭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불신을 증득한 노사나불 이후에 모든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가피로 불과를 증득하셨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법계를 태양처럼 비추는 무량광 빛 덩어리, 광명지체(光明智體)로서 법계를 일체처 일체시에 비추고 있으며 그 광명은 우주에 편만해 있습니다. 분별과 의지를 떠나 있는 진리의 이불(理佛)이지만 청정법신에 원만보신불이 계합되면 그 때의 비로자나불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 창조주적인 우주적인 위신력을 발휘합니다.

■ 공을 깨친 자리, 자성이 법신?

기존불교에서는 진여, 자성, 본래면목, 공을 증득하면 법신을 증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불교의 법신은 자성광의 세계이지만 실제의 청정법신은 더 깊은 차원의 무량광의 세계입니다. 무량광은 자성광보다 강도나 광도 면에서 훨씬 수승한 빛의 세계입니다. 무량광은 자성광의 엑기스, 본원광으로서 대승경전에서는 무량억종광, 열반광이라고도 합니다. 억겁다생의 수행을 통해 보살도를 성만한 대수행자의 여여의 지(智)가 우주본성의 이(理)와 하나로 계합한 무형의 우주적 몸이 청정법신입니다.


▷ 대적광전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있는 스님들

■ 현지사 대적광전은 이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세계를 상적광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진리의 빛인 무량광명이 충만한 대적정의 세계이므로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는 광명변조(光明遍照)의 의미로 진리의 광명이 법계를 두루 비춘다는 뜻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은 무형(無形)으로 특정한 형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구현해 놓지 않으면 그 위대한 부처님을 중생들이 알지 못하므로 현지사에서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형상으로 비로자나부처님을 봉안해 놓고 있습니다.

■ 비로자나불의 우주적 위신력을 사바세계에 놓으시다

현지사 대적광전은 불과를 이룬 큰스님에 의해 점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를 이룬 큰스님이 점안하면 이 비로자나불상은 상적광세계에 있는 실제의 비로자나불과 무량광 빛으로 링크(연결) 되어 필요한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비로자나불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총섭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처님이라도 이 비로자나불상을 통해 현지사에 현신하고 상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절의 대적광전은 점안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신부처님이 상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지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이 비로자나불에는 두 분 큰스님께서 우리나라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발원이 섭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의 무한한 가피로 남북한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지사는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빚어내는 평화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비로자나불이 봉안되어 있는 현지사 대적광전은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세계평화를 담보하는 '지구촌의 보물 1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음력 초하루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재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현신하신다

이 날은 삼천대천세계의 원만보신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계합하여 실질적으로 우주적인 정화작업을 진행합니다.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으로 지구촌 인류를 위해 다양한 영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무량광을 방광해서 재일날 참석한 불자들의 업장소멸도 해주시는 매우 환희롭고 경이적인 날입니다.


▷ 현지사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고성분원 정기법회
9월 1일(월) 오전 9시

※ 추석연휴 관계로 법회를 앞당겨서 개최합니다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6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33)681-551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정토불교대학 가을 신입생모집

9월 1일 개강, 8월 24일 접수 마감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9월 1일부터 법륜스님의 영상강좌 '정토불교대학' 이 가을 학기를 개최한다.

교육 내용은 △실천적 불교사상(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법), 인간 붓다의 삶과 사상(미래 문명을 여는 나침반), 근본불교(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 길), 불교변천사(역사의 탁류속에서 연꽃을 피우다)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 · 복지 · 통일 특강, 사찰 순례, 특강 수련, 나누기 수련, 기도 정진, 수행 맛보기, 봉사활동 체험 등 특별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1년 과정으로 교육비는 12만원이다. 만 19세 이상 바른 불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오리엔테이션은 8월 25~31일 기간중 지역별 일정에 따라 1회 참석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8월 24일까지다.

정토불교대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ungto.org)를 참조하면 된다. (02)587-8990 이나은 기자

포교원, 2014 불교대학 실무자연수

8월 28~30일 일본 대마도서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28~30일 불교대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일본 대마도에서 '2014년도 불교대학 실무자연수'를 실시한다.

조계종단에 소속된 125곳의 불교대학 실무자들은 28일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 집결해 부산항을 출발, 대마도 히타카츠 항에 도착해 △한국전망대(역관사순난비, 무궁화 등) △오우라(임진왜란출항지) △백제 은행나무 △소선월(이종무장군전승지) △만제키바시(조선정복) 등 한 · 일 역사 유적지를 순례한다.

이후 실무자 토론회를 통해 불교대학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열린다.

29일 둘째 날에는 △불교대학 운영현황 브리핑 △포교부장 송묵 스님의 불교대학 학사운영 특강 및 세미나 △불교대학 실무자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포교원은 "불교대학 운영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업무 계획 수립을 위한 이번 실무자 연수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하계연수 성료

8월 1~3일 육지장사서 교사 템플스테이로 마음 치유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는 8월 1~3일까지 양주 육지장사에서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 현직 교사와 가족 17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시대의 교육 일선에서 활약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강영철 전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의 '반야심경의 교육적 실천' 강의 △옥 온구 체험 △108배 △차담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티베트박물관장 현장 스님의 '티베트불교 및 부탄의 행복지수' 강의 △범패의 대가인 범진 스님의 '한국음악과 염불수행, 무애법문' 강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교사하기 힘든 요즘 선생님의 역할' 특강 및 즉문즉설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의 '설법 방법론' 강의, 평가회, 회향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는 8월 1~3일까지 양주 육지장사에서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선배들이 이끌어 줘야 후배가 잘되죠"

부경대 대불련 불교학생회, 재학생·동문 연대활동 '눈길'

취업난 등으로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배 동문들이 앞장서 후배들을 이끌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불교학생회는 부경대 불교학생회.

부경대 불교학생회는 약 50여 명의 학생회 회원이 활동 중이며 현재 대불련 부산지부 회장을 맡는 등 부산지역 불교학생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부경대는 국립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 두 대학이 1996년 통합돼 탄생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도 대연 · 용당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비록 캠퍼스는 나뉘어져 있지만 부경대 불교학생회는 양쪽 캠퍼스별 불교학생회장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경대 불교학생회 출신인 임종윤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부산지역 대학생 불교학생회 중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며 "대불련총동문대회에도 유일하게 부경대 재학생들이 매년 참가하고 있다. 동문조직과 재학생조직이 유기적인 활동을 보이는게 부경대 불교학생회"라고 소개했다.


2014년 5월 진행된 고운사 사찰순례 모습. 동문 선배와 재학생들이 어우려져 함께 사찰을 순례하며 불교학생회 발전에 대한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됐다.

50여 학생 활동, 부산지역 중심 단체
대불련 총동문대회 매년 재학생 참가
동문들 십시일반 활동 지속 지원해
"졸업 후에도 활동 자연스레 이어져"

그 이면에는 선배들의 지원이 있었다. 부경대 불교동문회에서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문회 관련 각종 모임과 행사에 적극 동참 시켜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문회에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배들의 후배사랑은 매년 2~3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지원. 학생회 MT지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2014년 여름 제주도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의 워크샵에는 선배들이 십시일반 비행기 값 등을 지원해 재학생 14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동문모임을 구성해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은 매월 의왕 청계사에서 지회법회를, 울산지역은 울산 해남사에서 지회법회와 친목 모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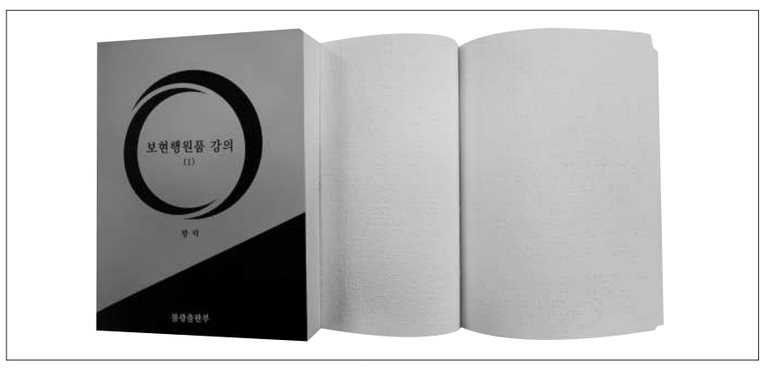
2000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부경대 불교교수회와 불교학생회 등은 공동으로 매년 불교사상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매년 전국 명산명찰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율이 높아 45인승 관광버스 2대가 꽉 찰 정도다.

이선균 부경대 불교동문회 고문(前동문회장)은 "원래 동문조직도 양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며 두 개였지만 2000년 봉축을 계기로 하나로 합치게 됐다"며 "통합을 계기로 후배들을 이끌자는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최근 대학가에 불교학생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선배들이 힘을 모아서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 등 그들의 고민도 함께 덜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각장애인위한 불교성전 나온다

장애인전법단, 연화원 주관으로 제작해 각 복지관에 보급



장애인전법단과 연화원이 발간한 시각장애인용 불교성전(보현행원품).

시각장애인불자들을 위한 점자 보현행원품이 제작 ·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지난 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동영상제작에 이에 올해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불교성전(보현행원품)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도 점자로 된 불교서적이나 경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점자 보현행원품은 장애인전법단의 지원으로 광림사 연화원(원장 해성스님)이 주관해 6개월 동안 제작한 것으로, 전국 시각장애인 단체 및 맹인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보급된다.

장애인전법단은 "점자 보현행원품 발간으로 장애로 인해 신행활동에 제약을 겪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스카우트, 국제패트롤잼버리 참가

8월 1~6일 야영대회도 개최…불교관 개설해 불교 알려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송묵)에 소속된 100여 명의 대표단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경북 상주시 강창나루공원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에 참가해 45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 일본 등에서 온 8천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잼버리에서 참가자들은 첫날 개영식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승마, 낙동강 자전거 트래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이와 함께 불교스카우트는 상주 남장사 야영장에서 잼버리 방문단 야영대회도 개최했다.

불교연맹 소속 대원과 지도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잼버리 개영식 참관, 물놀이, 잼버리박람회장 견학, 잼버리 참가자들과의 친교, 캠프파이어, 종교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스카우트 대원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잼버리 기간 중 '종교관'을 개설해 매일 아침 예불을 실시했으며 한국불교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소개했다.


불교스카우트는 지난 8월 1~6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국제패트롤잼버리에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또 합장주 만들기, 부모은중경 사경, 연꽃 등 만들기 등을 실시해 불교문화를 이해하도록 했다. 이번 활동에는 잼버리 기간 중 연 인원 4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밖에 불교스카우트는 분단 영지에 모여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면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풍등을 날리는 의식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1권 ~ 81권 (각권 1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시장형 일자리… 교계 노인 취업 대안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탓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시만해도 25개구 중에서 22개구가 재정고갈을 호소하며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신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제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시장형 노인 일자리여야 한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종. 대개 농산물판매, 밑반찬 판매, 유기농식당 등 주로 요식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서울 종로구청내에 자리한 플러스카페(Plus Cafe)는 서울시 고령자기업 창업지원 대상 지원금을 받아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다.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6,70대 어르신 7명이 커피, 허브티, 생과일주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지난해 1월 개설한 이후 1년 동안 올린 매상은 1억4천여만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1천여만원의 순매출을 올렸다. 어르신들은 5시간씩 주 2~3회 일하고 월 30만원을 번다.

안창배(65)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하냐. 커피에 대해 새로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이 나이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며 만족감을 표시한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이 브랜드화된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산하 용인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休(휴)브랜드는 카페, 식당, 분식집 등으로 특화돼 지점별로 운영되고있다.

2011년 용인시 처인구청에 생긴 '카페 休' 는 2012년 수지구청, 기흥구청에 잇따라 개점했다.

수지구청 구내식당에 위치한 '계절밥상 休&청춘주먹밥' 사업 역시 순항중이다. 천연조미료 사용을 내세우며 건강식단을 자랑하는 덕에 매출도 호조세다. 지난해 10월 말 오픈해 현재까지 약 1억여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올해 1월부터는 곡물스낵제조장 '백옥美 마을' 도 생겼다. 용인시 특산물인 백옥쌀과 농산물을 이용, 22명의 어르신들이

판매 · 제조 · 서비스 등

수익 창출형 노인 일자리

저렴한 가격 높은 상품 신뢰도

노인상 정립에 긍정적 효과 톡톡



서울 종로구청내에 위치한 플러스 카페. 70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있는 이곳은 지난해 매출 1억 4천여만원을 기록했다.

두부과자, 라이스스낵, 비지쿠키 등을 직접 제조한다. 백옥미 마을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이 협업한 사례. 연면적 164.64㎡(약 49평)에 달하는 토지는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상 2층 건물의 건설비와 운영비는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에서 부담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려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추세다. 타 상점과는 달리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저렴한 가격 또한 주요 경쟁력이다. 플러스카페 커피가격은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반값인 1900원, 휴식당 점심 밥상은 4500원이다.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망베이커리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맛좋고 가격 저렴하기로 소문난 이곳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에서 합격점을 받아 지난달 복지부에서 예산 3천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플러스카페를 이용하는 이주현(35)씨 역시 "다른 곳보다 정감가는 곳이다. 어르신들이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제 몫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좋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노인복지관측도 긍정적 노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수익성도 있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플러스카페 채용경쟁률이 20대1이었다는 점만 봐도 어르신들의 관심도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일반 환경미화나 공공근로 등에 비하면 직무만족도 역시 높은 편. 내년에는 최저시급에 맞춰 어르신들 임금 역시 인상해야 하지만 큰 부담은 없는 편이다. 이런 이유로 종로노인복지관측은 올해 안에 플러스카페 2호점 개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니어클럽 역시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혜민 스님과 함께 마음치유를

8월 22일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힐링 콘서트



불교계의 멘토인 혜민 스님<사진>이 불교사회복지 종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콘서트를 진행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조계종자원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혜민 스님의 강연을 개최한다.

바쁜 업무와 대인간 스트레스로 지쳐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강좌인 만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나와 타인의 삶의 변화를 생각하며 사회복지의 참된 뜻을 새길 수 있다.

혜민 스님의 재능나눔으로 진행되는 이번 마음치유 콘서트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전국 160여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혼자 보다는 여럿이 좋아~

길음 소리마을, 소셜 다이닝 등 행사 풍성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에서 운영지원 하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소리마을에서 8월 다채로운 행사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우선 8월 22일과 29일에는 무료 영화관이 열린다. '과속스캔들' '박물관은 살아있다 2' 등이 오후 7시부터 길음소리마을센터 지하 1층에서 상영된다.

이어 8월 26일에는 까나페, 샌드위치, 화채 등을 만드는 음식만들기를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작은 다과회가 진행된다. 이른바 소리마을 '작은축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며 1인당 참가비는 1천원이다. 선착순 30명 대상이다.

혼자 밥 먹기 싫은 이들을 위해 마련되는 '행복한 저녁밥상' 도 있다. 근래 유행하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을 본뜬 것이다.

소셜 다이닝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밥먹는 문화가 저변화되자 여럿이 어울리는 식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쌓아보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문화다.

8월 27일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1인당 반찬 1가지 이상만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이웃과 함께 밥 먹으며 친해지고 싶거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02)919-3838

배현진 기자

고독사 예방 공동거주 프로젝트

본동복지관, 노인의 집 후원자 모집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동작구 내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의탁 노인들이 기거하는 '번영노인의 집' 을 운영하고 있다. 번영노인의 집은 서울 동작구 번영경로당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했다.

주거지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3명이 공동 거주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 ·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지원받고 있다.

윤00 어르신은 "오갈데 없이 힘든 우리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노후를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며 살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나 한정적인 재원탓에 번영 노인의 집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관측은 "지역 내 다양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후원자와 자원봉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817-8052


무의탁 노인들이 기거하는 '번영노인의 집'

배현진 기자

구성원 달라도 모두 같은 가족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 접수 9월 1일부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제 4회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구성원은 달라도 모두 행복한 가족입니다' 를 주제로 산문 · 그림 · 사진과 한부모가족 자립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훈훈한 이야기 △한부모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행동하는 가족의 이야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및 양육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마련에 성공한 이야기 등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산문은 A4용지로 2매 이내로 작성하면 되고 사진은 스토리를 작성해 2점 이상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부상은 총 37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장 및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되며, 그 외 12명과 1기관에게도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접수된 작품은 향후 한부모가족인식개선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공모전 참가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9월 1일~10월 10일까지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오늘은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장품이라야 가루분과 립스틱이 거의 전부였던 어르신들이 속눈썹을 붙이고 립브러시로 입술을 그리는 재미에 빠졌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에서는 10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6월부터 무대화장봉사단 교육을 받고 있다. 가야금, 난타, 풍물 등 예능 실력을 갈고 닦는 황송예술문화학교 소속 어르신 70여명의 공연 메이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무대화장봉사단원들은 남은 한 달간의 교육을 거치고 복지관 후원 및 자원봉사 송년의 밤, 발표회, 지역행사시 출연진들의 메이크업을 직접 하게 된다. 수업이 끝나면 어르신들은 짙게 칠한 아이새도우가 마음에 든다며 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1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아만 버리고 하심 할 때 희망찬 미래 열려”

봉은사 우란분절(백중) 특별법문 ‘현세기에 대한 반성’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우란분절(백중) 6재를 맞이한 8월 3일 성타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문을 진행했다. ‘현세기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열린 법문에서 성타 스님은 “21세기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환호와 희망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하며 다음 세기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타 스님은 …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법주사승가대학 강사와 불국사 총무를 거쳐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제 6~11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동국대학교 재단이사, 전국본사주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주 지역에서는 ‘경주경실련공동대표’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우리나라 NGO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교계 인사 가운데 한명이다. 15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환경운동에 힘써온 환경운동가이자 지역 내 시민운동의 발전에 앞장서온 실천적 인물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금오집〉〈자연과 나〉 등이 있다. 투박한 문체로써 깨달음의 정수를 표현한다는 평을 받았다. 번역서 〈불소행찬〉과 논문 〈백암사상〉〈경허의 선사상〉〈경허 선사와 한말의 불교〉〈한국불교와 사회적 성격〉 등이 있다.

불교는 고(苦)를 낙(樂)으로 바꾸는 종교

불교 교리 가운데 ‘부사의변역생사(不思義變易生死) 분단생사(分段變易)’라는 말이 있다.

변역생사는 삼계를 벗어난 성인(聖人)들의 생사를 가리키는 말로, 불보살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모습을 뜻한다. 삼계를 초월한 자는 그 몸을 자유자재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죽고 다시 태어난 경우에도 그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사유로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부사의변역생사’를 끊어버려야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아라한은 ‘부사의변역생사’에 놓여 있다. 부사의변역생사의 경지에 오르면 스스로 만족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반 중생의 생사인 분단생사는 삼계 안의 중생들의 몸은 거칠고 고정된 형태임으로 ‘분단’이라 하는데, 몸을 줄이거나 늘리기 어렵고 고정된 형태로 이 사회에 나왔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바탕에는 근본번뇌라는 것이 작용해 업(業)에 의해 형과 틀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죽은 후 전생을 기억할 수 없어 삼계 안 중생들의 사유는 거칠고 부정확하며 끊임없이 밖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그 신체가 거칠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또한 중생은 애초부터 고정된 형태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 삶의 근본은 낙(樂)이 아니라 고(苦)라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의사나 간호사가 등을 두들겨서 울게 만든다. 자의 · 타의든 울며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다.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틀에 갇혀서 태어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는 것으로 본다. 결코 우연히 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울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태어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고를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고(苦)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낙(樂)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불교적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해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여러분이 잘 아는바와 같이 2001년부터 21세기가 시작됐다. 여러분은 2000년을 보내고 2001년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20세기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 세계전쟁 등이 종식되고 밝고 평화로운 21세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전 세계가 희망을 갖고 21세기를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 21세기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20세기에 도 있었던 테러와 학살, 전쟁 등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제1 · 2차 세계대전, 걸프전 등 세계적인 전쟁이 많았던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하며,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하며 다음 세기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고(苦)에서 낙(樂)으로 바뀌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부조리는 늘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오늘날 1시간의 변화는 과거의 90년 동안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매일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 반면 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라크, 크림반도 등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지 완전한 평화 상태는 아니다.

중생은 형 · 틀을 갖고 태어나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괴로움 느껴
욕심버리고 정신적인 것 추구해야
현실 극복하는 지혜심 생겨

전쟁이 오면 같이 따라오는 것은 빈곤문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많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자연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일 시시각각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우리의 눈을 괴롭힌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부정적인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국가 간 이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규와 전쟁도 심각하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대규모 테러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살해 사건들도 그렇다.

그런가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익추구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생하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부조리함을 저지르고 있다. 그뿐인가. 많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잘못된 공직사회 등 이런 여러 가지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희망했던 21세기는 지난 20세기와 다름없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22세기도 21세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한 반성은 역사 · 정신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으로 분류해 생각해볼 수 있다.

선조들의 정신을 상기하자

우리 에게는 좋은 정신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왔다.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선조가 갖고 있는 좋은 정신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신라시대의 고운 최치원(857~?)은 화랑제도 설치와 관련해 ‘난랑비문’(화랑 난랑의 비문)을 썼다. 여기서 그는 풍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

‘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이는 삼교(유불선)를 내포한 것으로 모든 생명과 접촉하면 이들을 감화시킨다.’

최치원은 사상으로서의 풍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삼교를 융합하는 풍류야말로 우리가 조명해야 할 고유 사상이자 인문정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는 옛 선조들이 함께 통합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예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에 와서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와 교리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정신사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종교를 포함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풍류를 통한 통합으로 가야한다.

화랑도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관창, 사다함, 백결선생 등이다. 사다함은 15세 때 전쟁을 치르며 국가에 공을 올렸고,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죽은 의리 있으면서도, 공익을 추구한 인물이다.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치를 때 신라는 약세해서 백제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어어린 관창은 곧 적진에 달려들어가 싸우다가 적에게 잡혔으나, 백제군을 이끌던 계백은 그의 어리고 또 용맹함에 탄복해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백결선생은 신라시대의 음악가로서 금(琴)의 명수였다. 경주의 낭산(狼山) 밑에 살던 빈한한 선비로 세사를 달관했던 인물이다. 한번은 그의 아내가 가난을 상심하자 백결선생은 “무릇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매인 일이어서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부질없이 상심하는가”라고 하며, 이내 가야금으로 방아 찧는 소리를 연주해 아내를 위로해줬다고 한다.

이밖에 원효 대사도 하심(下心)과 화쟁(話爭)의 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했듯, 우리는 이런 역사적 인물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안심(安心)은 최상의 행복

불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아만심을 버리고 겸손과 하심으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수용하며 지혜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교만을 버리라고 했을까.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지 않게 된다.

자기는 버리면서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올바른 자세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어리석으면서 현명한척 하기보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현명해진다”고 말했다. 교만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무지함에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을 불러온다. 교만을 버리면 내가 알게 되더라도 무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지하면서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겸손하면서도 교만을 버리는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줬다.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길과, 욕망보다 자기 스스로 욕심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욕심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과학을 통한 욕구 충족이다. 불교는 욕심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밥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욕심의 일환이다. 과학이 발달 하는 이유는 현실보다 나아지겠다는 욕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다. 불교는 욕심을 인정하되 모든 고통을 욕심의 성취로써 해결하려는 자세를 비판했다.

욕심을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비불교적이며 한계가 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없고 살 수 없듯 욕심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지혜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늙는다 해서 한탄하지도 말고 죽는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않는 웃을 수 있는 불자가 돼야한다.

욕심과 집착을 덜고 현실을 수용해서 지혜를 가질 때 욕심은 해결될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갖되 욕심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도가 중요하다. 정신적인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불자가 될 때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가 열린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건강(健康)은 인간에게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滿足)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信賴)는 최상의 인연이 되어 줄 것이요 안심(安心)은 최상의 행복이다”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의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과 하심으로 열심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봉행

불기 2558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9월 15일 ~ 9월 17일 (음 8월 22일 ~ 8월 24일)**
◆ 입 재 : **불기 2558(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 2시까지 접수요망)**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서울 도봉구 도봉1동 494-3 대한불교대승종 도봉사(교육원) ☎02)956-4671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 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 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중앙종회의원 당선확정 공고

총무원장 김윤철(향운)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선출 공고에 의하여
종회법 제 11조 제 12조에 규정에 의거 중앙종회의원 당선확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다 음

박병철(진산) 김옥자(옥운) 이동준(진덕) 최병택(지호) 김옥태(상도) 현송자(성진)
박종수(상진) 김억찬(태운) 박정명(지상) 김양주(범일) 안보문(해운) 이청일(인담)
김재길(혜공) 이종숙(상기) 이성대(수월) 함창식(창현) 설회생(명관) 황미장(거산)
김양자(인명) 하청원(법승) 오양근(명수) 안양덕(고경) 최복순(상화) 송인길(상오)
안영자(운영)

이상 25명 (무순)

불기 2558(2014)년 8월 13일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중앙종회선거관리위원장 박재열(능인)

“불교 포교에 의학승 활동 절대적”

김성순 금강대HK교수, 〈불교학연구〉 39호서 주장

불교는 종종 의학에 비유되곤 한다. 그것은 의학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의왕’(醫王)으로 불린 부처님 이후 불교 내에서 아픈 중생을 치유하는 것은 승려의 소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불교 내에서의 의학전통은 무척 뿌리가 깊다.

이런 불교의 의학전통을 부처님 재세시부터 근대시대까지 정리하고, 특히 불교포교에서 활약한 의승들의 활동을 주목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성순 금강대HK교수〈사진〉는 최근 〈불교학연구〉39호에 ‘한국 불교의학의 전래와 의승들의 활동에 관한 일고찰’ 논문을 통해 불교가 사회 주요사상으로 자리한 배경에 의승들의 활약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승려의 의술은 ‘포교’라는 실리와 ‘자비행’이라는 명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이었으며, 불교를 민간에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고대 인도시기부터 원시의학인 아유르베다를 토대로 동아시아 전래과정에서 중국의학을 흡수하고, 한국에서 민간의학화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불교의학은 기원전 100년 경 중국에 도래되며 인도의 의술을 담은 경전 번역을 통해 중국의승들이 나타나게 됐다. 중국에서는 인도의학 유입과 자체적인 불교의학 전개로 사원 안에 전문적인 의료공간이 있었으며 스님들이 의술에 달통한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601년 안함 스님 이후 의학 활성화
보살의 다섯 의무 중 의술 포함
고려 국가의료원서 스님들 활약

한국불교에서 최초의 의승은 601년 안함 스님이 중국에서 십승의 비법과 법화현의를 공부해 605년 돌아왔다는 기록에서 출발한다.

김 교수는 “안함 스님이 저술한 방술서 안에 의술이 포함돼 있었다”며 “보살과 신중가피력을 빌어 병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앙행위가 늘며 의료와 기도, 주력을 함께 행하는 의승들의 활약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6세기 이후 불교가 신라의 공인을 받는 데에도 기존 스님들이 가진 의술과 주력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을 밝히고, 이후 불교에서는 보살들이 반드시 통달해야 하는 오명(五明) 중에 의방명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려시대에는 의술이 관료화되며, 사원 내에도 별도의 의료시설이 자리하게 된다”며 “고려귀족들은 병을 앓거나 임종이 다가오면 사원으로 거처를 옮겨 종명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문량공을 비롯한 귀족들이 스님의 도움으로 악성종기와 같은 당시 큰 병을 수술해 고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가 구호시설인 대비원에도 의승들이 활동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의승들의 활동은 조선시대 들어서며 지방과 민간으로 급속히 퍼져나간다. 김 교수는 “탄선과 같은 스님들은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에 나섰으며 종림 스님은 판교원을 지어 성을 짓는 이들 중 병자를 치료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며 “특히 한증승, 의승, 매골승 등 형태로 활동하며 불교가 살아남을 길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한국불교 초기의 승려 의료행위는 비록 그 목적이 포교 내지는



생존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생구제를 위한 자비행으로, 의학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불교학연구〉 39집에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테라와다 불교의 재가불자 신행도’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금광명경〉의 여신과 한국불교에서의 신앙문화’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현륭의 유식사상’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지적 이해와 원효의 선관’ 등 10개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사상사, 수행 작용 과정 연구 눈길

동국대 하반기 불교 박사 10명 배출… 석사 15명

올해 하반기 동국대에서 10명의 새로운 불교박사와 15명의 불교석사가 배출됐다. 이번 배출된 불교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불교박사 과정에서는 불교사상사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석사 과정에서는 불교수행과 심성 작용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대학원 학위수여 목록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최원섭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 구현 연구–의상 〈일승법계도〉에 의거한 인불형을 원용하여’(불교학과) △박소령 ‘대승불교 재가불자의 신행과 위상 연구’(불교학과) △김영석 ‘불교 업론에 나타난 의지와 그 표출행위의 상관성 연구’(불교학과) △이홍구 ‘신라 의상의 엄정융회적 신행 연구’(불교학과) △박상갑 ‘법사사상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연구’(불교학과) △진관 스님의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연구’(선학과) △김현덕 ‘파니니(PANini)의 명사격어미 연구–〈아슈타댜이(Astadhyayi)〉에 규정된 비박티(vibhakti)를 중심으로’(인도철학과) △이영석 ‘〈입보리행론〉의 보리심 개념 연구’(인도철학과) △오세덕 ‘조선시대 승장의 건축술과 계보 연구’(미술사학과) △고승희 ‘조선후반기 괘불화 불의 문양 연구’(미술학과)가 있다.

특히 최원섭 박사의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 구현 연구’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필요성을 인식해온 불교 영상포교의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영화나 방송 등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불교적 코드’의 해법을 의상 스님의 일승법계도 활용에서 찾았다.

또 진관 스님의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연구’는 용성 스님의 불교 실천 운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근대불교 변혁 과정에서의 공헌과 만해 스님 연구와의 비교를 다뤘다.

불교를 주제로 한 석사 학위 논문으로는 △이숙현 ‘불교수행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불교학과) △김지예 ‘〈옥야경〉의 여성관 연구’(불교학과) △김관용 ‘신라 의상의 심성설 연구’(불교학과) △김학배 ‘설일체유부의 인과론 연구’(불교학과) △위하나 ‘무념의 의미에 대한 연구’(선학과) △박현진 ‘초기불교의 나가(Naga)신앙 연구’(인도철학과) △임혜정, 판차다쉬(Pancadasi)에 나타난 상키야요가 사상(인도철학과) △이영선 ‘고려시대 풍탁 연구’(미술사학과) 등 15편이다.

노덕현 기자

日 부석사 불상 전래 과정 왜곡 드러나

부석사불상제자리봉안위 日답사서 왜곡 서적 판매 밝혀져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비롯한 약탈 추정문화재가 기증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온 것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책자가 일본 대마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재환수국제연대와 서산부석사불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8월 7~9일 대마도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마도의 한국문화재 140여 점이 당시 고려와의 교역과 기증에 의해 받은 것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역사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당한 불상–대마와 도래불(조선불상)의 역사적 배경〉의 50여 쪽 분량의 책은 나가토메 히신에라는 학자가 쓴 것이다. 책은 ‘불교전래 역사 개요’, ‘대마의 많은 도래불(조선불상)’, ‘고려말기의 난세와 교역’ 등 3개 장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중 3장에서 조선 건국과정에서 불교 탄압으로 대마도에 불상 교역과 기증이 활발히 이뤄져 많은 불상이 대마도로 넘어와 보존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왜구’에 대한 정의도 대마도인들과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일본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는 “불상 소장 경위에 대해 교류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장은 당시 대마도의 사회와 경제적 여건과 왜구의 빈번한 침탈, 그리고 불상을 옮겼다는 기록 등 여러 증거 상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경임 중원대 교수도 “불상을 기증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왜구가 일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인들이라는 주장이 실린 책이 판매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부석사 불상 환수움직임은 미미하다”며 “현재 일본 군위안부 문제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함께 문화재 환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월 29일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 대마도의 신사 등에서 일본 국가지정 문화재 3295호인 동조여래입



일본 대마도에서 판매중인 불상 전래 왜곡 서적

상과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관세음보살좌상 등 문화재 3점을 훔쳐 국내로 반입한 일당을 검거해 해당 문화재들을 압수해 문화재청에 넘겼다. 이후 관세음보살좌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 대마도로 넘어간 정황이 제기됐고, 부석사 신도와 서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상에 대한 다양한 환수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근거 규정 구체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재 관람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였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나이제한을 폐지했으며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법령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됐다.

입법 예고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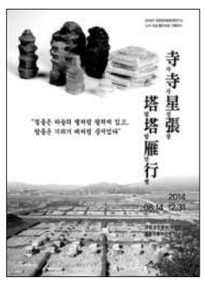
신라 사찰 유물 100여점 새롭게 선보여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8월 14일부터 신라 사찰 출토 유물 기획전 ‘寺寺星張(사사성장) 塔塔雁行(탑탑안행)’을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사사성장(寺寺星張) 탑탑안행(塔塔雁行)은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떼처럼 줄지었다는 의미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경주 황룡사, 분황사, 사천왕사, 망덕사 등 출토 유물 100여 점이 새롭게 전시되며, 1,300년 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신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한다.

전시 주제는 △ ‘경주 지역의 신라 사찰’ △ ‘사천왕사 목탑지 출토 녹유신장벽전’ △ ‘불상, 그리고 금인(金人)’ △ ‘조탑공덕(造塔功德): 탑을 세우고 공덕을 쌓다’ △



‘정병, 자비(慈悲)와 염원(念願)’ △ ‘광명대: 진리의 빛을 밝히다’ 등 다양한 주제로 신라의 사찰과 불교문화재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도중사(道仲寺)’, ‘백률사(栢栗寺)’, ‘창림사(昌林寺)’, ‘△룡사(△龍寺)’ 등 신라 사찰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기획전은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054)777–8847

노덕현 기자

제 138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는 8월 23일 경주 성림문화재연구원 강당에서 제13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재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의 ‘4~6세기 경주지역 출토 허리띠 장식(帶金具)의 부장양상 검토’ △강봉원 경주대 교수의 ‘신라의 벽화고분과 화상석 존재의 가능성 검토’ △이동주 경북대 교수의 ‘신라 하대기와의 지방 확산 배경’ △진정환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사의 ‘나말여초 석조미술 발원자와 장인의 변화 양상과 의의’ 등이 발표된다. (031)709–7850

노덕현 기자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15년 전부터 육임학습서와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육임 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 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또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適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 이내각 부총장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광주에 사찰음식체험관 문연다

증심사·자비신행회, 광주 서석로서 시범운영 실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신선한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웰빙식단인 사찰음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제철 음식재료에 인공조미를 하지 않아 건강과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찰음식은 최근 전문 강좌에 식당까지 속속 들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빛고을 광주에도 자연사찰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들어선다.

증심사(주지 연광)와 자비신행회는 공동으로 광주 동구 서석로에 80여 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빛고을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을 개설한다.

광주지역에 사찰음식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공간으로 처음 개원하는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은 지난 7월 내·외부 공사를 마치고 8월말 개장을 앞두고 8월 11일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체험관 담당자는 "도심에서 만나는 사찰문화(자연사찰음식, 茶문화 등) 체험 공간으로서, 생명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찰의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청년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쉽게 체험하고 교육하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문화 보급 전초기지 역할도

체험관에는 자연사찰음식 체험공간 30평, 차(茶)문화 체험공간 30평을 비롯해 다양한 차(茶)관련 문화와 사찰음식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80여 평 공간, 사찰문화 체험 기회
차문화 교육·템플스테이 홍보

40여 명이 직접 사찰음식을 배우면서 조리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누구나 도심에서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차문화 특강, 시음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체험관 운영에 대해 김영섭 사무처장은 "향후 자연사찰음식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프로그램과 차문화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 사찰음식 및 차문화 전문가 양성 및 관리, 템플스테이 관련 프로그램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찰음식 체험관은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 홍보관 역할도 담당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에서 이와 연계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찰의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공서와 연계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향후 광주불교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8월 말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간 사찰음식 체험관 외부 모습과 실내교육시설(사진 원안)

개암사, 부안경찰서와 청소년 지원 협약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청소년 및 가정 폭력 대상자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월 12일 부안경찰서 서장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은 부안 이상주 서장, 은희준 청소년 원스톱 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돌봄 청소년 및 성·가정폭력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암사는 부안서 등과 협조하여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육군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부대 사고로 군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 송광사에서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위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위문공연을 펼쳤다.

완주 송광사(회주 도영)는 8월 9일 육군 논산 훈련소 호국 연무대 큰 법당에서 훈련병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대전 죽림정사 광진 스님, 각정 스님 등 송광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불교어머니회, 포교 사단 전북지역단 50여 명이 동참해 훈련병들을 위로했다.

육군 논산 훈련소와 부사관학교 등 군 포교에 발 벗고 나서 가장 많은 수계제자를 배출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도영 스님은 훈련병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당부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곧 자대배치를 받을 병사들이 계율을 지니고 실천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완주 송광사는 수계법회 후 훈련병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댄스그룹을 초청해 위문 공연을 펼쳐 연무대 법당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15 광복절을 맞아 최초로 공개된 일제 강점기 전주 신사의 모습

동국사 종걸 스님, 일제강점기 전주 신사 최초공개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이 일제가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사직단 터에 건립한 '국폐소사(國弊小社)'였던 전주신사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다.

종걸 스님과 전주문화원은 광복절을 앞둔 11일 전주신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 4점을 공개했다.

1943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신사 모습은 신사 참배 거부로 폐교된 신흥학교 부지와 12만5619㎡의 사직단 터에 전라북도 도민의 성금 13만 7천엔이 투입됐고 당시 손영목 전북지사의 주도로 총 공사비 40만엔을 들여 1938년 공사를 시작해 1944년 도신궁(道神宮) 성격으로 준공했다.

당시 '근로보국대'로 학생과 도민 등 연인원 13만여 명이 강제 동원됐고, 황국신민화의 일환으로 매년 10월10일을 대례일로 정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또 일제는 주변 다리의 이름도 '대궁교'로 짓고, 뒷산도 본 이름인 화산 대신 일본 나라현에 있는 벚꽃 명소인 길야산(요시노산)으로 바꿨다. 그 언저리에 길야산신사를 조성하고 벚꽃을 식수했다.

종걸 스님은 "광복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의 침탈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해방 뒤 건물이 철거돼 문헌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 그 모습을 통해 향토사 연구와 일제강점기 전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신사는 관폐는 황실, 국폐는 정부, 향사는 지방 관청, 사사는 개인이 신사에 공물을 헌납하고 관폐와 국폐신사는 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생명평화주말학교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가 전북 고창, 정읍, 부안 일대에서 전통문화 유산 답사와 함께하는 '생명평화주말학교'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2~3일 진행된 이번 생명평화주말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불교문화와 역사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환경 등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느끼면 닮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동학동민혁명기념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박물관, 개암사를 찾아 공동체 놀이 및 개암사 아침 산책 및 문화재 탐방, 스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년원생들을 위한 수련회 '눈길'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8월 12~13일 여름불교수련회

소년원생들을 위한 불교수련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지난 8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고령정보고등학교(광주소년원) 원생들을 위한 여름불교수련회 및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교정교화 1팀에서 진행한 이번 수련회에는 20여 명의 소년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신스님(향림사), 이재언·김인수·손복순·서순자 포교사의 지도로 불교기초교리, 비디오 상영, 108참회정진, 한글천수경 공부, 신행상담,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13일 진행된 수계법회는 소년원생과 포교사들이 참여한 육법공양에 이어 예경삼보, 거양한, 독경, 청성, 청사, 청법, 개도, 참회, 연비, 계첩 수여 등이 진행됐다.

도신 스님은 수계법회 법문에서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하는 것은 참다운 불자로 태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이 부여되는 출발점이다"라며, "사회적 규범과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 하고 이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청소년기에 잠시 방황과 일탈로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 원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견해와 올바른 행동이 참 나를 찾는 길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며 "짧은 수련활동이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이날 행사는 소년원생들에게 음식과 과일 등이 제공되었다.

한편 교정교화팀은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여름·겨울 불교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년원생들과 1대 1일 멘토링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부모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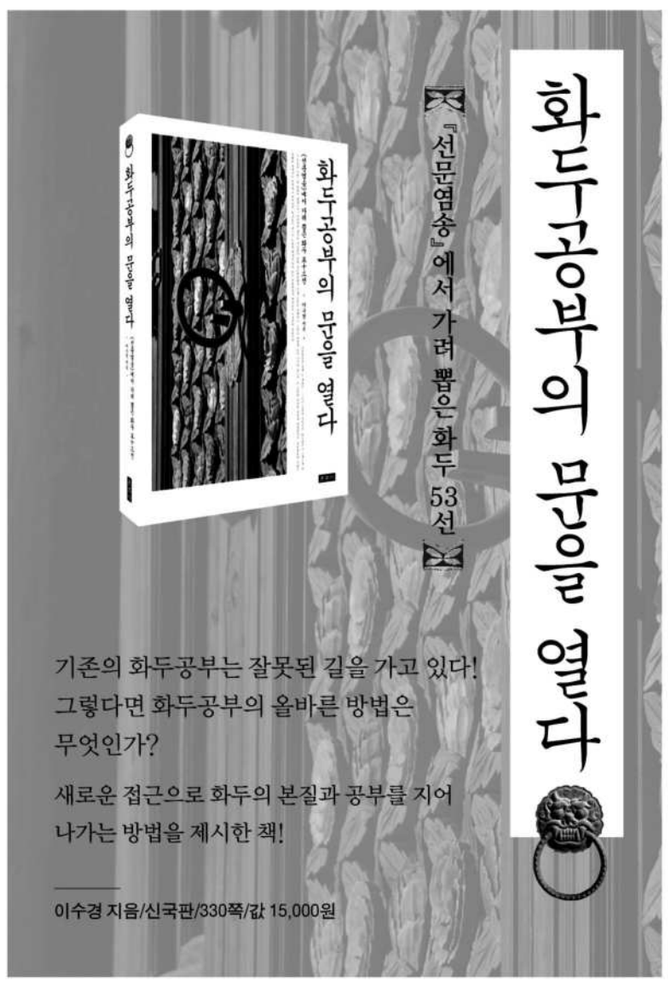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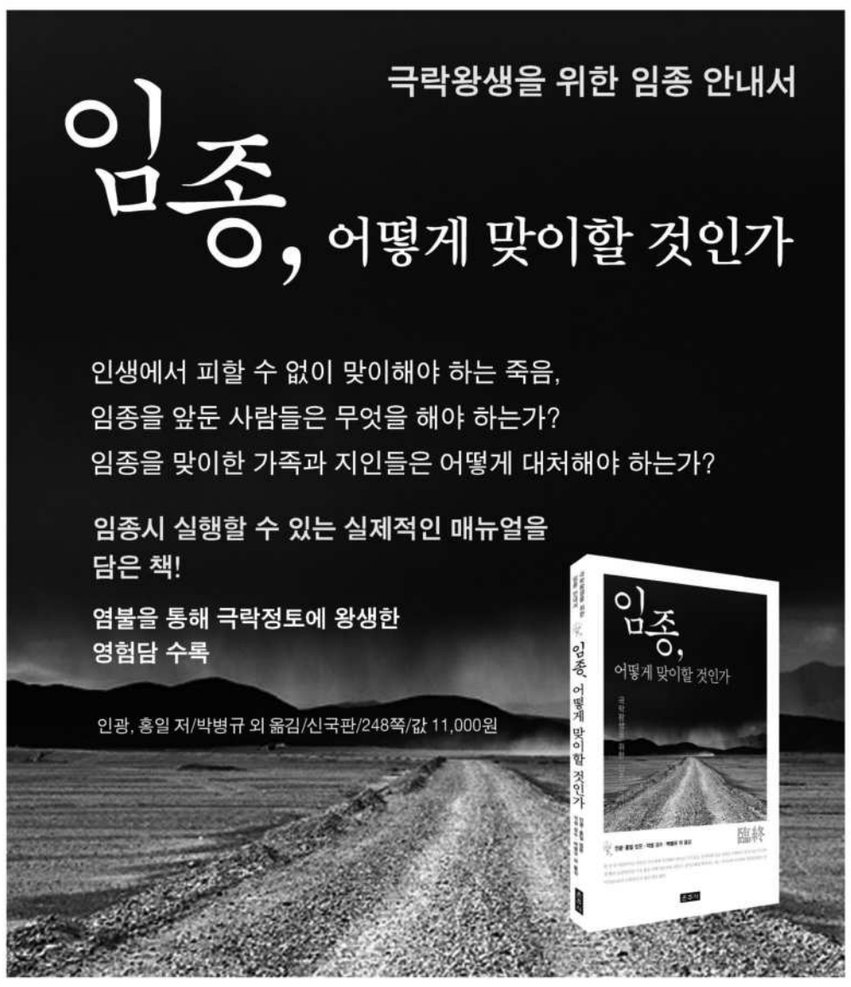
강진 월남사지 통일신라 유적 발견

강진 월남사지에 통일신라 유적과 고려 연지가 발견됐다. 8월 13일 강진군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남쪽 자락의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298호)과 진각국사비(보물 313호) 주변 월남사지(月南寺址·전남도 기념물 제125호) 발굴조사 중 통일신라 유적과 고려 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월남사지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1차 조사에서 백제시대 절터를, 2013년 2차 조사에서 월남사의 중심 사역을 확인한데 이어 이번 3차 조사에서 통일신라 유적과 고려시대 연지(蓮池)를 확인했다.

또 건물지 11동과 보도시설, 내부담장 등이 확인됐으며 건물에 배치된 초석과 적심, 석렬 등이 불규칙하게 이뤄진 점으로 미뤄 시기를 달리해 건물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는 4번에 걸쳐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진 흔적이 토층과 유구에서 확인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남북통일 발원 부처님 진신사리 공개

태종사 한국 · 스리랑카 수교 31주년 기념법회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지인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가 한국과 스리랑카의 수교 31주년을 기념해 스리랑카에서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공개했다.

특히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대승정 소비타 스님이 1983년 남북통일을 기념해 태종사에 기증한 것이다. 8월 13일 경내에서 31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태종사는 소비타 대승정을 초청 스리랑카와의 수교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불교문화를 한국 내에 알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소비타 스님, 조실 도성 스님 등을 비롯한 대덕 스님의 탁발에 공양물을 넣는 테라와다 고유의 탁발의식 시연을 시작으로 봉안 역사 소개, 환영사 및 인사말, 스리랑카 소비타 스님에게 법문을 청하는 삼귀의와 5계가 조실 도성 스님과 신도들의 팔리어로 펼쳐졌다. 이에 소비타 스님은 "31년 전 태종사에 국보급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봉안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도성 스님을 비롯한 한국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더불어 좋은 기운을 불러 넣어주신 덕분에 오늘과 같은 특별 법회가 봉행 될 수 있었다"고 회답했다.

이어 소비타 스님은 "어떤 종파이든 불교의 근본은 하나이다. 한국 스님과 스리랑카 스님들은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불교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수행에 정진하길 바란다"며 한국과 스리랑카의 교류를 당부했다. 이어 대덕 스님들을 선두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친견하는 500여 사부대중의 행렬이 이어졌다. 또한 소비타 스님은 대중에게 성수를 직접 뿌리며 불자임을 증명하는 마정수기를 집전하기도 했다.

소비타 대승정 초청 법회

"문화 교류하며 수행정진하길"

한편 태종사는 1983년 조실 도성 스님의 서원으로 스리랑카에 있었던 국보급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가 봉안됐다. 당시 조실 도성 스님은 부산의 관광 명소인 태종대가 삼국시대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발원했던 역사적인 유적지임과 동시에 분단과 아픔을 극복하려 했던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태종사를 분단국가인 한국 평화의 발원지로 만들고자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 봉안을 추진했다. 그러던 중 도성 스님은 스리랑카 고찰 스리나가사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고 스리랑카 국무장관을 통해 스리나가 주지였던 소비타 스님에게 한국 태종사에서의 진신사리 봉안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타 스님은 한국의 분단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1983년 직접 태종사를 방문해 진신사리를 봉안하며 남북통일을 발원했다. 반면 보리수는 스리랑카 보리사 팔레가마 여나라트나 스님이 같은 해인 1983년도에 기증한 것이다.


부산 태종사가 한국과 스리랑카의 수교 31주년을 기념해 8월 13일 스리랑카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공개했다. 사진은 탁발시연중인 소비타 스님(사진 맨 오른쪽)

태종사는 "이번 특별 법회를 통해 살아계시는 부처님이라 여겨지는 보리수와 진신사리를 공개하고 스리랑카 큰 스님을 모셔 한국 신도들에게 뜻 깊은 야단법석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가를 초월하는 것임을 한국 · 스리랑카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했다"며 이번 특별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현재 태종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4세기 인도 카링가국에서 공주 헤마말라와 부마 단타 쿠말라에 의해 스리랑카에 봉정된 것으로 스리랑카 국보급 진신사리로 여겨진다. 또한 이번 법회에 초청된 소비타 스님은 스리랑카의 부루나 존자로 여겨지는 인물로 수바드라 라마대학 부총장, 국가 승가위원회 총재 등 을 역임했으며 조실 도성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스님으로서 2003년 '삼분다 사사나 조띠까' 라는 칭호를 스리랑카 국립 승가위원회로부터 받은 바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자비 실천 방생으로 평화 기원

쌍계총림 쌍계사 자비방생 대법회 봉행


쌍계사와 본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자비방생 대법회가 섬진강변에서 열렸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성조)와 본말사암연합회(회장 해문)가 세계평화 · 남북통일 · 민족화합 기원이라는 주제로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8월 12일 하동 섬진강변 야영장에서 봉행된 이번 대법회에서는 쌍계사 합창단 공연 등 식전 행사 이후 내빈들의 헌화와 축사가 이어졌다.

본말사암주지연합회 회장 해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불교의 자비는 모든 생명을 귀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상이며 방생은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방생의 의의를 밝혔다.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은 이어진 특별법회에서 "섬진강 상에 뜬 한 그루의 나무가 두 언덕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유히 행한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곧 흘러가서 갓 없는 대해(大海) 깊고 깊은 곳에 이르도다"며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당부했다.

법요식 이후에는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섬진강변에서 잉어 치어 1만 마리를 방생하며 남북민족 화합 기원과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용연사 문화관 '유정당' 건립한다

8월 10일 기공식 사부대중 300여 명 동참


대구 옥포 용연사 문화관 유정당 기공식 장면

대구 옥포 용연사(주지 활중)가 8월 10일 문화관 유정당 기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기관장, 단체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용연사 회주 성문 스님은 "비슬산 자락에 위치한 신라천년고찰 용연사는 대구지역에 유일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있는 도량이다. 사명유정, 인각대사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고승대덕이 주석했다. 사부대중과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포교와 전법을 위한 수행공간을 위해 문화관 건립불사를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용연사 문화관 유정당은 1층은 최신 시설을 갖춘 공양실과 2층은 참선수행과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대규모 집회공간 등으로 사용되며 2015년 6월 준공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8월 13일~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제9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8월13~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다.

제9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8월 13일~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초등부 16개팀과 중등부 7개팀 등 총 23개 팀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구 황금사자(A)팀이 우승컵을 거머쥐었으며 중등부 우승은 포항 슈퍼사이언스에게 돌아갔다.

황금사자(A)팀은 8월 14일 위덕대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부산 FC를 2대 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중등부 경기에서는 총 7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포항 슈퍼사이언스가 대전 금강FC를 5대 2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이번 대회 페어플레이상은 전라사천왕팀, 단합상은 경주 천마팀, 응원상은 금강FC팀, 봉사상은 포항 슈퍼사이언스팀, 예절상은 안강FC팀, 질서상은 경산FC팀이 각각 차지했다.

폐막식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세상이나 다 있다. 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이겼다고 해서 우쭐댈 일도 아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자성동이 풋살대회에 참여한 김영진 학생은 "힘들었지만 팀원들이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박순교 학생은 "평소에 연습한 실력으로 경기에 뛸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내년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의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능인中 급식시설 현대화

8월 14일 증축 준공식

조계종 종립 능인중학교가 학생식당을 증축하고 시설을 현대화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은 8월 14일 능인중학교 학생식당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자현 스님과 전 이사장 향적 스님, 능인중학교 교장 아용 스님,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능인중학교는 올해 1월부터 1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30제곱미터 규모의 낡은 단층 학생식당을 지상 2층, 연면적 630여 제곱미터로 증축하고, 조리실 등 급식시설도 현대화했다.

이 공사로 그동안 교실에서 급식을 하던 능인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오는 2학기부터는 현대화된 식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수진 스님, 동명대에 장학금 전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동명대에 3천 6백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발전기금 3천 6백만원을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쾌척했다.

수진 스님은 8월 7일 동명대학교 대학본부 경영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설동근 동명대 총장, 장재진 불교문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향후 인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동명대학교는 수진 스님이 기부한 보시금으로 장학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진력 할 계획이다.

한편 수진 스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동명대학교에 천만원 기부를, 2013년에는 2억을 전달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 사하구청에 쌀 108포를 전달하는 등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관음사, 전통 다비의식 백중 회향

우란분절 특별법회 및 연화대 다비식 봉행

부산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가 우란분절을 맞이하여 특별법회 및 연화대 다비식을 8월 10일에 봉행했다. 관음사는 지난해부터 조상 영가 천도를 위한 7재 회향을 전통 다비식 형태로 진행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음사는 "스님들의 전통 다비식을 일반 불자들의 조상 영가 천도에도 응용함에 따라 더욱더 여법하고 정성스럽게 조상님 천도를 하고자 한다"며 연화대 다비식의 의미를 밝혔다. 주지 지현 스님은 연화대 다비식에 앞서 신도들에게 "오늘은 우리를 있게 해 준 조상님과의 인연을 사랑과 감사로 회향하는 날"이라며 백중 회향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날 7재 회향식에 참석한 700여 신도들은 위패 다비식을 통해 조상의 왕생극락과 평안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옛 명성 되찾은 천년고찰… 속세 시름 저만치

암자를 찾아서- ⑥ 고창 참당암


선운사 산내 암자인 참당암은 신라고찰로 지금은 사격(寺格)이 위축되었으나 본래는 대찰이었다.


참당암 지장전. 예전에는 약사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선운사 지장신앙의 핵심전각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장전 안 석조지장보살좌상, 광배를 제외하고 온전히 남아있는 불상으로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운사를 거쳐 참당암 가는 길은 계절마다 슬며시 옷을 갈아입는다. 봄이면 녹차 밭 연초록색으로 갈아입고 초여름이면 옅은 노란 상사화 빛으로, 가을에는 붉은 꽃무릇 색인가하면 어느새 중후한 중년 여인의 옷자락과 닮아 있다.

삼복 중에 찾아가는 참당암길은 차 한대가 지나갈 만한 넓직한 길은 초록의 터널길을 지나야 한다. 잠시 더위를 식히려 도솔천 물이라도 한줌 쥘라치면 금방이라도 쪽빛으로 물들 것만 같다.

선운사의 산내암자인 참당암은 애초 선운사의 본찰이었다. 지금은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선운사보다 먼저 창건되었다. 1천년의 세월이 흘러 선운사의 산내암자로 규모가 작아져 지금은 전문적인 수행도량으로 선객들의 왕래만 있고 일반인들의 발길은 뜸한 편이다. 가끔 우편배달부의 오토바이 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뿐이다. 갑자기 밀려드는 정적을 즐기며 느리게 경사진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참당암이다. 작은 개울을 건너 참당암 마당에 들어서면 한창 꽃 망울을 터트린 붉은 백일홍이 객을 맞아 준다.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곳

참당암의 절 이름은 참 독특하다.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에 검단선사가 처음 창건했다. 절을 처음 만들 당시 선운산 지역은 도적들이 들끓었는데 검단선사가 이들에게 소금 굽는 법과 숯 굽는 법을 가르쳐 불교도로 교화시키고 생계도 꾸리게끔 했다고 전한다. 또 연못에 살던 이무기를 내쫓고 연못을 메워 절을 세웠다는 선운사의 창건 설화도 바로 참당암에서 시작됐다.

참당암은 산내 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 참당사(懺堂寺) 또는 대참사(大懺寺)로 불렸던 지장참회도량의 거찰로 도솔암의 천장지장보살과 선운사의 금동지장보살 모두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선운사와 도솔암의 명성에 밀려 사람들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웅전, 약사전과 명부전 같은 특이한 기법의 건물이 남아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고즈넉함으로 따지면 선운사의 명성을 능가하는 도량이다.

1794년에 임우상(林雨相)이 기술한 〈대참사고사(大懺寺故事)〉와 〈참당사법당기(懺堂寺法堂記)〉에 따르면 참당암은 신라시대 의운화상이 개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 고려시대 몽고와 거란의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 정유 양란을 통해 전각은 파괴되었는데 선운사와 참당암 역시 그 아픈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대참사사적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창건으로부터 8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웅보전이 세 번이나 넝쿨 속에 들었는데도 약사존상이 훼손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전란을 겪었는데도 이제까지 보인(寶印)과 화엄(華嚴), 아주(牙籌), 생회대중(姓會大衆)과 유나(維那), 찰중(察衆)의 금석문이 완전히 유통되었다' 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참당암은 큰 부흥을 맞게 된다. 임우상의 〈대참사법당기〉에는 1329년(충숙왕 6)에 대웅전을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 흔적남은 독특한 구조

참당암의 전각들은 모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물 803호 대웅전은 1753년에 다시 지어졌는데, 건물의 뒷면의 구조는 고려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배흘림 기둥, 주두 밑에 깔린 굽받침, 곡선으로 다듬어진 포작의 재료들에서 고려시대의 기법들이 느껴진다. 초석도 옛 건물의 그대로 사용해서 18세기에 지어진 법당의 기둥배열과 다르다. 법당의 앞모습은 조선시대 양식을 보이면서 뒷모습은 고려시대의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삼국시대 검단선사가 창건

고려, 조선 전쟁 거치며 전각 파괴

고려후기 대웅전 중수 등 부흥기

명부전과 응진전 한지붕 두가족 '눈길'

참당암 중수기에는 '장인을 불러 재목을 헤아리게 하여 한 자 한 치의 썩은 부재도 버리지 않았고, 옛터에 옛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한 눈금 한 냥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고 기록되어 있어 옛 선조들의 중건(重建)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를 입은 뒤 그 위에 덧대어 지어 끊임없이 새로 지어지면서도 옛 흔적을 살려낸 체 옛날의 질서를 고스란히 지키면서 중창되었다.

대웅전 바로 옆의 명부전도 특이한 형태의 전각이다. 가로로 긴 형태의 명부전은 지붕은 낮고 기둥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되지만 명부전과 응진전의 한지붕 두가족임을 알게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총 6칸의 건물이지만 각 3칸씩 응진전과 명부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좌측 3칸 응진전은 기둥 간격이 우측 3칸 명부전 보다 기둥 간격이 좁다. 법당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재목 하나라도 아끼려는 고인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둥병 낫게 해준다는 영험담 전해져

명부전 뒷편의 지장전은 한때 약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석조 지장보살이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나 약사보살로 불린 듯 하다. 하지만 지금은 선운사 삼장지장신앙의 인장 지장보살로 지장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건물이다. 예전에 비해 건물은 축소되었지만 이전 건물에 있던 기둥을 그대로 사용하고 칸 수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참당암의 건축적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웅전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부재라도 버리지 않으려는 검약 정신의 결과로 오히려 시간을 축적하고 역사를 담는 고차원적인 건물이 되었다.

명부전과 응진전 역시 재정적 결핍이라는 장애요인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연립 불전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쾌하고 극복하고 있다.

부족한 자재를 서로 잇대어 건축한 선운사의 만세루와 함께 참당암의 거칠지만 자유로운 건축들은 물질 만능시대에 물들어 사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고창 참당암=조동제 전북지사장

주변 둘러볼만한 곳


선운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한 고창 선운사

▲선운사

선운산도립공원 내. 백제 위덕왕이 창건한 선운사는 보물 290호인 대웅전과 보물 279호인 금동보살좌상 등 1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미당문학관

미당 시 문학관은 2001년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 시인의 고향이자 영면지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읍 선운리 마을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미당의 생가(生家)와 묘역이 부근에 있다.

파이프와 지팡이, 편지, 자필 시 등 미당의 유품 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2개 전시동, 서재 재현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읍성

고창읍에는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축성된 고창읍성이 있다. 일명 모양성으로 불리는 이 성은 나주 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하여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진 읍성이고 그 안에는 동헌, 객사 등 14동의 관아건물이 재현되어 당시 행정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문수사

백제 의자왕 3년(643)에 신라의 자장율사가 지은 사찰. 청량산 중턱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숲으로 가을에 더욱 아름답다.

▲고인돌 유적지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학계에 보고된 한반도 고인돌 3만6000기 중 2000여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 447기를 자연 상태 그대로 감상할 수 있어 세계 제1의 고인돌 명소로 유명하다.

〈숙박〉

선운사 앞에 민박과 펜션이 많이 있다. 단체 여행이라면 선운산유스호스텔(063)561-3333, 선운산관광호텔(063)561-3377을 이용해도 좋다.

〈맛집〉

선운사가 있는 고창은 풍천장어와 복분자가 유명하다. 그래서 입구에는 장어식당이 많다. 식당마다 원조 간판을 달고 있어 헛갈리지만 삼거리의 풍천만가(063)563-3420와 신덕식당(063)561-1533의 맛이 뛰어나 찾는 이들이 많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탑의 진화

⑰ 중국의 불탑(4) – 누각식 석탑

中 누각건축과 인도불탑의 결합

지난 호에는 중국에서 벽돌을 주재료로 조성한 누각식 전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돌을 주재료로 한 누각식 석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인 산서성 숭복사 경내에 있는 숭복사 석탑(467년)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바 있다.(본 연재 제14회 참조) 그러나 중국에서 누각식 석탑은 남송시대에 가장 많이 조성되었으며, 지리적으로는 화강암(花崗巖)의 생산지로 유명한 중국 남부의 복건성(福建省)에 집중되어 있다.

화강암의 어원이 바로 이 지역의 화강(花崗)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양질의 화강암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이기에 석재를 이용한 불탑조성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불탑으로는 서운사(瑞雲寺)의 서운탑**〈사진1〉**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 불탑은 명(明)나라 시기인 1606년에 조성이 시작되어 10년 만에 완성되었다. '강남 제일의 불탑' 이라고 부르는 서운탑은 높이가 34.6m에 이르는 8각 7층탑으로 목탑을 연상하는 구조와 정교한 조각은 참배객들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참배객들은 계단을 이용하여 1층 탑신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입구 양 쪽에는 금강역사**〈사진2〉**가 입구를 호위하고 있다. 기단부에는 용, 사자, 사슴, 말, 토끼, 원숭이 등 동물과 연꽃 등 다양한 식물 문양뿐만 아리라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까지도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복건성 천주시(泉州市)의 개원사(開元寺)에는 누각식쌍석탑**〈사진3〉**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은사지 쌍탑, 실상사 쌍탑, 등을 위시하여 불국사 쌍탑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도 나라지역에만 약사사(藥師寺), 당마사(當麻寺) 등 유명한 쌍탑이 있다. 이러한 쌍탑 조성의 이론적 해석에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우리나라 불탑의 변모를 알아볼 때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다만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주존불을 모신 법당을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동탑, 서탑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하여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고유탑명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원사쌍탑의 경우 중심법당을 자운대전(紫云大殿)이라 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것이 진국탑(鎭國塔)이고, 서쪽에 있는 것이 인수탑(仁壽塔)이다. 원래 개원사는 당(唐) 중종 때인 686년에 황수공(黃守恭)이 창건하여 연화사(蓮花寺)라 하였으나, 후에 흥교사(興敎寺)와 용흥사(龍興寺)라 고쳤다가 개원(開元)26년인 738년에 개원사로 고쳤다. 그 이유는 당 현종이 전국의 제후들에게 칙령으로 사찰을 하나씩 조성하도록 명령하였는데, 그 지역의 제후는 새로 절을 조성하지 않고 용흥사를 현종의 연호인 개원을 응용하여 개원사로 칭하고 마치 새로 절을 조성한 것처럼 하여 수고를 덜게 되었다.

동탑인 진국탑(鎭國塔)은 처음에는 9층으로 당 함통(咸通) 6년(865)에 목탑으로 조성되었으나, 수차례 훼손과 복원을 거듭한 끝에 1250년에 목탑을 모방하여 화강석으로 재건한 것이다. 이 불탑은 8각형의 5층이며, 높이는 48.2m로 현존 석탑으로는 가장 높으며, 각 층마다 4개의 출입문이 있다. 탑신 아래에는 낮은 수미좌(須彌座) 형태의 기단(基壇)이 있고,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과정이 39편의 그림으로 섬세하게 조각 되어 있어 마치 인도의 산치탑이나 동남아시아의 불탑의 특성을 반영한듯하다. 또한 8개의 전각부(轉角部)에는 큰 기단부를 떠받치고 있는 역사상(力士像)이 각각 1개씩 조각되어 있다.**〈사진4〉**

탑찰부는 금속을 이용하였으며, 맨 아래에는 복발(覆鉢)이라는 반구형 모양이 있다. 이것은 이미 인도 산치탑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반구형 돔인 안다(anda)를 재현한 것이다.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상징의 표상물인 '안다' 가 중국에서는 외형적인 모습이 마치 발우를 엎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복발(覆鉢)이라고 칭하고 있다.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출가수행자는 옷 3벌과 발우 1개만을 소유한다는 용어로 극단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는 두타행을 강조하는 불교수행의 자세를 압축하여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발우란 불교수행의 상징적인 법구(法具)의 하나이다.

이런 법구인 발우를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심지어 '복발' 이란 용어는 남방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 더 이상 공경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출가 수행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불탑구조의 용어로 복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다.

더구나 인도의 탑에서 설명하였듯이 강한 햇빛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傘)인 챠트라는 공경과 권위의 상징으로 탑의 최고 상부(上部)에 올려져있다. 즉 챠트라는 우산과 양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부처님의 사리봉안을 공경하며, 불탑의 주인공이신 부처님이 전륜성왕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둥근 원형모습의 챠트라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수레바퀴로 인식하여 륜(輪)이라고 부르고 있다. 파라솔이 바퀴가 된 것이다. 한술 더 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탑의 윗부분을 상륜부(相輪部)라고까지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탑상부(塔上部)라는 명칭이 일반화 되어야 되겠다. 진국탑은 이러한 상륜(相輪)이 7개가 있다.

인수탑은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하나인 민( )나라의 초대 국왕 왕심지(王審知)에 의해 916년에 조성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왕심지가 본인의 고향인 광주(光州)에 불탑을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나 광주에 탑을 조성하지 말고 천주(泉州)에 탑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왕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탑을 세우라는 말에 몹시 화가 난 왕심지는 부하들에게 그 스님을 참수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 스님의 몸이 거대하게 두배, 세배 커져버리고 왕은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천주에다 탑을 조성하니 그것이 바로 인수탑이다. 원래는 목탑으로 무량수탑이라 불렀으나, 송(宋)나라 때 인수탑으로 개칭되었고, 뒤에 석탑으로 개조하였다.

이러한 누각식 석탑은 중국 전역에 수백기가 있지만, 그 중에 선유의 용화사쌍석탑**〈사진5〉**, 남경의 서하사 사리탑**〈사진6〉**, 항주의 영은사석탑, 장악의 삼봉사석탑, 등이 각기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외형적 구조는 누각식이지만, 재료는 나무, 벽돌, 석재가 아닌 유리로 조성한 누각식유리탑이 있다. 높이가 20m나 되어 중국에서는 유리탑으로는 가장 높은 양성((陽城) 해회사유리쌍탑(海ø 寺琉璃双塔)**〈사진7〉**을 위시하여, 남경의 대보은사(大報恩寺) 유리탑 등이 유명하다. 특히 대보은사는 2008년 7월 유적발굴 과정에서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간사를 중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 · 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님의 두정골 사리와 감응 사리, 제성 사리 등을 모셨다' 는 글이 새겨진 비각의 발견과 함께 칠보(七寶)로 제작된 아소카왕탑을 찾아냈다. 이 탑 안에서는 금관과 은궤에 담겨 있던 부처님의 두정골 사리와 안치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석도 출토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이러한 유리탑의 주 재료는 유리이다. 유리는 표면에 빛을 발하는 에나멜을 칠해 구워내어 풍화나 부식을 방지하는 고급 건축재료이다. 그 어느 재료보다도 많은 공정이 가는 유리로 불탑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표현하여 영원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겠다는 신앙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의 남북조시대에는 금속으로도 불탑을 장엄하기 시작하였다. 탑의 상부인 탑찰 부분을 모두 금으로 장식하다가 수나라, 당나라 이후에는 탑 전체를 동이나 철로 조성하는 탑이 출현하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금속탑은 광주 광효사의 쌍탑과 하남성 개봉의 우국사철탑**〈사진8〉**, 산서성의 현통사 동탑, 함양의 천불철탑 등이 유명하다.

지금 까지는 중국의 누각식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누각식은 중국에서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에 성행했던 고층누각의 건축양식에 인도의 불탑양식을 조화롭게 표현한 것으로 압축하여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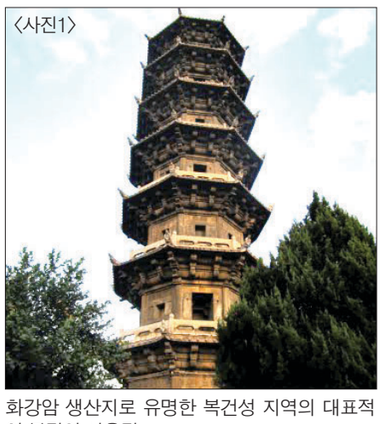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중국의 밀첨식(密 式)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자. 밀첨식이란 말 그대로 건물의 처마가 밀집되어 있는 양식을 말한다. 즉 탑의 지붕이 누각식에 비하여 확연하게 조밀한 탑을 말한다. 주재료는 벽돌과 석재이며, 1층은 높고 출입문이 조성되고 다양한 조각이 많이 새겨져 있으며, 2층부터는 낮은 것이 특징이다.

누각식과는 달리 내부가 채워져 공간이 없거나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는 통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밀첨식탑 조성의 역사는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남북조시대에 유행하게 된다. 수당시기에는 사각형의 평면구조였으나, 요금시대에는 8각형이 등장하며, 명 · 청 시기에는 점차 유행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동북삼성이라고 칭하는 요녕, 길림, 흑룡강 성에 밀첨식탑이 집중된 것은 요와 금의 신앙적 특색과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다음 호에는 밀첨식 탑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는 쉽게 그 양식을 찾을 수 없는 정각식과 화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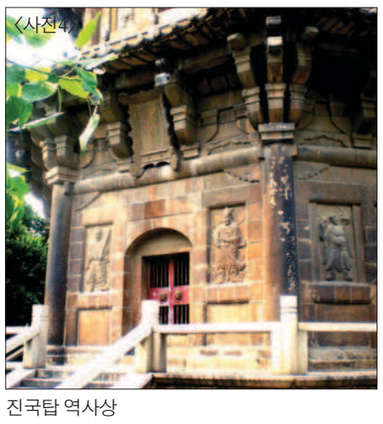
〈사진1〉

화강암 생산지로 유명한 복건성 지역의 대표적인 불탑인 서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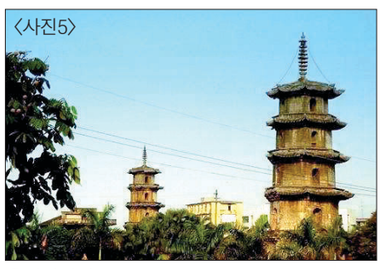
〈사진2〉

서운탑 양쪽 입구의 금강역사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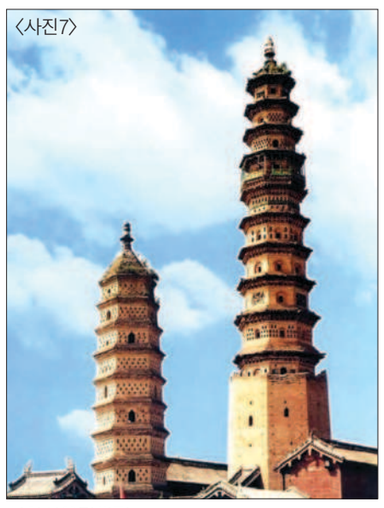
누각식쌍석탑인 개원사쌍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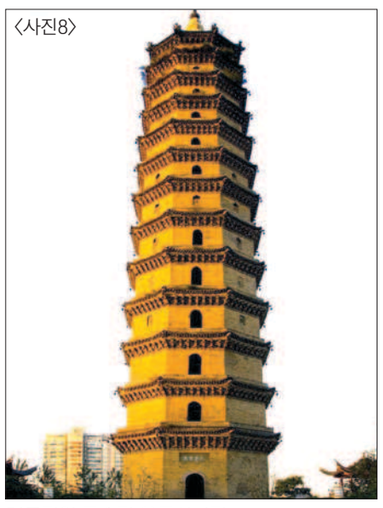
〈사진4〉

진국탑 역사상

〈사진5〉

용화사쌍탑

〈사진6〉

서하사 사리탑

〈사진7〉

해회사유리쌍탑

〈사진8〉

대표적인 금속탑 우국사철탑

누각식석탑, 남송시대 가장 많아
화강암 생산지 복건성에 집중
강남 제일의 불탑 서운사탑
용어, '상륜부' 아닌 '탑상부' 로

유리탑, 풍화 부식 방지 효과
대보은사탑서 두정골사리 출토
남북조시대엔 금속으로도 장엄
당 이후 탑 전체 동이나 철로도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혜륜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지혜법사

부산 제 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 2 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 육 원 051)893-3346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엄의 꽃 절집 천정

〈5〉 금정산 범어사 대웅전

범어가 유영하는 생명의 우물

梵魚

범어사 대웅전 우물천정 전형

부산의 진산은 금정산(金井山-801m)이다. 산마루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금빛 물이 가득차 있는 금샘이 있다. 금샘은 '금빛 우물' 이다. 그 샘에 범천에서 내려온 금빛의 하늘 물고기가 산다. 범천에서 내려온 물고기니 '범어(梵魚)' 다. 금정산 범어사는 '금샘을 유영하는 범어의 집' 이다.

범어사 대웅전 천정엔 하늘의 우물, 금정(金井)이 사방연속으로 경영되어 있다. 금정산 범어사에 깃든 설화를 자내증으로 내보이듯 전형화된 우물천정의 규범을 보여준다. 범어사 천정은 한국의 사찰천정이 갖는 독특한 짜임과 구조, 경영방식 등에서 전형적인 아름다움, 또는 완결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한국의 석탑양식이 불국사 삼층석탑 석가탑으로 귀납된 것과 같은 이치다. 우물천정의 조영에서 구조적으로, 의장적으로 최적화되어 거의 완결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웅전 내부로 들어서면 고전의 규범이 지니는 두터운 신뢰감과 거룩함이 충만하고, 고요의 무게가 묵직하다. 천정은 궁륭의 형태로 깊고 나선형의 은하처럼 빛난다.

범어사 대웅전은 조선 숙종 39년(1713년)에 중건된 조선중기 건축이다. 홍보스님이 주관하고, 도편수와 화원 모두 전적으로 승인공장(僧人工匠)에 의한, 스님들의 손으로 조영된 건물이다. 목조건축의 바탕이 되는 초석과 석축들은 광해군 6년 (1614년) 건립 당시의 것으로 알려진다. 1900년대 초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고적도보〉 제 13권에 실린 범어사 대웅전 내부단청을 보면 지금의 내부단청을 보듯 고색창연하다. 그 점을 미뤄볼 때 대웅전 내부장엄의 빛은 300년에 이르는 고전의 빛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구조미와 의장미 두루 갖춰

범어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건물이다. 서까래를 받치는 공포구조는 다포계양식인데, 지붕은 맞배지붕이라 특이하다. 내부천정은 빗반자와 우물천정을 결합한 양식이다. 그런데 빗반자도 널판으로 짜맞춘 것이 아니라, 격자칸으로 짜맞춘 우물천정이라 주목된다. 마치 범어가 유영하는 금샘의 금정(金井)세계를 의도라도 한듯 천정전체가 온통 우물칸이다. 절집의 천정 중에서 우물칸이 가장 조밀한 밀도로 경영된 셈이고, 구조적으로도 벽돌을 쌓아나가듯 흐트러짐 없이 치밀하게 결구한 까닭에 조영의 구조미와 의장미가 돋보인다.

사찰불전의 3×3칸의 전형적인 공간에 작정하고 의도한 듯한 대범함과 섬세함이 두드러진다. 중세적 신성공간의 거룩함을 장엄하기 위해 다양한 의장장치들을 대범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불단, 닫집, 천정장엄에서 기념비적 굵직굵직한 양감과 섬세한 조형이 돋보인다. 그것은 같은 시기 중세서양의 바로크 양식과 일정한 궤를 같이한다. 범어사 대웅전은 17, 18세기 한국사찰건축의 내부장엄에서 웅장함과 섬세함을 갖춘 바로크적인 요소를 가장 극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숭유억불의 정치이념체제에서 불교내부의 힘, 즉 승인공장(僧人工匠) 스님들의 힘으로 일군 거룩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대웅전 내부공간을 조영해나간 큰 틀은 높이를 추구하면서 공간을 중앙집중적으로 좁혀나가는 방식이다. 공간을 중앙으로 결집시키는 방도로는 두 가지 건축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는 4단의 내출목을 이용해서 고구려 벽화고분의 천정구조처럼 안으로 평행들여쌓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빗반자를 이용해서 중앙으로 공간을 집결시키는 방식이다. 빗반자로 사방에서 결집시킨 공간은 가로로 긴 장방형을 이루는데, 그 공간을 다시 30cm정도로 위로 밀어올려 바닥과 평행한 감실을 마련했다. 마루바닥에서 보면 건축의 공간위상은 수직(기둥높이)→평행들여쌓기(내4출목)→수직(약 60cm)→평행천정(우물칸 2칸폭)→빗반자→수직(약 30cm)→평행감실 순으로 마감되고 있다. 공간운용에서 다채로운 변화와 역동성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4컷은 범어사 대웅전 천정에 베푼 대표적인 문양이다. 아래는 중앙과 빗반자에 장엄된 우물천정이다.



장대한 닫집과 우물천정

총 우물칸 수는 정사각형 214칸

웅장함과 섬세함 갖춘 바로크 요소

장대한 힘과 숭고한 아름다움 돋보여

그렇게 역동적인 힘의 방향으로 결구된 구조체들은 빛을 거르는 체로 작용해서 대웅전 내부는 어둠과 밝음이 먹의 농담처럼 미묘하게 어우러지고 풀어진다. 빛의 차별적 농담은 두터운 깊이로 적막과 고요를 불러내서 인간의 내면을 침잠케 한다. 결국 공간의 깊이는 종교적 거룩함의 깊이에 다름아니다. 공간의 깊이와 높이는 종교건축 장엄이 지향하는 비가역적인 숙명적 전개다. 깊이와 높이는 조형미술을 통한 서사와 색채의 옷을 입고서 마침내 거룩한 생명력의 힘을 갖춘다. 수직의 벽면에는 약사삼존불과 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해서 시방삼세에 나투시는 여래를 빠짐없이 표현하였고, 모든 수평면의 천정에는 칸칸이 우물천정을 경영하였다. 그 장엄들은 빛과 어둠에 미묘하게 풀어져서 때론 드러나고, 때론 잠기면서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범어사 대웅전은 장대한 힘과 숭고한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국보급 화엄의 건축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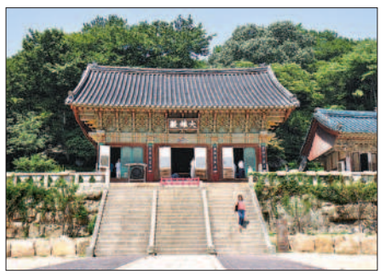


범어사 대웅전 천정장엄. 천정장엄 결구방식을 두루 살필 수 있다.

후불벽 뒤 천정에는 구름과 별자리

천정에 경영된 총 우물칸 수는 정사각형 우물칸이 214칸이고, 빗반자 평면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자투리 영역을 채운 삼각형 반자가 16개다. 우물반자가 사용된 곳은 세 층위다. 4출목 위 앞뒤 벽면에 경영한 평행반자는 앞 뒤 각각 48칸의 우물칸을 가설했다. 후불벽 뒷면 우물천정에는 해남 대흥사 응진전의 천정벽화처럼 구름 사이에 별자리를 그려 넣어 천정장엄의 세계가 우주적 생명력의 세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 층위에 베푼 대표적인 문양은 단청용어로 소위 '고리줏대솟을금문' 이라 부르는 육각형 사방연속문양이다. 우물칸 테두리 조형에서 붉은 생명의 새싹이 뻗치는 가운데 육각형의 빛줄기가 퍼져나간다. 육각형의 한가운데는 둥근 붉은 빛이 있고, 흰 글씨로 범자 卍자와 '옴', '훔' 등을 새겼다. 만유의 진리법은 연기법이다. 진리법의 처음과 끝이 만유에 두루 미치는 빛임을 조형언어로 드러내고 있는데, 관념은 깊어질대로 깊어져 기하적 추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단청에서는 저토록 핵심적인 가운데 범자를 생략해버리고 기하적 문양만 단청한다. 본질을 버리고 현상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달은 취하지 않고 손가락만 그리고 있는 것과 같다. 300년 동안 간직해온 고전의 빛 속에는 문양의 본질을 여전히 직지하고 있다. 그 문양의 직지들은 불립문자로 전하는 진법묘유의 다라니이다. 게송의 환희심으로 가득한, 궁구한 진리들의 무진장이다.



범어사 대웅전 전경

문양은 궁구한 무진장 진리 상징

나선형 표현 변환에너지 그 자체

빗반자 베푼 문양은 여섯잎 연꽃

두 칸 폭의 평행반자 위에는 빗반자를 가설했다. 보통 빗반자는 널판자로 짜맞추고, 조성된 넓은 빗반자의 판벽 위에는 공양비천 또는 주악비천 벽화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륙사 대웅전이라든지, 김룡사 대웅전, 범어사 팔상전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범어사 대웅전의 빗반자는 드물게도 우물천정이다. 전후좌우에 조성된 빗반자의 우물칸 수는 정사각형 우물칸이 66칸이고, 자투리를 채운 삼각형 반자가 16개다.

빗반자에 베푼 문양은 여섯잎 연꽃문양이다. 여섯 꽃잎에는 '옴마니반메훔' 의 육자진언을 새겨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감로수를 표징하고 있다. 꽃잎에 새긴 범어의 빛은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파장의 빛으로 퍼져나간다. 문양에 입힌 색채는 중후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검정과 녹청, 주사, 황토빛에 시간의 더께가 어우러진 고색창연한 아름다운 빛이다.

격자마다에는 활짝 핀 연꽃, 모란, 국화문양의 조형을 얹었다. 비단에 꽃을 얹는, 금상첨화의 형국이다. 특히 하얀 꽃은 화룡점정의 일순을 보는듯,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갖게한다. 무심하게 공간 한 편에 던져놓은 듯한 한 송이 하얀꽃은 음악의 스타카토 기법처럼 또렷하고도 선연하다.

상층 중앙의 우물칸 수는 52칸이다. 중앙칸의 문양은 나선형의 넝쿨문양이다. 나선형의 기하학은 제행무상의 동역학적 변화를 상징하며, 변환의 에너지 그 자체다. 각각의 순환문양은 완벽에 가까운 균형과 조화로움을 보인다. 채색원리는 붉은 주사로 바탕을 마감한 후, 나선형으로 돌돌 감아나가는 넝쿨에 청백색을 두텁게 입혔다. 넝쿨에 입힌 청백색 안료에서 금으로 바꾸려는 납의 연금술적 질감이 느껴진다. 지상에 떨어진 운석처럼 채색에서 신비감이 흐르고, 몇 몇 꽃잎에서 금니의 흔적이 역력하다. 금빛의 우물, 금정(金井)에 피어난 꽃이다. 꽃은 금샘에 유영하는 범어(梵魚)처럼 나선으로 순환한다. 고도로 관념화 되고 이상화 된 화엄의 꽃이다.

금은 변화의 엔트로피를 갖지않는 유일한 금속이다. 시간의 잠식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고유한 빛의 항구성을 지닌다. 무량수의 빛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도 결코 마르거나 다함이 없는 감로수이고 빛이다. 그 마르지 않는 감로수로 대웅전 천정은 생명력과 환희심으로 충만하다. 생명의 범어가 유영하던 금빛 샘물이 천정에 가득하다.

범어사 대웅전 불전을 조영한 스님들은 탁월한 기량으로 중생들에게 불국토의 아름다움을 여여히 보여주기로 작정했음이 분명하다. 케플러는 말했다. "자연은 가능한 한 최소의 재료만을 사용한다"고. 300년전 승인공장 스님들은 나무와 흙의 최소한의 질료들로 진공묘유의 연화장세계를 조영했다. 범어사 대웅전 천정(天井)에 금정(金井)이 있다. 금정은 대생명력의 '하늘우물' 일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월력으로 극락환생 발원. 잘못된 묫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재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 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정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국제선불교조계종 천운사 TEL.02)952-9918 / HP.010-3566-3019 분양문의 (주)천운효행 TEL. 02)935-0521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00-6(수락산)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상을 여위는 생각 자체가 '헛것'

중생불 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라 말이여. 어째 실감이 안 가겠느냐 말이여.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알아야 돼. 이거 적혈구가 모아진 거라 말이여. 일초 동안에 약 삼십만 마리가 죽어 나가고 일초 동안에 약 삼십만 마리가 살아 나온단 말이지. 이거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게 가죽주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여.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몽땅 갈 때는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다. 이래 생각하면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걸 끌고 다니는 놈이 절대성자리다 이건 상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곧 납득이 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여러분 절대로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틀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라고 해서 설법을 들어야 이것이 실감이 가지, 그만 육신으로서인 내다 가죽주머니로서인 내다 색신으로서인 내다 이런 생각하면 도저히 설법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시시로 변한다는 거 아는 거 아니라요? 변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늙어서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말이죠 그만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다 말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은 허공에 앉아 있어요. 사실로 과학적으로 말이지 허공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어디 있죠? 여러분의 몸뚱이에 앉아가 있는 줄 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뚱이에서 한 번 찾아내 봐요. 못 찾아요. 내가 말한 것도 틀리지. 허공에 앉아 있단 말도 안 맞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만 허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만 법신 허공신이에요. 듣고 하는 이놈을 우선 임시로 가죽주머니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재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재인식 떡 해 놓으면 죽는 곽 매일 짊어지고 다니더라도 까딱없어요. 나중에 이 몸도 버려 버려야 돼. 나중에 뭐할 거요? 젊은 너희는 버리지 마라. 좀 있다 버려라 늙은 우리 같은 건 버려야지 뭐 할 거예요. 힘도 없고 술도 한 잔 마음대로 못 먹고 술 한 두어 잔 먹으면 취해 버리고. 허허허. 싹싹 버리고 새 몸 받지. 그러나 허공으로서인 내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렇지 색신으로서인 내라 하면 말이지 아무리 늙어서 이러한 몸이라도 한시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 이거 참 죽는 법 잘 내놨어요. 그거 안 내놨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만날 이 꼬라지, 만약 이 꼬라지 가지고 억 년이나 허공같이 살면 뭐할 거여. 다리가 아파 찌떡찌떡 하고 학교도 한 번 못 가보고. 학교도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고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고 황군처럼 회사에도 한 번 다녀봐야 되고. 하하하. 그거 다 장난이거든. 이런 장난 안 하고 어쩔 거냐 말이여.

그러하니 좌우간 어떻든지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으로서 모든 설법을 들어야

> **죽고 생기고 하는 몸뚱이는**
> **단 일초를 가만히 있지 못한다**
>
> **사람들은 상 속에 들어앉아**
> **상을 여의고 있는 걸 모르고**
> **뒤바뀐 생각을 한다.**

됩니다. 설법만 들을 거 아니라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으로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귀한 딸이 있어도 허공으로서인 내 딸이라. 또 귀한 아들이 있다면 허공으로서인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거 변하는 거여. 내 딸도 변하는 거여. 자꾸 변해.

뼈도 신진대사가 돼서 변해. 몸뚱이도 신진대사가 돼서 변해. 아이들도 자꾸 변해. 이 귀여운 딸도 나중에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 불구덩이로 가면 한 줌 재로 나와. 흙구덩이 묻으면 한 삽의 흙으로 나와. 내 귀한 딸이 그리 돼. 내 귀한 아들이 그리 돼. 귀한 손자가 그리 돼. 이걸 모르고 말이지 아이고 하고 좋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좌우간 어떻든지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으로서 이 말 들으세요. 그리하면 이 쇠소의 소식을 알아. 머리 없는 쇠소의 혓바닥이 설법하는 줄을 알아. 아까 내가 말했죠? 내가 설법하지 않는다는 거. 설법하는 내 입을 빌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지만 이 설법을, 진짜 이 설법을, 이말 하겠다. 저 말 하겠다 하는 것은 무형무색인 허공, 꼭 허공과 같은 법신이 이걸 빌어서 나불나불나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죠. 꼭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해 놉시다. 머리없는 쇠소의 혓바닥이 설법을 한다 이건 답을 써 오세요. 간단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 답 남 보여 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아서 써 오세요. 이 답이 옳으면 옳다고 하겠고 그르면 그른 대로 사고방식을 고치면 되겠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공부가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건 그 말이고 우리가 상을 여의어야 해요. 우리가 상을 여의어야 한다지만 상을 여읜다는 것이 모순된 말이에요. 뒤바뀐 생각이 딱 붙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상을 여의어 있어. 왜 그러냐. 이거 헛거라 헛거라. 이거 완전하게 일초를 못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몸뚱이 단 일초를 가만히 못 있어. 한 쪽에서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이래. 이걸 알아버리면 상 속에 들어앉아서 상을 여의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서 이 변하는 걸 내 몸이다 이래서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상을 여읜다는 건 뭣이지? 제일 쉬운 거여. 아 이거 헛거로구나. 헛거란 것에 딱 실감이 가면 이 상을 덮어쓰라고 해도 거기에 안 머물러. 이렇게 상을 여의는 법이에요. 만약 나는 상을 여의어야 되겠다 하면 나는 여의어야 되겠다는 상을 하나 더 덮어쓰거든.

상을 여의는 법은 아, 이거 헛거로구나. 요거 내 법신이 이걸 임시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절로 여기에 머물지 않아. 이것이 상을 여의는 것이지 나는 상을 여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상을 여의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 더 짊어지거든. 그러면 사상에서 오상이 된단 말이야. 이걸 단단히 알아야 돼. 보살님들,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헛거로만 알면은 저절로 여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데 나는 이걸 여의어야 되겠다 하면 나는 이걸 여의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 더 붙지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에요. 보살님들 단단히 들으세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오늘 다 했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심 참회하면 올바른 믿음 생겨

⑩-5 보개회향

11. 보위사승부모급선지식법계중생단제삼장동득왕생아미타불국귀명참회
(普爲師僧父母及善知識法界中生斷除三障同得往生阿彌陀佛國歸命懺悔)

至心懺悔
南無懺悔十方佛 願滅一切諸罪根
今將久近所修善 廻作自他安樂因
恒願一切臨終時 勝綠勝境悉現前
願覩彌陀大悲主 觀音勢至十方尊
仰願神光蒙授手 乘佛本願生彼國
至心歸命阿彌陀佛 懺悔廻向發願已

이제까지는 보현십원(普賢十願)이었고 이것은 별원(別願)이다. 특별히 원을 세우고 참회한다는 뜻이다. 보현십원은 보통 일반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별원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 널리 스승님과 부모님과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일러주는 모든 선각자와 지도자들 즉 선지식(善知識)과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탐진치(貪瞋癡)의 삼장(三障)을 끊어야겠고 또 동시에 그분들에게도 그 삼장이 끊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같이 끊고 같이 저 아미타불(阿彌陀佛)이 계시는 나라로 가서 깨친 자의 생활을 함께 영위합시다 하는 것이다.

'널리 스승인 · 부모님 · 선지식 ·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삼장을 끊어지게 하시고 함께 아미타불의 나라로 가게 하소서. 목숨을 돌이켜 반성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대사회 의식을 깨닫고 그런 생활을 함께 영위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돌이켜 모든 지난 일을 참회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반성한다.

그런데 이 참회(懺悔) 두 자를 풀이한다면 참(懺)은 먼저 제 잘못을 드러내어, 나는 무엇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고친다는 것은 참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각별히 그리 안 하도록 수행을 닦아 나가자는 것이 회(悔)다. 범어(梵語)로는 참회를 참마(懺摩 Chamma)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회개한다, 과실을 뉘우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회향(廻向)과 신심(信心)을 얘기하며 참회를 들먹였지만 여기서도 다시 지심참회(至心懺悔)를 하여 근수이익(勤修利益)한다. 부지런히 닦아서 이익을 가져온다. 어떤 이익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래(如來)의 깊은 경계에 찾아들고자 한다면 먼저 그릇된 신앙(邪信)이 아닌 바른 믿음(正信)을 가져야 한다. 중생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법은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구해야 되고, 이를 구하는 데는 첫째 허약한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 글쎄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이 되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 지밋하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어 허둥지둥해져 버린다. 이래서 더욱 구애되는 것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조건에 얽매이게 된다. 인간고(人間苦)에 허덕이는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지만 과연 이런 지경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될 수

> **행동으로 과오 범할 때**
> **'차계'(遮戒)라고 하고**
> **마음으로 지은 죄를**
> **성계(性戒)라고 한다.**
>
> **십악업을 극복해 나가고**
> **참(慘)을 행해 바로 잡으면**
> **십선업이라고 한다.**

있을까? 무슨 복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지레 실망해 버리고 의욕을 포기하여 타락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과오를 범하였을 때 이를 차계(遮戒)라고 한다. 누구를 쳤다든지, 훔쳤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하여튼 뚜렷한 결과로 나타난 이 차계에 대해서는 각기 정해진 멸죄법에 따라 참회한다. 행동화되기 이전의 마음으로 어떤 모진 생각을 하였다든지, 누구에게 원한을 품었다든지 누구를 헤치려고 별렀다든지 하는 등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이를 성계(性戒)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자기의 천성(天性)에 심성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는 사참(事懺), 둘째는 이참(理懺)이라 하는 것이 있다.

사참은 방등불명경(方等佛名經)에 있는 말인데 일체의 만 가지 행동을 통해 다시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일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기 생각의 성징에 따라 연비를 한다든지, 팔을 뜬다든지, 보상하기 위해 벌을 받는다든지 하여 자제한다.

이참은 유마경(維摩經)에 있는 말로 제성(諸性)은 본래부터 안과 겉으로서, 그러니까 내용(內容)과 외형(外形)으로 그 자체(自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차계와 성계를 들었지만, 성계에는 술이 든다. 술을 마시면 정신을 흐리게 하여 심성을 어지러뜨린다. 심성이 어지러우면 일체 만 가지가 혼란되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고, 음란해 지고, 온갖 잡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오계(五戒) 가운데 술은 성계에 들고 살(殺) · 도(盜) · 음(淫) · 망(妄) 모두 차계(遮戒)에 들어간다. 죄(罪)의 성질은 계(戒)와 대비해보면 곧 알 수 있다.

업(業)의 성질을 잘 살펴 보건데 이것이 십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 방심(放心)하는데서 전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물고 거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착이나 체색(滯塞)이 없도록,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참이다. 그리고 사참은 사건 하나 하나에 즉응하여 그 업장을 제거하는 일. 이참은 뿌리째 뽑아 없애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참(懺)이 잘되도록 하는 일은 결국 열 가지 나쁜 생각, 십악업(十惡業)을 극복해 나가게 한다. 살생 · 도둑질 · 음탕한 짓 · 거짓부렁 · 술을 먹는 것 등 오계(五戒)인데 이를 부연하여 몸으로 하는 짓, 살 · 도 · 음 · 망(殺盜淫妄), 입으로 네 가지(綺語 · 兩舌 · 妄語 · 惡口), 뜻으로 탐 · 진 · 치 (貪瞋癡)등 모두 열 가지다. 이 열 가지 어긋나는 짓을 바로잡는 일을 십선업(十善業)이라고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집터와 주택풍수」 수강생 모집

가을학기 개강 ▶ 2014년 9월 4일(목) ~ 16주

○ 강의시간 : 목요일 18:00 ~ 20:00
○ 수 강 료 : 300,000원(1학기)
우리은행 1005-602-240360 (예금주 : 동방대학원대학교)
▣ 담당교수 : 이상무(풍수지리학 박사)
▣ 모집정원 : 선착순 20명
▣ 교육목표 : 삶의 본거지이자 생활공간인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다.
본 강의는 양택에서 필요로 하는 풍수의 기본이론을 포함하여 집터와 좌향, 지형지물, 건물의 형태 그리고 건물 내부의 배치 등이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길흉을 양택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지식과 안목을 길러 양택풍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용적인 풍수교육을 지향한다.
▣ 교 재 : 가택풍수학, 나경, 유인물, 甲午年 民曆 외
▣ 양택 2급 자격증 : 1년 수료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총장명의 자격증 수여

■ 연락처 : 02)3668-9890 담당교수 : 010-2247-9007
■ 오시는 길 : 4호선 한성대입구 6번출구 1111번, 2112번 동방대학원 하차

동방대학원대학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주내정법(사계단법) 강의"
(명리상담사가 꼭 갖추어야 할 비결)

일진만으로 내방자의 문점 목적과 생각을 쪽집게 같이 읽어내는 상담기술이다.
명리 상담사를 꿈꾸는 초보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며, 이론을 갖춘 실력자라도 사주내정법은 기본입니다. 예지수 선생께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핵심을 가르는 강의를 합니다.

○교육기간 : 1학기(16주) 2014년 9월 5일 공개강의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13:00 ~ 16:00(3시간)
(9월 5일 개강)
○담당교수 : 예지수(기문둔갑 / 실전명리 전문가 강사)
○강 의 료 : 30만원
○모집정원 : 20명
○교육목표 : 명리 상담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재 상황과 결과와 방법을 제시하는 사주내정법(사계단법)을 기초부터 실전 상담 활용까지 교육함 (명리 초보자도 쉽게 배워 상담할 수 있다)
○강의내용 : 자체교재

구 분	학습 및 실습내용	구 분	학습 및 실습내용
1주	사계단법 기초	11주~13주	인연법과 통변활용 ①②③
2주~3주	물상이론(1)(2)		
4주~5주	신살이론(1)(2)	14주	사계단법으로 보는 1년 신수
6주	애정운의 통변활용		
7주	직업운의 통변활용		
8주	시험운의 통변활용	15주~16주	사계단법을 활용한 명리비결 종합 풀이 ①②
9주	이사운의 통변활용		
10주	질병운의 통변활용		

동방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TEL : 02)3668-9890/010-5264-5532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20〉·끝

“이 소식을 아신다면 ‘적양화 적양화’ 올시다”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2통

〈1〉

삼가 편지를 받고서 요즈음 법체가 만안(萬安)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러러 위안이 되며 송축합니다. 나는 줄곧 칩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홍(道洪) 수좌는 지난 가을에 원주 소임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해설-다음은 경봉 스님의 법거량에 대한 답이다).

운수 납자는 무엇으로 양식을 하느냐구요?--막(莫)

무슨 말로써 제접을 하느냐구요?-- 막(莫).

아우(경봉)도 가서 있을 처소가 있느냐구요?-- 막(莫).

이 세 개의 ‘막(莫)’ 가운데 하나의 막(莫)은 하늘도 덮고 땅도 덮음이요(蓋天蓋地), 하나의 막(莫)은 밝은 달 맑은 바람(明月淸風)이며, 하나의 막(莫)은 산이 높고 물이 흐름(高山流水)이니, 이 소식을 아신다면 버들 꽃을 잡고 버들 꽃을 잡음(摘楊花 摘楊花)이 올시다. 이만 줄이고 답서의 예(禮)를 갖추지 않습니다.

을해(1935년) 4월 초5일

한암 배사(拜謝)

경봉 스님이 세 가지 법거량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모두 ‘막(莫)’ 자를 써서 답하고 있다. ‘막(莫)’은 금지사이다. 즉 쓸데없는 알음알이는 피우지 말라는 뜻이다.

쓸데없는 알음알이 피우지 말것
공안 ‘적양화…’ … 무애자재

그런데 ‘막(莫)’ 자를 써서 답하고는 다시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莫’ 가운데 一莫은 천지를 덮고(蓋天蓋地), 一莫은 밝은 달 맑은 바람(明月淸風)이며, 一莫은 산 높고 물 흐름(高山流水)이니, 만일 이 소식을 아신다면 ‘적양화 적영화(摘楊花 摘楊花)’, 버들 꽃을 잡고 버들 꽃을 잡다)”라고 말하고 있다.

적양화 적양화는 조주(趙州)선사의 공안이다. 어떤 납자가 조주선사에게 하직을 고하자 조주 스님이 “부처님 계신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빨리 지나가서 3천 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야기하지 말라.” 하였다. 그 납자가 “그러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조주선사가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라고 한 것이다. 버들 꽃(楊花)은 봄바람에 날아다니는 수양버들의 솜(柳絮)을 가리킨다. 옛날 중국에는 봄이 되면 어린 아이들이 봄바람에 날아다니는 버들 솜(柳絮)을 잡는 재미,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적양화란 자유자재함, 무심(無心)함, 무애자재(無碍自在)함, 무속박(無束縛)을 뜻한다고 보여 진다.

〈2〉

오래 그립던 차에 서찰을 보내주시니 어둠 속에서 밝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생략)

세 가지 법거량 대하여 답하겠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기상[衝天氣]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邪)와 정(正)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邪)인가?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으니, 불조(佛祖)가 간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正)인가?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으니, 불조(佛祖)가 간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묻기를, “그대가 오히려 사(邪)와 (正)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걸렸는가, 네가 걸렸는가.” 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물음은 첫 번째의 물음 중의 소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번거롭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사옵니다. 모쪼록 자세히 살피십시오. 답서(答書)의 예(禮)를 갖추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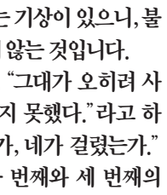
음 2월 25일 (1929년)

한암(漢岩)

‘사’와 ‘정’ 분별심 관문 제시
첫번째 답속에 둘째 셋째 답도

이 편지 역시 경봉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경봉스님의 법거량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하늘을 찌르는 기상[衝天氣]에는 사(邪)와 정(正) 두 가지가 있다고 구분해 놓고는, 답은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답을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사(邪)와 정(正)’이라고 하는 관문(關門), 즉 분별심의 관문을 제시하여 그 관문을 통과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의 관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답 속에 있다는 것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보시, 할수록 몸과 마음 채워져 남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돕는 것”

백진구 윤선주 부부

하루 수입의 반을 남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불자들에게 ‘보시’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실천의 문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동명한의원(경기 성남)의 백진구(52) 원장,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의 부인 윤선주(50) 씨는 하루 수입의 반을 많은 단체들의 후원금으로 보시하며,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쓰고 남은 것’ 말고 보시 먼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요.” 윤 씨는 작은 주머니 하나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보였다. 그 주머니에는 약 30 개 정도의 작은 메모지들이 들어있었다. 그 메모지에는 백 원장과 윤 씨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계좌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메모지에 적힌 단체들에게 일일이 폰뱅킹을 통해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낸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혀 있는 단체들에겐 현금이 아닌 쌀이나 다른 물품을 보낸다.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는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실천하기 힘들다고 봐요. 보시의 참 의미는 ‘나눔’이고 참 나눔이란 있고 없고를 떠나 보시의 마음을 먼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보익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 중생수기득이익(衆生受器得利益)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먹기 힘들어요.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나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라밀행인 것이죠. 부족하지만 서로 먹여주려하면 극락인 것이고, 서로 자기만 먹으려 하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선에서 보시부터 하죠.”

이렇게 백진구 윤선주 부부는 한의원 수입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보시하고 있다.

불교대학 다니면서 불교에 눈떠

“육바라밀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상호협조적인 보시행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로서는 가장 필요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1998년 어느 날 이웃의 권유로 불교대학에 다니게 된다. 윤 씨와 백 원장이 보시의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때부터다. 그때까지 윤 씨는 남편인 백 원장이 독실한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 씨의 남편 백 원장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불심을 보면서 자랐고, 대학교 시절에는 대학생불자연합회 활동을 하는 등 불심 깊은 불자였다. 하지만 백 원장은 자신의 종교를 부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종교를 지켜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윤 씨는 이웃에 사는 주부로부터 불교대학에 함께 다니자는 권유를 받게 된다. 허물없이 지내던 옆집 주부는 아예 윤 씨의 수강증까지 끊어왔다.

30여 단체에 매일 후원금 보내
현금 1천원~3천원, 쌀 보시도
수입의 반 후원금으로
불교대학 다니면서 ‘보시’ 하게 돼

‘보시공덕’ 인과는 ‘기복’과 달라
“내가 번 돈에는 많은 ‘인과’ 있어
모두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야”
자식도 모르게 ‘보시’ 실천

수강증까지 끊어온 터라 윤 씨는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왠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윤 씨는 옆집 주부와 함께 서울의 능인불교대학을 나가게 됐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남편으로 인해 늘 불교 언저리에서 살아왔던 윤 씨였다. 첫날 수업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은 윤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모두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첫 수업에서 구구절절 부처님이 가르침이 가슴에 다가왔다. 윤 씨는 이렇게 좋은 수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듣는 것은 아니다 싶어, 자신이 다시 수강증을 새로 끊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발심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옆집 도반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윤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교대학을 다녔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윤 씨는 누구보다 빠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경전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참선도 좋았고, 염불도 좋았죠. 왜 좀 더 일찍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럽기까지 했지요. 남편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지 알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윤 씨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육바라밀의 보시를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공부보다는 실천 중요성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막연하게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윤 씨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공부하고 육바밀을 공부하면서 ‘보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된다. 나누는 삶, 보시야말로 남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채우는 신행이면서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윤 씨는 불교를 공부하기 이전에 명상수행을 꾸준히 해왔는데, 명상을 하면서 남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부처님의 연기법을 통해 그 실천이 보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윤 씨는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보시 공덕으로 인한 인과는 단순한 ‘기복’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됐다.

“이것(보시)만 잘 실천하면서 살아도 부처님 공부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전을 읽고 아는 것만이 진정한 공부이고, 그것이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공부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밖에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만큼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천 중에 가장 보람 있고 나와 세상이 동시에 풍요로울 수 있는 일이 ‘보시’라고 생각했어요.”

윤 씨는 자광원을 비롯해 주위에 있는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삶에 모든 인과가

이렇게 윤 씨가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백진구 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부창부수(夫唱婦隨) 아니 부창부수(婦唱夫隨), 이심전심이



후원 단체들의 계좌 번호가 적힌 메모지들.



쌀 등 물품을 보내는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



후원 단체로부터 받은 감사패.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상호인쇄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이천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원
이천부 이상 @ 1100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9.5cm



백진구 씨와 부인 윤선주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동명한의원을 운영하며 수입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보시하고 있다. 십 수 년 동안 보시행을 해 왔지만 자식들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놀랐다고 한다. 백진구 원장과 윤선주 씨, 그리고 최근 부모님의 선행을 알게 된 장남 근혁 씨가 한 자리에 모였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만약 윤 씨의 남편 백 원장이 불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윤 씨에게 불교가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며, 윤 씨가 그런 원력을 세우고 실천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백 원장은 뒤늦게 부처님께 푹 빠진 아내 윤 씨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람' 같은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환희' 같은 것이었다. 오랜 공부 끝에 얻는 '수확' 같은 것이며, 불법의 위대함을 '확신' 하는 일이었다. 한 번도 자신의 종교를 아내 윤 씨에게 내세우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던 백 원장이었다. 왜 그라고 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없었을까. 묵묵히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진정한 포교와 전법을 한 것이다.

백 원장과 부인 윤 씨는 서로 어떠한 형식과 절차가 필요 없었다. '보시' 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부와 여부를 묻고 답할 것이 없었다. 아내가 하는 일이 백 원장의 생각이고, 백 원장의 생각이 윤 씨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부인 윤 씨가 부처님 말씀을 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발심원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근처에 있을 수 있었던 '남편' 이라는 인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수입의 반은 항상 보시금으로

백진구 윤선주 부부는 매일 참선과 108배, 사경, 독경 등의 수행과 절에서의 신행 활동을 함께 하며, 인과법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후원할 곳을 점차 늘려갔다. 일일이 전국의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의해 명단을 정리했다. 2009년부터는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에 매일 1천원부터 3천원, 많게는 1만원씩 기부하는 등 생명나눔실천본부, 군종특별교구, 불교신행연구원, 승가원,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하얀코끼리, 각종 복지관 등 이제는 수 십여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백 원장과 윤 씨 부부가 후원하는 곳은 어림잡아 30 여 곳이 넘었고, 그 금액은 하루 수입의 절반에 이른지 오래다.

"이번 생에 보시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린다면 다음 생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손자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기복을 바라는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복 그릇은 넓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아껴 쓰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누어야 할 몫이죠. 내가 그 만큼 벌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죠.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기까지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인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보시 가능

"저는 작년에 모 신문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터뷰할 때 그 때 처음 알았어요."

백 원장과 윤 씨 부부의 2남 중 첫 째 근혁(24) 씨의 말이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혁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오랜 동안 보시행을 해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윤 씨는 어머니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왔다. '보시' 역시 중요한 공덕임을 평소 가르쳐 왔지만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백 원장이나 윤 씨의 '보시' 가 단순한 기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자분과 인터뷰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부모님이 해 오신 일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을까. 신기하고 놀라웠죠. 저나 동생이 모르고 살아온 것도 그렇고, 말씀을 아끼신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 때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내 부모님이라서 오히려 얘기하기 쑥스럽지만 내 부모님이라서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다. 백 원장과 윤 씨는 제대로 된 바라밀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 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부와 후원을 한다. 보시를 하기는 쉬울 수 있다. 형편이 허락하고 조금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보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시를 공부의 실천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쉼 없이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식도 모르게 실천하는 공덕은 분명 쉽지 않은 공덕일 것이다.

불자로서의 올바른 회향이 삶의 목표

"불자라면 무엇이든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회향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시도 물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 전하고 가는 것이 불자로서의 회향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백 원장과 윤 씨는 함께 하루 1~2시간 참선은 일상이 된 오래다. 108배, 3000배, 독경, 사경, 염불 등 수행의 본분도 잃지 않고 불자로서 살고 있는 백 원장과 윤 씨는 불자로서 진정한 회향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회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자로 열심히 살고 있었다. 특히 윤 씨는 주위 사람들의 손을 끌고 불교대학에 가는 일에서부터,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취지와 후원의 이유를 알리는 일, 신도회 등에서 남들이 힘들어 하는 일을 마다않고 기꺼이 맡아 하는 일 등 윤 씨의 생활은 불자로서의 '회향' 이었다. 윤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시는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보다는 나를도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마디로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추억의 20대 행자 생활

1981년 2월 사미계를 받았다. 계를 받기 전 법주사에서 행자생활을 했지만 동국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서 법주사를 나왔다. 수능시험을 본 뒤 법주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를 받아 줄 스승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지금의 모악산 금산사에서 나를 받아 주었다. 남은 행자 생활을 마친 뒤 큰스님께 법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처음부터 금산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 한 것이 아닌데다 금산사에 얼마 지내지 않고 바로 동국대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학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거다. 1년 이상 큰 절에서 생활을 하다 대학에 가면 사찰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동국대를 선택했다. 그곳에 가니 같은 기수 입학생 스님은 나를 포함 24명이었다. 그런데 반은 40대 이상, 반은 30대이고 나와 같은 19살은 세 명이 전부였다. 기숙사 생활도 절에서의 행자 시절만큼이나 엄격했다.



그림 · 박구원

"거기 1학년, 행동이 왜 이렇게 굼떠!"

선배의 불호령에 겁을 집어먹은 1학년들은 일사천리로 아침 공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발우 공양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릇이 하나지만 펼치면 네 개의 그릇으로 나뉜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면 1학년들은 제일 먼저 방석을 깔고 발우를 제 자리에 놓는다. 발우에 밥을 뜰 때도 세 번에 퍼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담는데 그 사람의 양을 미리 알고 정확하게 퍼야 한다. 이는 또 다른 행자 생활의 연속이었다.

하루는 가족이 그리워 출가 후 처음으로 집을 찾았다. 가족들에게 출가 허락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되었다. 누나를 통해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나셨고 당분간 집으로 걸음하지 말라고 전해 들었다. 다행인지 집은 이사를 가지 않아 어렵지 않게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 전박대였다. 평소에도 엄격하셨던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날도 하룻밤을 못자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돈 한 푼 없이 출가한데다 별다른 지원이 없으니 나의 대학생활은 늘 궁핍했다. 간간히 염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으로 쓰곤 했다. 절에서 큰 행사나 법회를 준비 할 때 거들어 주면 몇 만원의 돈이 생겼다. 스님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의 염불은 서툴렀다. 불교의식집을 보면서 염불 속도마져 느리니까 몇 몇 보살님들은 뭐 이런 스님이 있냐는 듯 살짝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큰 소리로 염불을 외우는 거였다. 다른 스님보다 오래 염불하고 가족들 이름을 크게 불러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탁을 치고 염불책을 보다 보니 책장을 두 장씩 넘길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더욱 당황이 되어 어느 구절을 암송해야 하는지 까마득했다. 목탁을 치며 우물쭈물하고 있으려니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마침 노보살님께서 눈치를 채고 목청 높여 불경을 읽으셨다. 그 덕분에 실수한 순간을 모면하니 나는 얼굴이 벌개져 법당을 내려오곤 했다. 어느 때는 은사님이 계시는 절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고무신을 닦고, 아침에 세수하실 물을 가져다 드리며 푼푼히 받은 용돈으로 책을 사봤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었지만 대학생활은 즐거웠다. 어려운 공부속에서도 대학 캠퍼스의 풋풋한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궁핍한 시대였지만 민주화의 목소리가 높게 퍼져간 시대에 일반 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사람들 마음에 순수성이 있던 그 시절, 가끔 인생의 봄날이었던 20대가 그립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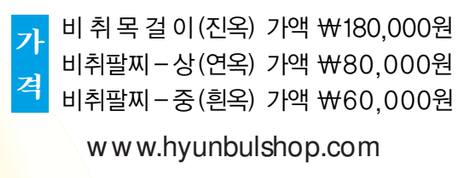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中 3대유적 윈강석굴 보존에 관민 나서

官民

중국의 산서성 대동시의 고대 불교유적 윈강석굴을 보존하는 데 관민(官民)이 나섰다.

〈Epoch Times〉 지는 8월 12일(현지시간)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윈강석굴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관민(官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중국 최대 석탄 산지인 대동시 일대는 연평균 강우량이 300㎜ 채 되지 않아 석탄 채굴과 운반 과정에서 나온 탄분으로 석굴 훼손이 심하다"고 보도했다.

5~6세기 중국의 석굴 미술과 불교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윈강석굴은 252개의 석굴에는 5000여 개의 불보살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15㎞에 걸쳐 조성된 석굴 대부분 풍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 석탄 광산의 채굴과 운반 과정에서 흘러나온 탄분으로 뒤덮이면서 크게 훼손되고 있다.

〈Epoch Times〉 지에 따르면, 산서성이 지난 2년간 위탁 ·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동시 일대의 탄분과 매연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윈강석굴의 훼손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Epoch Times〉 지는 보고서를 인용, "윈강석굴은 사암으로 제작되어 탄분의 착색이 심해 불보살상에서 흑갈색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또한 석굴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매연이 사암에 함유된 물과 반응해 석굴 벽면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윈강석굴보존위원회 왕마오(산서성대학) 교수는 "2001년을 기점으로 석굴 일부 출입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며 보존에 노력을 해왔지만 여의치 않다"면서 "이제는 관민이 함께 나서 윈강석굴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왕마오 교수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동시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석굴 일대의 화물트럭 운행을 제한하고, 석굴 세척을 정례화 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동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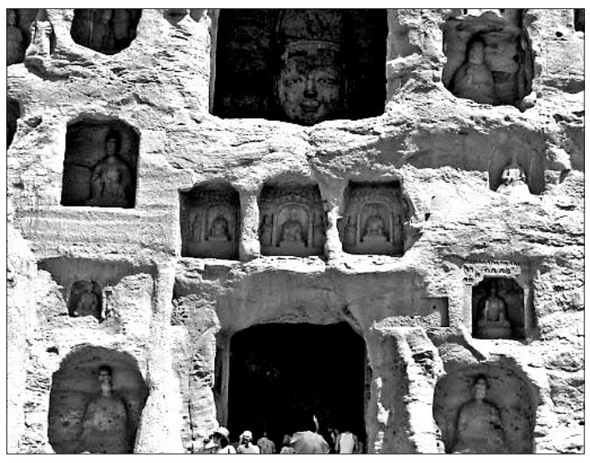
"윈강석굴은 대동시의 자랑"이라고 말한 판챠오챠오(광산 노동자) 씨는 "윈강석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대동시는 석탄 산지로 화력 발전소로만 주목 받았다"며 "윈강석굴이 있어야만 이곳도 문화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소중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윈강석굴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 쑨부어씬(화물트럭 운전자) 씨는 "석굴일대에서 석탄을 실은 화물트럭은 하루 평균 20,000여 대가 다니고 있다"며 "저도 그 중의 한 대를 운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석굴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 '세척 봉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Epoch Times〉 지는 "관에서는 석굴 앞쪽으로 화물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규제를 가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광산 노동자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부드러운 솔과 직물을 가지고 불보살상 세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윈강석굴의 아름다움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됐다"는 짜오찌엔난(광산 노동자) 씨는 "탄분을 베껴내는 과정에서 불보살의 채색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면서, 과거 산서성 일대의 불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기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윈강 석굴의 초입 전경. 윈강석굴은 초입의 강렬한 인상으로도 유명하다. 여백이라고는 조금도 허락하지 않을 태세로 입구에서 천장까지 주굴 벽면에는 온통 불교조각상과 회화들이 빼곡하게 묘사돼 있었다.

윈강석굴… 252개 석굴에 5천여개 불보상 조성, 불교신앙 진면목 보여

中 산서성, 탄분 · 매연 등 대기오염으로 훼손 가속화

官民… 석굴 일대 트럭 운행 제한, 석굴 세척 정례화 캠페인 진행

중국, 티베트-인도-네팔 잇는 철도 건설한다

2020년 완공 계획, 티베트 전통문화 파괴 우려

중국이 2020년까지 티베트에서 인도 및 네팔의 국경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한다.

중국 환구시보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등은 최근 중국 당국이 칭하이(青海)성 거얼무(格爾木)와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칭짱(青藏)철도를 인도 및 네팔 국경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인도를 잇는 철도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여온 인도에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양위린(楊育林) 티베트자치구 철도국 부주임은 "13.5 규획(13차5개년 계획, 2016년-2020년) 기간에 칭짱 철도를 각각 인도, 네팔과의 국경 도시인 야둥(亞東), 지룽(吉隆)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개통된 칭짱열차는 확장공사를 거쳐 오는 8월 라싸에서 티베트 제2의 도시인 르카쩌(日喀則)까지 253㎞구간이 새로 개통된다. 이어 2020년까지 르카쩌에서 인도 · 네팔 국경도시들에 이르는 2000㎞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국은 인도와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남아시아 간 철도 실크로드 건설을 희망해 왔으며, 이번 철도 건설은 중국과 인도 등 남아시아를 철도로 잇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의 출발선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칭짱열차가 인도 국경 지역까지 연장되면 한족 이주민이 티베트에 대거 몰려들어 티베트 전통문화와 생활방식 등이 파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티베트 라싸에서 르카쩌를 연결하는 253킬로 구간이 8월에 개통된다. 또 2020년까지 인도 및 네팔 국경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 前 부총리, 수도승으로 변신

반정부 시위 주도했던 인물, 7월 중순부터 생활 시작

태국 반정부 시위를 반년 이상 주도했던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불교 수도승으로 변신했다.

그의 측근인 템따이 세나뽕 전 의원은 7월 15일 트위터를 통해 "수텝 전 부총리가 이날 고향인 수랏 타니 주 타사이 사원에서 삭발식을 하고 불교 수도승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텝 전 부총리가 왜 갑자기 수도를 시작했는지, 수도를 얼마나 오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에서는 남성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절에서 수도하며, 수텝 전 부총리는 이전에 40일간 수도한 적이 있다.

수텝 전 부총리는 2013년 11월부터 반년 이상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으며, 이 시위는 지난 5월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붕괴시킨 군부 쿠데타로 이어졌다.

수텝 전 부총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과 자신이 오랫동안 잉락 정부 전복을 논의했다고 공개하고 나서 군부로부터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삼가라는 경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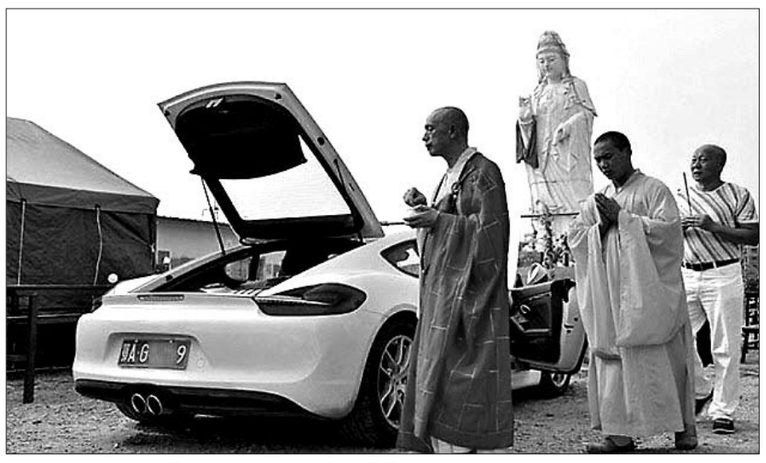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지난 5월 반정부 시위를 이끈 수텝 태국 전 부총리가 방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포르쉐 스포츠카도 축원 대상이 될까

中 스님, 고액 보시금 받고 '무사고 기원' 기도



포르쉐 스포츠카의 '무사고'를 축원하고 있는 중국 스님.

불교는 자비와 근검을 미덕으로 삼는다.

'삼독'을 경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중국에서 부자와 스님이 '포르쉐'와 '축원'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함께 대중의 도마에 올랐다.

〈Mail Online〉 지는 "중국의 성공한 벤처기업의 사장이 최근 구입한 고가의 포르쉐 스포츠카에 '무사고' 기원을 스님께 부탁하고 고액을 보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도흥(Tao Hung) 씨가 포르쉐의 최신 모델 스포츠카를 구입한 후, '고액의 보시금'을 들고 중국 후베이성 중부에 있는 도시 샤오간(Xiaogan)의 전통사찰을 방문해 '포르쉐 무사고 기원' 축원 법회을 요청했고, 사찰 측에서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호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부자와 스님은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Mail Online〉 지는 '전통사찰이 가장 손쉬운 돈벌이를 택했다' '축원은 돈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등 대중의 비난 여론을 언급하고, "부자와 스님을 향한 비난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27일. 10월25일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9월 5일. 9월 1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10월 21일. 11월 25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9월 3일. 10월 11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9월 10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5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8대 성지/아그라 11일 11월 25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삽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95-01-264060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6)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백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8)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삽



경상도 불교 유물 얼마나 될까?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1314~1896'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상주박물관과 공동기획한 경상도 개도(開道) 700년 기념특별전 '경상북도 1314~1896'을 9월 14일까지 연다.

올해는 '경상도(慶尙道)'라는 도명(道名)이 사용된 지 700년이 되는 해로 '경상도'라는 이름은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에서 따왔다. 도명의 유래지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박물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대한 특별전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전시에서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조관음보살윤왕좌상, 석조금강역사입상 등 불교 관련 유물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불상으로 나무를 깎고 덧대어 만든 뒤 표면에 옻칠하고 금니를 칠해 마무리했다. 제작 연대가 확실하여 조선 전기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으로 조선 1482년(성종13) 다밀지의 정수사에서 관음 · 지장보살과 함께 삼존으로 제작된 아미타여래다.

목조관음보살윤왕좌상(국립경주박물관)은 조선 15세기경에 조성된 높이 54cm의 불상이다. 이 보살상의 가장 큰 도상적 특징은 오른쪽 무릎을 세운 뒤 그 위에 오른팔을 올려놓고 왼손을 몸 뒤로 짚은 윤왕좌(輪王坐)의 자세이다. 이 자세는 고려시대부터 수월관음(水月觀音)의 특징적 도상으로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석조금강역사입상(국립경주박물관)은 높이 100cm의 조선 후기 작품이다. 부릅뜬 큰 눈, 큼직한 코와 입의 표현에서 조선 후기 불상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해학성이 느껴진다.

경주박물관 임재완 학예연구사는 "종교는 시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숭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시대 반영한 작품 '주목'

유억불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시대 경상도의 불교문화재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경상북도의 자연환경, 인물, 사건, 이야기 등 경상북도와 인물에 관한 다양한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20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된다. 또한 10월 12일~12월 29일까지 상주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전시가 개최된다. (054)740-7588

정혜숙 기자





경상도 개도(開道) 700년 기념특별전 '경상북도 1314~1896'이 9월 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왼쪽)과 석조금강역사입상

자비의 '관음' 세상 상처 어루만지네

젊은 작가 모임 부디스토리 3회 전시… 8월 20일 인사동 갤러리M



2013 전시 오프닝에 참여한 부디스토리 작가들

젊은 청년작가들이 모여 톡톡 튀는 개성으로 풀어낸 '관음'은 어떤 모습일까? 전통 불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 신화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둥근 원으로 모인 대중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의 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곁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이 12명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부디스토리(회장 예상희) 3회 전시 '관음'이 8월 20일~26일 인사동 갤러리M에서 열린다. 권지은, 김민지, 김윤정, 서혜진, 신지영, 예상희, 오선혜, 이혜원, 정해진, 출팀놀부, 현승조, 호종현 12명의 작가들이 '관음'을 주제로 한 작품 12점과 꽃을 소주제로 하는 24작품을 선보인다.

부디스토리는 각기 다른 전공의 20~30대 청년들이 모여 불교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젊은 작가 모임이다. 이들은 서양화 동양화 조각 전통불화 티베트 미술 등 다양 장르의 미술 전공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부산 충남부여 등 사는 곳도 각기 다르지만 회원들은 불교로 뭉쳤다. 전통불화를 현대적 언어에 맞게 표현해내고자 한 것이다.

부디스토리 예상희 회장은 "'부디스토리'는 'Buddhist'와 'Story'의 합성어로, 불교와 부처님 그리고 불교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젊은 불화 작가들의 모임"이라며 "불화(佛畵)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작가들이 모여 대중들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불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한다.

3회 전시의 주제는 관음이다. 예 회장은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해주는 관음의 자비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국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한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어람관음도 등 한눈에 봐도 불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가하면 전혀 색다른 주제의 관음도 만날 수 있다. 정해진 작가의 '호피명작'은 그리스 아테네 여신의 모습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이끌어낸다.

전공 다른 12명의 작가들 모여 불교 소재의 다양한 작품 선보여 내년 일본 등 해외전시 계획도

또한 오선혜 작가의 '0'은 원을 이루고 있는 대중들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이들이 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간간이 정병 연꽃 등을 통해 관음도를 연상케 하는 동시에 평범한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광배를 두른 부처님이 중간에 위치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 작가는 "전통 불화를 공부했지만 저만의 이야기로 관음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세상에는 선도 악도 없으며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불교미술을 전공해도 종립학교나 종단 차원에서의 전시기회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이 자비를 털어 3년을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부디스토리의 활약은 그래서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본 전시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전시도 기획 중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불작가이자 전시기획자인 출팀놀부는 "내년 가을 즈음 오사카의 사찰 갤러리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현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전통문화인 불교미술을 젊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며 계획을 전했다. (02)737-007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젊은 작가들의 모임 부디스토리의 전시 '관음'이 8월 20일~26일 인사동 갤러리M에서 열린다. 사진은 ①예상희의 '백의관음' ②출팀놀부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③오선혜의 '0' ④정해진의 '호피명작'

천상의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

아니 초잉 돌마 '귀의송' 발매

네팔의 비구니이자 국민가수인 아니 초잉 돌마가 '관세음 보살이 현현(顯現)한 듯 장엄하면서도 자비심이 울려 나오는 천상의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리듯 '귀의송'을 창송(唱頌)한다.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주는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셀러작 '귀의송'이 콘텐츠코리아에서 발매됐다.

아니 초잉 돌마가 티베트 불교의 '사귀의문(Four Refuges Prayer)'을 창송(唱頌)하는 앨범으로 런닝 타임이 45분에 달하며, 1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해금과 유사한 티베트 얼후인 삐왕(Piwang), 티베트의 민속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다녠(Dranyen), 티베트 피리인 링부(Lingbu), 현대의 프레임 드럼의 일종으로 사찰의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나(Nga), 티베트 불교의 경건한 예불의식에서 사용되는 작은 벨(bell)의 일종인 띵샤(Tingsha), 기타, 베이스, 바이올린 등 전통 및 현대악기 소리에 맞춰 아니 초잉 돌마가 챈팅하고 있다.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셀러작 '귀의송' 표지

찬트의 멜로디와 음악 작곡 및 편곡은 네팔에서 20여년 이상 밴드의 멤버, 작곡가, 편곡자, 세션 연주자로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온 페마 왕디 라마(Pema Wangdi Lama)가 맡았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채색화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 미소

유광상 불화전 8월 20~30일

유광상 불화전이 8월 20~30일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철학과 불교역사를 담은 좌불상 연꽃 수호신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유 작가는 "오랜만에 불교미술 작품전을 개최하게 됐다. 전통불교미술을 현대미술과 결합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순수 회화 작품을 그려내고자 노력했다. 대중적인 철학, 불교역사적 이미지, 해학, 휴머니즘으로 풀어 인간적인 순수함을 예술적으로 펼쳐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먹의 퍼짐과 농담의 신비함, 채색의 분채를 통한 은은한 색의 혼합을 통해 작품 전체에 신비감을 더했다. 유 작가는 "좌불상 작품은 연꽃과 수호신을 배경으로 먹의 향기와 동양적 정서의 극치를 보이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했다. 또한 반가사유상의 원형에 가까운 금불상이 변화되어 가는 색의 원형을 찾고자 했다. 우주속의 반가사유상에 대한 인간 구원의 바람, 부처님의 은혜를 담았다"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02)733-5322

정혜숙 기자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한 '불심'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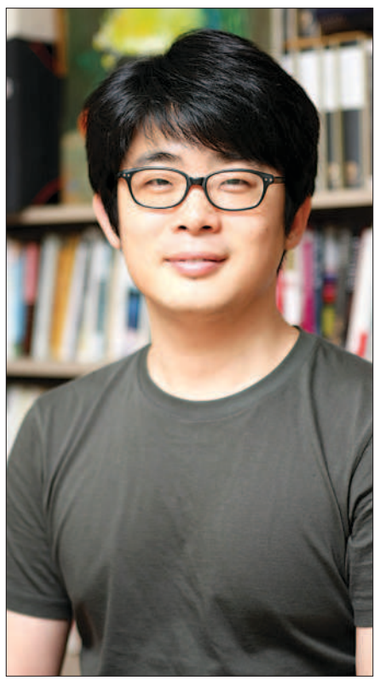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문화人

인간 내면 속 공포의 두려움 깊이 있는 표현 위해 3D 선택

한국 최초 3D 공포 영화 '터널' 연출한 박규택 감독



한국 최초 3D공포 영화 '터널' 이 8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출자인 박규택 감독은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메시지가 있는 공포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8월 20일 개봉… 폐광촌 주무대
영화에 불교 세계관 반영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전달

"공포 영화라고 해서 단순한 선악의 대결 구도로 스토리를 풀고 싶지는 않았어요. 공포는 외부적 요인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개인의 죄책감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이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개인의 업식이 발현되어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선인은 선인대로 이해가 가능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3D공포 영화 '터널' 이 8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을 연출한 박규택 감독(33)은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2001학번)으로 '기억부검' 등 3D단편 영화를 거쳐 터널로 첫 메가폰을 잡았다. 한국 최초 3D 공포영화인 터널은 재벌 2세인 기철의 권유로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의 청춘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다. 기철, 영민, 유경, 세희, 은주는 관리자 동준의 안내로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한 사고로 김 씨를 죽이게 된다.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숨기려 향한 곳은 20년간 출입이 금지된 터널. 이곳은 폐광의 갱도로 남다른 사연이 숨어 있는 곳이다. 단 한 순간도 머물고 싶지않은 이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그 때, 어디에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그들을 향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또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박 감독은 밀폐된 공간인 탄광촌 터널을 소재로 인간의 내면속에 내재된 공포심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단순한 공포보다는 그 공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배경이 탄광촌인 만큼 그 속에는 광부들의 애환이 서려 있을 거라 생각했죠. 또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장보살을 좋아해요. 온전히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처럼 이야기 속 주인공들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 감독은 첫 장편영화 연출이다 보니 촬영기간 내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때문에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하지 않았다고. "어떤 마음으로 배우들과 스텝들을 대해야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영화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컸죠. 강원도에서 폭설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배우들 스케줄 때문에 촬영 일정이 꼬여 난항을 겪기도 했죠. 또 3D에 익숙하지 않은 스텝들의 부담감도 컸어요. 하지만 이 모두가 인연이려니 하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일하다보니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웃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박 감독은 대학진학을 하면서 영화학과 대신에 불교학과를 선택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그는 아버지 박상진 교수(동국대 한국음악과)의 조언을 듣고 단번에 진로를 결정했다. "사실 대학입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불교학과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꽤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고 제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불교학과로 진로를 결정했죠.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다양한 세상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 감독은 '매트릭스' 처럼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다. "사실 이번 영화는 회사에서 만든 기획 영화라 제 의견이 온전히 투영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차기작은 제 손에서부터 시작해 저의 사상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불교적 내용을 녹일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 최초 3D 공포영화 '터널' 은 재벌 2세인 기철의 권유로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의 청춘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다.

스님이 시 읊으니 망상이 사라지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㉝ 봉선사 ㊤





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남양주 봉선사 경내 모습.

세조의 능침사찰로 사격 일신

봉선사(奉先寺)는 고려 광종 때의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에 의해 운악사(雲岳寺)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 역사적 자취는 기록이 없어 희미하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인근에 조선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이 들어서고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크게 사찰을 중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른바 능침사찰로 정해지면서 희미하던 법등이 큰 빛을 발하게 된 셈이다.

세조와 정희왕후는 불심이 깊었다. 세조의 능침사찰로 봉선사를 중창한 나라에서는 절에 전답과 노비 그리고 돈을 내렸으며 세조를 위한 천도재도 크게 베풀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절의 현판을 친필로 써서 하사했다. 절의 이름은 '선왕의 능을 받들어 모신다(奉護先王之陵)' 는 뜻에서 따 온 것이다.

이후 봉선사는 명종 때 전국 교종사찰을 관장하는 교종수사찰로 그 사세가 확대되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명종 7년(1552년)에는 봉선사에서 승과 고시인 교종시가 열려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교종 승려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시대가 막을 내리며 불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봉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 임진왜란은 절을 더욱 피폐시켰고 스님들은 스러진 자리에 다시 불사를 일으켜 당우를 복원했다. 역사의 흐름은 성주괴공의 연속인 것이다.

봉선사가 보잘 것 없는 사찰일 때와는 달리 고관대작 선비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당연히 세조의 능이 들어선 이후부터다. 공무를 이유로 오는 선비들도 있고 유람삼아 지나는 길에 들린 선비도 있었을 것이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간 세조의 유혼이 조석예불을 하고 있을 봉선사에 들린 선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침옹령악(仙寢擁靈嶽)
격림린보방(隔林隣寶坊)
착락송계리(錯落松桂裏)
의관재소당(衣冠齋小堂)
설납출시전(雪衲出詩 》)
낭음진려망(朗吟塵慮亡)
추고상기중(秋高霜氣重)
산과퇴반향(山果堆盤香)
요단서초흘(瑤壇瑞醮訖)
귀로식선방(歸路息禪房)

왕릉은 신령스런 산에 에워싸여
저 건너 숲은 절집과 이웃했네.
새들은 소나무 계수나무 숲에서 울고
의관한 관리는 작은 집에서 재계하네.
흰 옷 입은 스님은 시 지을 종이 꺼내어
낭랑하게 읊조리니 망상이 사라지네.

하룻밤 묵으며 시를 나누는 운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도 공무로 광릉에 왔다가 봉선사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동행한 장유(張維 1578~1638)가 지은 시에 차운하여 시를 썼다. 관직을 맡은 선비들이 광릉을 들러 서로 시를 주고받은 것인데 그 무대가 광릉과 봉선사인 것이다.

비각교산리(閟閣喬山裏)
단청환련양(丹靑煥 梁)
백령조숙숙(百靈朝肅肅)
만목옹창창(萬木擁蒼蒼)
태석간신수(苔石看神獸)
총림과불향(叢林過佛香)
청시홀유증(淸詩忽有贈)
백수돈생광(白首頓生光)

가을 하늘 높아 서리 기운 싸늘하고
쟁반에 놓인 과일 향기롭구나.
잘 꾸민 제단에서 맛있는 공양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방에서 쉬도다.

〈어우야담〉의 저자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시다. 〈어우집후집〉 제1권에 실려 있으며 제목은 '광릉재실증봉선사승덕균(光陵齋室贈奉先寺僧德均)' 이다. 광릉 재실에 갔다가 봉선사의 덕균스님을 위해 써준 시라는 의미다.

시의 내용도 제사를 위한 공무로 광릉에 가서 능을 살피고 제사를 받들고 음식을 먹고 절에서 하룻밤 자는 일정까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무미건조하게 하루 일정을 기록한 게 아니다. 광릉의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숲 속의 새와 작은 재궁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관리의 대비는 맑고 엄숙하다. 의관을 차려입은 관리의 행동과 시를 지어 읊는 스님의 행동 또한 아주 명징하게 그려지고 있다. 높은 가을 하늘과 향기로운 과일의 이미지도 맑게 대비되고 있다. 그렇게 상응하는 이미지들로 조용히 치러지는 하루의 일과를 담아내는 것이니 작가의 시적 재능이 탁월하다. 돌아오는 길 봉선사에서 하룻밤 쉬는 대목으로 시를 종결하니 차분한 결구가 되었다.

교산 속에 정자각이 서 있거니와
단청의 빛 기둥 들보 환히 빛나네.
백 신령이 엄숙하게 조회를 하고
만 나무가 울창하게 에워싸 있네.
이끼 낀 돌 신수들의 모습 보이고
총림에는 불전 향기 스쳐 지나네.
맑은 시를 그대가 홀연 보여 주시니
흰머리의 내젠 문득 광영스럽네.

김상헌의 문집 〈청음집〉제4권에 실린 이 5언율시의 제목은 '광릉(光陵)을 봉심(奉審)한 뒤에 봉선사(奉先寺)에서 묵으며 동행한 판서 장지국(張持國)의 운에 차운하다' 이다. 장지국은 장유를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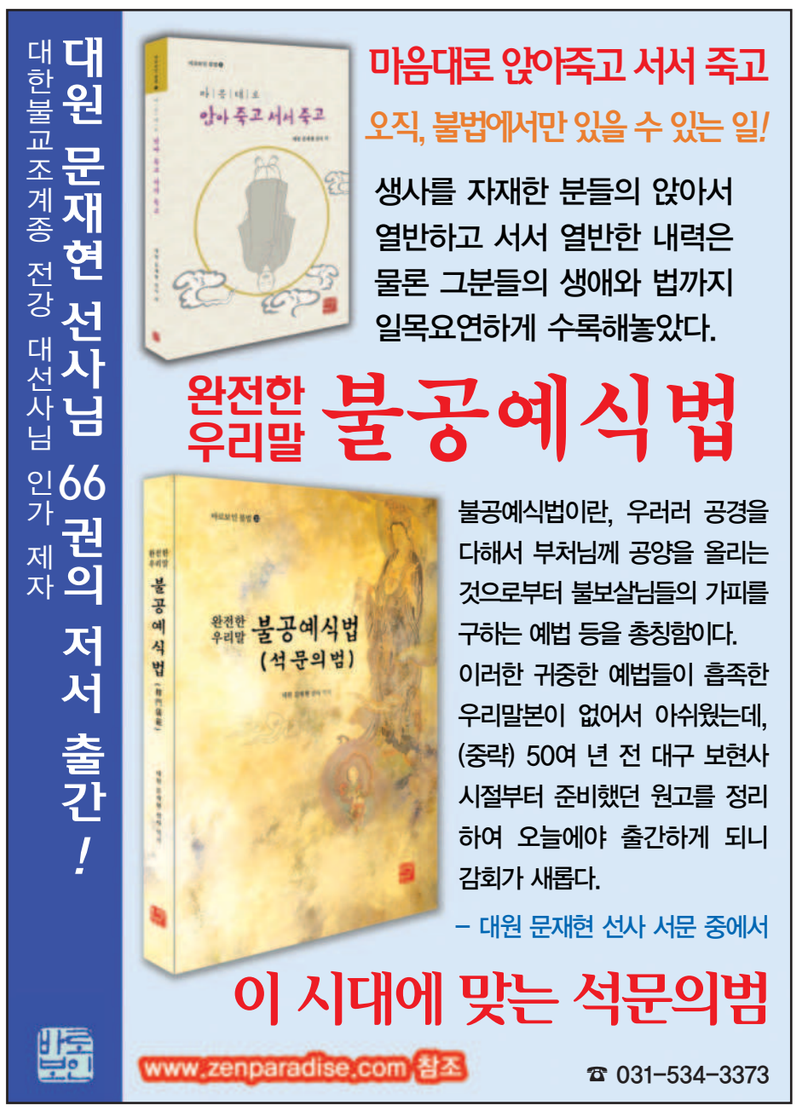
청음 김상헌이 광릉에서 볼 일을 보고 봉선사에 묵으며 장유의 시에 차운한 작품은 광릉과 봉선사를 수호하는 신령들을 빽빽한 나무숲으로 묘사하여 묘한 설득력을 얻는다. 거기에 능침의 석물들이 능을 보호를 하고 있으니 선왕의 능침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

불단에 피워놓은 향으로 봉선사의 청정성을 강조하고 시를 지어 보여주는 동행이 있어 마음은 더욱 흡족한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세도록 살고 있는 자신은 동료가 보여 주는 시 한 수에도 복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를 다 겪은 김상헌이고 보면 더 이상 거친 세파가 없을 정도로 곡절의 날들을 살았다. 전국을 누비며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는 많은 시를 남겼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므로 세조의 광릉에서 능침과 사찰을 둘 아니게 보며 서로 보호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가슴 가득 담아내는 것이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6 ~ 8/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수트라 (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3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4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선화상인 염불법문)	정원규	민족사
7	현판기행	김봉규	담앤북스
8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홍일	운주사
9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10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불광출판사



염불은 정토왕생의 제일 확실한 방편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지음 | 무심 송상섭 편역 | 여시아문 펴냄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 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책은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 대사의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제1부 '담허대사 염불론' 과 제2부 '득도에 이르는 정혜쌍수' 로 구성되어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로부터 발생하여 중국으로 전해졌고 점차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 해탈)에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49년 동안 설법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두 결집하니 총 3장 12부가 되었다.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기에 그에 대한 가르침도 역시 달랐다. 불법이 중국으로 전해진 후 3장 12부 중에서 그 지향하는 목표가 각기 특색을 드러내듯 마침내 선(禪), 교(敎), 율(律), 밀(密), 정(淨)의 다섯 가지 종파로 나눠졌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눈 것은 아니다. 경전 속에서는 '종' 과 '파' 를 찾아볼 수 없다.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르므로 그에 맞추어 자연적 추세로 뒷사람이 앞사람을 계승하여 주력하는 그 방면을 깊이 접하다보니 다섯 가지 큰 종(宗)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수행은 다른 방편이지만 모두 이고득락(해탈)을 위함이다. 이 중 정토종은 염불수행, 즉 아미타불을 외우고 일심불난(一心不亂)이 되면 부처님의 접인(接引, 오셔서 데려감)을 받아 윤회계인 삼계를 초월하여 극락왕생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정토법을 닦을 때 유일한 행지(行持, 실천수행)는 바로 정성껏 염불하는 것이다.

책은 염불수행의 위대함을 설한 것으로, 제1부에서는 염불수행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법 가운데 하나임을 설하고 그 의미와 이유, 과정 그리고 염불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염불은 알고 보면 사람마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일(本分事)이다. 또 사람이면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염불의 의미는 곧 내 마음속에 숨은 거룩한 깨달음과 그 깨닫는 지혜를 일념으로 구하는 것이다." 책의 특징은 내용이 간략하고 명확하다. 핵심을 짚어준다는 것이다. 송상섭 지도원장은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고 말한다.

"염불처럼 강한 해탈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문이 없다. 재론할 여지도 없이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책은 제2부에서 또 하나 염불을 통해 일념과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선정을 닦았을 때 비로소

염불수행의 위대함 설한
담허대사의 〈염불론〉 번역 · 해설
止 · 觀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로
선정 얻는 방법 체험적으로 설명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라고도 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닦으면 반쪽짜리 수행이 되어 원만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책은 염불과 선정의 의미와 이유,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염불을 하는 자세, 진정한 염불수행이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핵심을 짚으며 설명한다.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저자 담허대사(1875~1963)는

중국 하북 영하에서 태어났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의 청지법사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의 인괴법사를 의지하여 출가했다. 민국10년(1921) 심양 만수사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했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의 부촉에 의해 보정, 정권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다.

한국선의 흐름을 한눈에

간추린 한국 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시대까지

정영식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한국선은 중국선의 전래다. 즉 중국에 유학한 승려들이 당시의 중국선을 배워옴으로써 선이 전래되었던 것이다. 책은 한반도에 선이 전래되는 과정, 구산선문의 성립과 종파의융성,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임제종의 융성과 고려말 삼사(三師)의 선사상 등을 다뤘다. 한국선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사들과 사상의 흐름을 간략하게 핵심만 추려 엮은 입문서다.

1970년대 이후 한국선사상에 대한 연구는 점점 증가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서의 번역에 의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구 결과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불교사 부분이 특히 그렇다. 불교사 중에서도 사상사 영역은 더하다. 그러니 '선' 사상사 부분은 말할 것이 없다.

책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다. 그것도 초심자를 대상으로 했다. 애초 현대까지 이르는 통사를 기획하였으나, 관련 연구들의 부족으로 부득이 고려시대까지 한정하고, 조선시대 이후는 훗날의 연구로 미루었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과 핵심 사상만을 간추렸다. 선의 전래부터 고려 말까지 한국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저서, 사상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따라서 분량 면에 있어서도, 한눈에 읽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양을 줄였으며, 다만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국선사상 관련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제1장 '선의 전래와 구산선문의 성립' 에서는, 한반도에 최초로 선을 전래한 법랑과 신행, 지덕, 그리고 정중무상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구산선문의 전개와 종파의 융성' 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10세기부터 11세기 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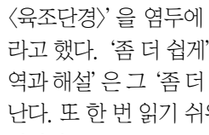
제3장은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인데, 12~13세기의 시기로, 고려 중기에 해당한다. 천태종의 영향으로 점차 쇠퇴하던 선종이 조계종으로 재편되며, 중국과의 교류 확대와 인쇄술의 발달로 중국선의 영향이 더욱 강화된다.

제4장은 14세기, 즉 고려 말기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원나라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불교의 타락과 세속화가 극에 달했던 때이다. 그런 중에도 그 경지를 크게 드날린 이들이 있으니 여말삼사(麗末三師)라 불리는 태고보우, 나옹혜근, 백운경한이다. 여기서는 그들의 사상과 활동, 저서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박재완 기자

또 한 번 쉽고 명료해진 〈육조단경〉

돈황 법보단경

원순 강설 | 법공양 펴냄 | 2만원



"태생이 하찮은 영남 오랑캐가 감히 부처가 되려 하느냐?"

"사람의 태생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있어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선종의 육조인 혜능이 장터에서 우연히 금강경의 한 구절(응무소주이생기심 · 應無所住而生其心)' 을 듣고 오조인 홍인 스님을 찾아가 부처님 법을 달라 했을 때 오조 스님과 혜능이 주고 받은 말이다. 후에 혜능은 육조가 된다. 혜능이 법을 받고 육조가 되어 설법한 내용이 담긴 것이 〈육조단경〉이다.

책은 원순 스님의 〈육조단경〉강설이다. 돈황본이다. 지금까지의 판본과는 달리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육조단경〉 돈황본 강설
핵심은 〈반야심경〉

불량이 적고 핵심만을 수록했다. 원순 스님은 '일반 재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육조단경〉' 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불사라고 했다. '좀 더 쉽게' , 그렇다 모든 '번역과 해설' 은 그 '좀 더 쉽게' 를 위해 태어난다. 또 한 번 읽기 쉬워진 〈육조단경〉을 만난다.

〈육조단경〉은 돈황본, 덕이본, 종보본, 혜흔본, 대승사본, 흥성사본 등 여러 판본이 있다. '돈황본' 은 돈황 석굴에서 필사본 〈육조단경〉이 발굴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당히 많은 원문의 한자를 교정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돈황본' 이다. 문장이 잘 다듬어진 '덕이본' 과는 사뭇 대조적이지만 '돈황본' 은 천년 동안 돈황굴에 보관되어 뒷사람들의 손질을 받지 않아 본래 듯이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육조 스님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돈황본' 은 '덕이본' 처럼 극적인 흥미는 없지만, 선종의 근본 가르침을 담박하게 바로 볼 수 있다. 책의 제목을 〈돈황 법보단경〉이라고 한 것은, '돈황굴에서 나온 법보단경' 이란 뜻이다. '법보' 란 육조 스님의 이 말씀이 법의 보배, '최고의 가르침' 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책은 1부 '법보단경' , 2부 '법보단경 강설' 로 나뉘어져 있으며 1부에는 '육조단경이 만들어진 인연' , '스승을 찾아가다' 를 비롯한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에는 강설을 옮겨 '법을 얻게 된 인연' ,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 , '신수 스님과 육조 스님의 게송' , '여덟 가지 삿된 길을 바로 잡는 팔정도' 등 구체적이며 친절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설에서는 〈육조단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하반야바라밀법, 무상참회, 돈교법 등 〈육조단경〉의 핵심 부분을 풀이하고 있다. 특히 탁월한 안목으로 선가에서 많이 회자되는 신수 대사의 게송과 육조 대사의 게송을 풀이하고 있다.

원순 스님은 "〈돈황 법보단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 이라는 사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 마음자리야말로 부처님과 다르지 않을 자리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라고 원순 스님은 독자들과 불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한편, 부록편에 〈한글반야심경〉을 수록한 것은, 〈금강경〉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 '돈황 법보단경' 이며 금강경의 본디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인데 이 경의 핵심 사상이 모두 〈반야심경〉에 담겨져 있고 금강경 도리가 온전히 녹아 있는 〈반야심경〉을 보면 〈돈황법보단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반야심경을 한글로 풀이하였음을 밝혀두고 있다.

원순 스님은 그동안〈마음을 바로 봅시다(명추회요)〉〈禪스승의 편지(대혜 서장)〉〈한글원각경〉〈선요〉〈도서〉〈연꽃법화경〉〈선가귀감〉〈금강경오가해설의 6권〉 선가귀감을 강설한〈선 수행의 길잡이〉〈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등 다양한 불서를 펴냈으며 보석 같은 불서는 전국의 선원, 강원, 율원 등 승가와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법공양 출판사 이름으로 보급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 中

마음꽃 펴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사랑 들여다보라, 그때 진짜 사랑 온다"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다

문태준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8백원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읊조렸던 '위대했던 여름' 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그동안 달궈졌던 체온을 식혀준다. 몸이 청량해지니 머리도 맑아진다. 이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책 읽기다. 책은 읽고 싶은데 뭘 읽을까 고민 된다면 활자가 빽빽하지 않은 시집을 권한다. 여백의 미가 잘 느껴져 마음을 보다 단순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시는 흔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감성과 관념이 고급스럽게 버무려 져서다. 그렇다면 한 권을 강력히 추천한다. 한국문단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문태준 시인(불교방송PD)〈사진〉이 가장 사랑한 시 67편을 소개한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다〉이다.

시를 직접 쓰는 시인이 추천한 시라니 기대가 된다. 더군다나 시 말미에는 감칠 맛 나는 해설을 달았다. 오히려 본문의 시보다 주석 형식의 해설이 더 재밌다. 그래서 시 해설보다는 한편의 잠언같다.

이 책은 고요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시들,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시들을 엮어 한 편씩 읽고 음미할 때마다 읽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 책의 저자인 문태준 시인은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등 한국의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시인이다. 이번 책은 주로 잃어버린 인간 마음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찾게 해주는 시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세상이 너무 개인주의로 치닫고, 화로 가득 차 있을 때 문태준 시인은 시 읽기를 강권한다. 위로가 필요할 때, 평안을 주고 싶을 때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말보다 시라는 것이다. 그런 시들이 여기 꽃밭의 꽃들처럼 가득하다. 문 시인은 서문을 통해 "우리가 기관차처럼 달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만나게 해야 한다. 영혼은 버려지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영혼을 맞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잊혀진 신비와 만날 수 있고, 그리하여 탁하게 된 우리를 맑게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힌다.

저자는 책 제목처럼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쓴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려 하지 않고 겉만 보려 한다. 피부 감각적으로 만나려고만 한다.

'마음' 에 관한 시들 다음으로 저자가 뽑은 시들은 느리고 낮지만, 깊고 오래가는 사랑을 알려주는 시들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시들도 궁극적으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파생된 시들이다.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 그다음에 오는 것은 '사랑' 이다. 소나기처럼 한때의 격정적인 사랑이 아닌, 한겨울에 내린 눈이 저 깊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뿌리를 적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는 사랑. '마음' 과 '사랑' 그다음은 '자연' 이다. 저자가 이번에 엮은 시집의 흐름은 바로 그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잡았다.



시인 아름답게 생포한 명시 67편
문단 대표시들에 불교적 해설 달아
"시는 자신의 마음자리 살피는 도구"

그렇게 엮은 시들의 해설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 봄' 이다. 마음도 사랑도 자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그 무엇인가가 온다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사랑이 슬프고 빠를 때… 그냥 가만히 두고, 가만히 바라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문태준 시인이 이번 시집을 엮은 화두이자 주제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처음 '나' 에서 시작된 시선이 '너' 로 옮겨가고, 다시 '너' 에서 '마음' 으로, '마음' 에서 '사물' 로 옮겨간다. 시인은 제일 먼저 '나' 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등 나를 앎으로써 타인에게 공감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밑거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가만히 나를 바라볼 때"에서는 신달자 시인의 '생' 을 포함한 17편의 시를 소개함으로써 '나' 를 바라보게 한다.

다음으로 시인은 '너' 를 바라본다. '너' 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게 된다. 2장 "가만히 너를 바라볼 때"에서는 김승희 시인의 '가슴'을 포함한 17편의 시를 통해 '너' 를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익힌다.

이후 시인의 눈은 '마음' 으로 향한다.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들의 '마음' 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다. 3장 "가만히 마음을 바라볼 때"에서는 유자효 시인의 '속도'를 비롯한 18편의 시들을 소개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사물' 을 바라본다. 내적인 '마음' 과 외적인 '사물' 을 합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4장 "가만히 사물을 바라볼 때"에서는 오태환 시인의 '무너밋골 달빛'을 비롯한 15편의 시를 소개하며 우리들을 이 여행의 종착지로 안내한다.

문태준 시인은 말했다. "시는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도구"라고. 여름이 가는 길목에서 그 도구를 만나보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심신 고요한 상태로 가라앉혀 본 생명력 회복하는 것이 정좌수행"

정좌수도강의

남회근 지음 | 부키 펴냄 | 1만8천원



이 책에서 말하는 정좌의 목적은 이 세 가지 모두와 관련 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수면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정좌(靜坐)' 다. 이는 심신을 고요한 상태로 가라앉혀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정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한 주의할 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며, 정좌를 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참선, 단전호흡, 명상 등은 '정좌' 와 같을까 다른 것일까.

이 책은 정좌에 관심이 있거나 입문한 사람이 궁금할 만한 기본에서 출발한다. 정좌의 자세부터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 정좌가 몸에 미치는 영향과 몸에 일어나는 반응, 그 반응의 의미, 몸과 마음의 관계 등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짚어 준다.

입문서이지만 입문 이상이기도 하다. 정좌 수행을 하여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수행 과정의 의문을 풀어 주기 때문이다.

또 도가 계통의 수련에서 흔히 말하는 임맥과 독맥, 기경팔맥의 변화 양상과 단계별 특징, 도가와 밀종, 요가에서 말하는 용어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이론과 체험으로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로써 수행자들이 현재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반응의 의미와 단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괜한 오해와 환상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지침을 준다.

이 책에는 저자의 유가, 불가, 도가의 경전을 두루 섭렵한 이론적 배경, 중국과 티베트 등지에서 각 파의 수행법을 배우고 수차례 폐관 수행한 경험, 황제내경을 기반으로 한 의학 지식과 그것을 현대 의학 이론에 비추어 설명한 시도, 몇 년에 걸쳐 정좌 수련자와 수도자를 탐방한 기록, 은유적 표현과 모호한 말로 여러 폐해를 낳은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 정신까지 골고루 녹아 있다.

몸과 마음의 변화는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체험한 사람은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런 정좌 수행의 세계를 가능한 한 이론화하였고 그것을 실천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또 사람에 따라 수행의 과정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수행자의 탐방기로 보완해 개인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했다.

어느 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해 각 종파의 한계를 넘어선 점도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다. 또 서로의 이론을 참고하고 서로의 용어를 비교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드러내며 맹목적으로 상대를 배척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이 책은 크게는 몸으로 접근하는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으로 들어가는 '불가' , 학문으로 접근하는 '유가' 의 수행법을 아우르며 비교 보완해 각 이론의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관념이나 감각의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저자는 도가 수행법은 현대인들의 관념과 현대식 교육에 비춰보면 신비하고 허황된 표현이 많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불가 천태종과 밀종의 수행법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듣기 어려우며, 심성 수양으로 기질 변화를 추구하는 유가의 수행법은 그 나름의 확실한 이치가 있지만 생리적 변화를 도외시해 질의 변화까지 이끌지 못하는 점도 지적한다.

유불선 3교 수행 체험 이론적 배경
몸과 마음 변화 수행해야 알아

결국 각종 수행론은 그 나름의 의미와 한계는 있지만 생리적인 신체 반응과 심리적인 지각이나 감정,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을 도구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저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의학이나 도가 사상이 아무 의미 없이 전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신비한 이론이나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도 의학상의 이치 등을 따져 받아들일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가 수련법의 한계와 폐해도 분명히 지적한다. 도가 수련법은 학문적 이치를 소홀히 하고 원리나 이론적 측면을 경시해 지식인들에게 널리 유포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체계와 원칙, 방법을 갖춘 신선 단도의 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스승에게 직접 배운 것만 중시하고 제자에게 은밀히 전수되는 풍토도 도가 수련의 발전을 막고 오해를 불러오는 요인이었음도 밝힌다.

저자는 이런 도가 사상의 신비를 벗겨 이론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대일로 은밀히 전수하던 비결을 밝혀내고, 단경 도서의 의도적 은폐를 걷어냈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유적 표현으로 넘어가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짚어 냈다.

김주일 기자

승려 시인 눈에 비친 산사 일상 수필로

우짜든지 내캉 살아요

글 도정 스님 | 공감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경남 합천 용기암 주지이자 '승려 시인' 으로 유명한 도정스님의 첫 산문집이다. 책 속에는 자상한 어머니 같고 때로는 늙은 할머니도 되었다가 기세등등한 마누라도 되었다가 조잘대는 딸 하나 키우는 것 같은 할매 보살님이 있고, 등 긁어주는 영감 같고 든든한 아들 같고 가끔은 애인 같고 말썽쟁이 손자 같은 주지스님이 있다.

스님과 공양주 할매의 알콩달콩 따뜻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한적하고 고요한 산사의 사계절 풍경과 더불어 이웃들의 소소한 나눔의 정을 담뿍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사람 사는 냄새 진하게 묻어나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는 읽는 재미를 주는 덤이고, '툐아보다' '졸가리' '잉걸불' '비루먹다' 와 같은 잊혀진 우리말은 비속어 판치는 요즘 세대에게 반갑고도 귀한 선물이다. 시인이자 스님인 저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만 가슴에 눈물이 차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잔잔히 차오른다고 한다.

산 속 작은 암자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일상은 잔잔한 수채화 같은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며 만남도 헤어짐도 흔하고 쉬운 현대인들에게 이 두 사람의 따뜻한 인연은 옛날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동화 같은 그림이다. 이 잔잔한 이야기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서려 집착하고,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소중한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깨닫게 한다. **김주일 기자**

발길 닿는 곳 수행처…허허당 스님 구법일기

길 위에 서라, 내가 보인다

허허당 지음 | 지혜나무 펴냄 | 1만 4500원



이름난 선화가(禪畵家)이자 길 위의 수행자인 허허당 스님. 그동안 다수의 책들을 펴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왼발은 뜨고 오른발은 닿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한다〉 〈그대 속눈썹에 걸린 세상〉 등이 바로 그 결실들이다.

이번 책은 일종의 여행서 성격을 많이 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행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아시아는 물론,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수행의 거처로 삼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참 '나' 를 만나면서 얻은 깨달음을 책 속에 담았다. 그 중 한 곳인 인도에서 저자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마치 간디처럼 마른 몸에 낡은 천 하나를 둘렀을 뿐인 인도 노인 비마와도 사막을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진정한 성인은 길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성인은 길의 성자다. 그들은 모두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자라고, 길에서 깨닫고, 길에서 설법을 하다, 마침내 길이 되었다."라고. 아무 것도 지니지 않은 채 길 위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몸과 마음의 두께들을 걷어 내는 저자의 체험과 깨달음은 읽는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준다. 그의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또한 참된 나를 돌아보고 가벼운 자유를 일깨워주는 '길' 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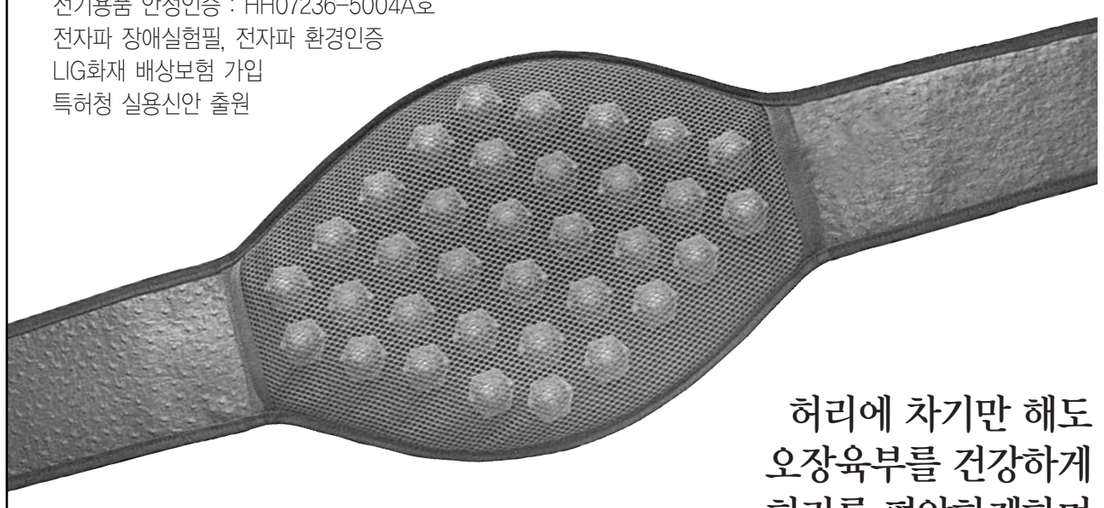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분별없는 이상향 '大同세상' 불교적 인식과 유사

불교로 읽는 古典

캉유웨이의 〈대동서(大同書)〉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이상향, 모두가 복되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향에 대한 스케치의 내용은 동서와 고금에 따라 다르다. 처해 있는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척점에 이상향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토마스 모어(1477~1535)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토마스 모어는 중세적 사회질서에서 근세적 사회질서로 막 옮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중세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중세에서 근세사회로의 전환기 사회에 살고 있었다. 그의 유토피아는 그러한 시대와 사회의 내부에 잉태되고 있던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반성이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그렇게 그려낸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이상국가 혹은 기독교 '천년지복설(千年至福說)'의 계승이자 변형이기도 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가 그려낸 이상향의 모습에는 그 이전의 유토피아론들과는 달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 아편전쟁 직후에 태어나 민국의 초기까지 중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이 중국의 정치사상가 역시 중국판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인물이다. 그의 이상세계에 대한 스케치를 담고 있는 〈대동서(大同書)〉는 그의 나이 불과 스물 일곱이었던 1884년에 처음 쓰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지면에 등장한 것은 1913년이다. 〈대동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간략하나마 그의 삶과 근대 중국의 역사를 언급하기로 하자.

1858년 3월, 광동성 남해현의 전통있는 집안에 태어난 캉유웨이는 어려서는 유학을 배운다. 그의 초년은 대단히 전통적이어서 25세에 과거시험에 낙방할 때까지는 그의 삶은 온통 유가의 정신으로 점철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과거시험에 낙방할 즈음의 그는 현실의 가혹함에 눈을 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불교와 도교는 물론 서양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진다. 〈대동서〉가 지면에 공개된 것은 먼 훗날인 1913년의 일이지만, 서문에 실린 그의 말대로라면 '대동세계(大同世界)'에 대한 그의 스케치는 이 시기의 다양한 탐색이 낳은 결과물일 것이다.

그는 이 즈음에 만목학당(萬木學堂)을 세우고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 등의 제자들에게 변법론을 가르치는 한편 여러 번 정부에 상소를 올려 개혁을 촉구한다. 그러한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 바로 1898년의 변법개혁이었다. 그러나 캉유웨이가 주역이 되고 탄쓰통(譚嗣同, 1866~1898) 등이 함께 참여했던 이 청 말의 정치적 실험은 서태후와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을 받으면서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이 실패 후, 캉유웨이는 영국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홍콩으로 피신했지만, 변법개혁에 함께 했던 탄쓰통이 불과 33세의 나이에 처형되는 등 개혁세력이 힘을 잃으면서 청나라는 역사의 저편으로 쓰러지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쑨원(孫文)을 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역시 위안스카이의 권력욕에 휘말려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되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서구 열강의 제물로 전락하게 된다. 캉유웨이의 〈대동서〉가 지면에 공개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내부의 부패와 외부 열강의 침탈이 점철되면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중국 더 정확히는 청나라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급격하게 중국인들의 삶이 아뜩한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을 구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중국판 유토피아 꿈꾼 캉유웨이
〈대동서〉에서 근대 이상향 그려

이상향 구현, 고통 극복에 있어
사회·제도적 모순이 고통 유발해
苦 직시·해결 '사성제' 방식 차용
治者 관점의 이상향 근원적 한계도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모습. 중국 근대 사상가인 캉유웨이는 질곡의 중국 근대사를 직접 겪으면서 중국판 이상향의 도래를 꿈꿨다. 그의 저서 〈대동서〉는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사상적 기반이 담겼다. 현실의 모순이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사상적 장치는 불교에 가깝지만 통치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쇠락해가는 청나라 말기를 살아야 했던 사회적 자정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 캉유웨이가 당면했던 현실이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서양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탐색의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던 캉유웨이의 지적 모험은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결과였고, '대동 세계'라는 유교적 이상향을 이름에서라도 찾고자 했던 그의 꿈은 그래서 다분히 복고적인 일면마저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그가 그려낸 대동 세계는 이름은 유교의 전통에서 가져온 것이었지만, 그 방법론적 장치와 궁극적인 지향은 불교로부터 이끌어낸 것이었다. 여기에 우리가 불교의 눈으로 그의 〈대동서〉를 다시 읽어야 할 필요가 주어진다.

〈대동서〉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유교적 이상세계인 대동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캉유웨이의 모색을 담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캉유웨이가 부딪혔던 현실의 모순이 부각되어 있다. 현실의 자각, 또는 현실에 대한 직시는 삶의 변혁에 근원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불교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획득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궁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캉유웨이가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는 자신의 관점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확연히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동서〉의 구성부터가 그러한데, 전체 10부 중에서 갑부(甲部)는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이라는 제목 아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을부(乙部)부터 신부(辛部)까지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마지막 계부(癸部)는 대동세계의 삶의 양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곧 불교 논서 일반의 고집멸도 사성제의 논의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캉유웨이는 현실의 괴로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 세계는 모두 우환뿐인 세상이고, 천하의 인간들은 모두 걱정에 싸여 있을 뿐이며, 이 세상의 뭇 생물들은 모두 죽어갈 것들뿐이다. 푸른 하늘 넓은 땅이 커다란 도살장이며, 커다란 감옥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이 글의 원문 인용은 이성애가 옮기고 을유문화사에서 출판한 〈대동서(大同書)〉에 의거하였다.)

그가 살아간 세상이 전환기–사실 역사의 전환기란 대부분의 피지배층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기대감만 남기는 시대이다–였던 만큼, 더군다나 중국이 전환의 주체가 아니라 전환의 객체였기 때문에 승자로서의 포식자가 아니라 패자로서 피식자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중국 인민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런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탐색결과를 다음의 아홉 가지의 차별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①국계(國界, 영토와 부락을 나눔) ②급계(級界, 신분의 귀천과 청탁(淸濁)을 나눔) ③종계(種界, 피부색으로 황인종 백인종, 갈색인종, 흑인종으로 나눔)④형계(形界, 남자와 여자를 나눔)⑤가계(家界, 부자와 부부, 형제의 친분을 사사롭게 함) ⑥업계(業界, 농업、공업、상업의 개인 산업을 둠) ⑦난계(亂界, 불평(不平)·불통(不通)·부동(不同)·불공(不公)한 법을 둠) ⑧유계(類界, 사람·새·동물·곤충·물고기 등의 구별이 있음) ⑨고계(苦界, 고통이 고통을 낳아 대대로 고통이 끝없이 유전되어 생각할 수도 없음)

캉유웨이는 가지가지의 분별하고 차별하는 양상들이 괴로움을 낳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근본원인 곧 탐·진·치 삼독을 분별/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괴로움의 소멸은 그러한 아홉 가지의 차별[九界]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달성되며, 그 차별을 없애는 과정은 사성제의 도성제 곧 팔정도에 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캉유웨이의 도성제 곧 아홉 가지 차별을 없애는 길은, 개인의 자각 곧 정견(正見)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의 그것과 궤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그의 차별을 없애는 길은 국가·계급·인종·남녀·가정·산업·난계(亂界)·유계(類界)·고계(苦界)의 소멸이라는 순서로 설파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인의 자각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인간 삶의 괴로움이라는 실존적 현실이 초래되는 원인과 그 원인의 소멸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흔히 개업(個業)과 공업(共業)의 문제를 말하곤 한다. 캉유웨이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아홉 가지의 차별과 아홉 가지 차별의 해소는 이 중에서 특히 공업(共業)에 치우쳐 있는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른바 제도화된 차별에 의해 인간세상의 괴로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제도화된 차별을 없앰으로써 인간 개개의 괴로움가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캉유웨이의 관점인 셈이다.

이 같은 생각은 캉유웨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존의 개인'으로서 인간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점은 불교가 괴로움이라는 현실에 부닥친 실존적 인간의 고뇌로부터 출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궤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의 삶이 관료로서의 입신양명에 바탕한 세상 다스리기를 꿈꾸는 유교적 입세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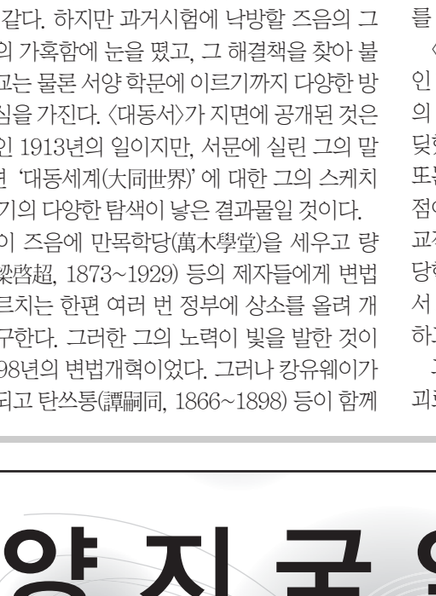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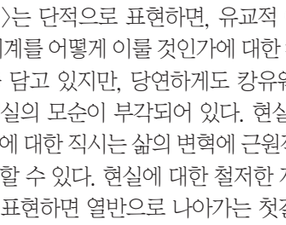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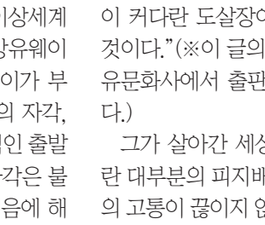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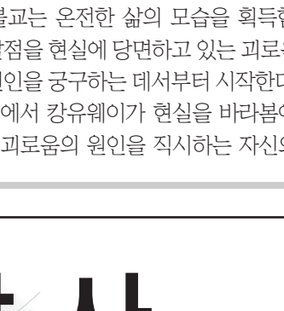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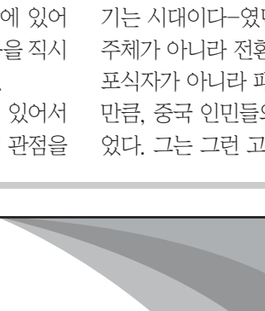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캉유웨이가 부딪친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은 자신 스스로 느끼고 체험한 삶의 현실로부터 오는 '괴롭다'라는 자각이 아니라, 치자(治者)로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백성의 괴로움이라는 피상적 현실이었던 것이 아닐까. 따라서 그가 꿈꾸었던 이상 세계 역시 치자(治者)의 통치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세상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등지는 사람을 도적으로 여기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를 없애는 것을 공(攻)이라 여긴다. 다른 일에 대해서도 사람은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지극히 어질지 못한 존재다"라는 캉유웨이의 지적은, 전통적으로 사(士)와 민(民)을 구분했던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관점의 한계를 보여준다. 곧 각종 제도적 차별이 초래하는 괴로움과 그 해소를 주장하면서, 막상 그 스스로는 치자(治者)로서 피치자(被治者)를 바라보는 분별/차별의 입장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가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 무술변법이 백일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서 오히려 더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그가 꿈꾸었던 대동의 이상세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역사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주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민중을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불교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능동적 주체로서 자각하는 이상세계를 그린다. 그리고 한 개인의 자각이 한 개인의 자각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의 자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 당면하는 현실 어디에서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참이어야만(隨處作主 立處皆眞) 삶이 온전히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캉유웨이가 그리고자 했던 대동 세계는 불자들이 그려내야 할 대동 세계에서는 일정 부분 유보적이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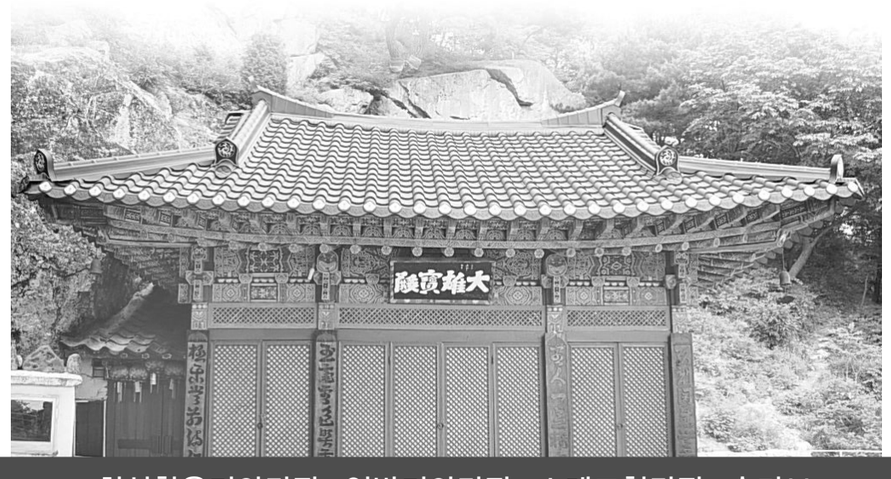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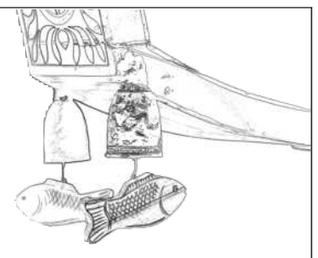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로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과 사는 아득하니 바른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3774-4099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아이 있어도 무관
* 가족처럼 계실 분만 연락바람
010-4587-1011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수원)
010-5269-930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50대)
여법하게 염불하실 분
031)471-6675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수능 상담 무료

가족의 기운을 받자
기적의 촛불기도
하루 3천원,
축원문 쓴 당일까지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041)544-4441
한학선원 (마루대절)

각종비법 지도

재택수업 가능
사암, 포교원 종도등록
창종 14년
저서 100여권. 동방진인
02)907-5858

장례식장 염불. 49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금 50만원. 불전소유
장례시 염불은 20만원
3분 초청
신분증, 주민등록사진
보증금 2천만원, 1년계약
070-8849-3011
사회적 상부상조 협업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일체 무상 보시해 드립니다
팔공산 어산 40년 전통전문의식
천도제(49제), 예수제,
기초교리강좌
법문, 회심곡, 방생법회,
바라, 승무
무릉선원
010-6577-8385
010-6513-0585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함께 할 종도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융평등 사상과 관음보살의 자비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담금 없는 종단 * 등록비 없는 종단
* 금전과 감투싸움 없는 종단
우리 정결게 수행하며 봉사하는 종도로 함께 합시다
불교통합조계종 054)439-46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로 415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3천년에 한번 핀다는 신비의 꽃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불사중인 스님,
사업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010-6707-6048
055)351-3302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 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02)766-9400

모 십 니 다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지역에 연고나
포교와 수행에 뜻이 있는
스님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대중포교에
큰 뜻이 계신 스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 모시는 나이 : 50세이상 60세까지
상담전화 02)552-4000

수강생 모집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다음에서
「 귀장술 원판 」 검색
특허 : 30-0721929

영 재 철 학 원
010-8558-2345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효사비결 2014

(효사할인천역집 제7판 육임 CD프로그램)
"뭐니 뭐니 해도 그거 하나면 끝나 데"
"자기만 아는 비밀한 사정들이 아예
다 써져 있는 거라!"
"들어서자마자 먼저 말하면 딱 딱 맞는거야"
"가지가지 귀신, 부정이 다 드러나고,
'방법' 까지 있어서 참 좋더라고"
– 기존 것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02)738-8680
고복자 효사
육임도서 · 운세 컨텐츠 · 육임CD프로그램 개발 전문
육임나라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309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요,
악 한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착함과 지혜라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토굴(급)안내
- 위치 : 김해 대동
- 총부지 : 60평
- 건물 : 방 3개
- 몽땅 : 7천 5백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 863-6661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건천IC 7분소요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 2억 8천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지적 4,460평 종교부지 838평, 전 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들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10억 5천
- 위치 : 강원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6억5천

※ 30년신용과,믿음으로 일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비밀보장>

*포천시 전망좋은 사찰양도
*건물 3동 340㎡ 법당, 요사, 공양간
*토지 2200㎡.산속이며 조용한 사찰
*양도금액 : 5억원(융자가능함) 실인수가 3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578㎡,, 전 274㎡, 건물30평(삼존불) 법당, 방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도 있음
- 가액:8,500만원(조절)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사정상 급양도(밀양IC근교)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010-3456-1153

기도도량 좋은터 암자

- 위치 :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2리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 신북온천, 허브랜드, 아도니스골프장 인접
- 대지 202평, 건평 33평, 큰방3, 화장실2, 심야보일러, 다용도 창고, 옥상 증축 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명당터
- 가액 : 1억 5천(가격절충)

010-5069-7054(주인직)

포교원 안내

- 위치: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A급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주불 아미, 관음, 지장, 소불, 인등
- 가액 : 전세 2천 월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비품대 및 시설비 1,700만원 약간절충

010-2553-882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상대시장 부근
- 4층 건물 중 3층 37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탱화
- 법당, 상담실, 공양간, 방 1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집기 시설및 비품 1500만원)

010-4112-0108

대형사찰부지(절터)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IC에서 5분거리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2층 목조 약 22평
- 칠성, 용왕, 산신조성,
- 지하철 5분, 조용한 사찰,
- 보시고결정
- 가액 : 1억 5천만원

051)255-32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2,000만원

010-4680-9322

수도권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평수: 2층 건물의 2층 80평
- 구조: 법당.대방3.주방거실. 욕실.화장실.가스보일러
- 서울근교 도심포교적지. 아파트주변.검단산 등산로입구
- 가액: 합9천만원.월130만원

010-9669-13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601-13번지
- 자연녹지 13,000㎡
- 청도군청 2분거리에 있고 최고의 조망권과 주택1동, 야외 음악당시설이 있습니다
- 가액 : 6억 1천만원

010-3596-040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3 잠실관광호텔 앞 • 50평
- 석가모니 후불 1,000불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들었으나 사정상 급 안내 3천만원 합 5,000만원

010-2225-2544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발안 신도시
- 종목 : 사찰 (건물 3동임)
- 대지 : 230평 이상
- 건평 : 요사채 1층 30평, 2층 법당 28평
- 별채 신축건물 25평
- 식당겸용 방2칸 15평 이상
- 심야보일러 뒤 야산 전망좋음
- 가액: 6억 3천만원

010-3058-566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암자 부지 안내

- 위치 : 문경읍 고요리 산 123-2
- 면적: 임야 694㎡(210평) 건물 시멘트 단층 주택 52.4㎡ (16평)
- 토지이용 :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역
- 가액 : 1억

010-8555-4480

사찰 토지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765
- 지목 : 전(관리지역) 1,014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 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처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절충가능) (융자 : 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 허가 가능

010-2002-10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변산반도 뒤로는 소나무 숲이며 앞으로는 저수지도 있음
- 총평수 130평
- 요사채, 법당, 종각, 접견실, 미륵부처님, 산신당
- 가액:1억 6천만원

010-6478-1569

사찰불사로(급)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5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가정법원 등기소 전철역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거리 1분에서 10분거리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

010-8941-1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1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역2길 12호 <물금역에서 2분거리>
- 건물 : 3층(3층건물) 옥상 50평 , 근린생활 시설
- 미타전:나무아미타불 2자반, 관세음 2자, 대세지 2자, 지장보살 입상, 대형 후불탱화, 별도 지장탱화
- 침실, 서재겸 큰방, 공양칸, 침대, 냉장고, 신장, 생필품 모두있음(책장외)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 40만 비품 800만

010-5693-7982

사찰로 좋은곳(한옥)

- 위치 : 홍천 → 양평 서울방향 4차선 6번국도 옆
- 대지: 800평, 사유지 1,000평 사용중,
- 건평: 약 100평, 순수 고건축한옥, 큰방1, 작은방2, 대형주방과 홀
- 가액 : 상담후(절충가능)
- 카톡으로 사진 전송 가능

010-8841-338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대지60평, 건평40평(2층건물)독채 시청,남부시장 걸어서 약5분,
- 삼존불, 소불, 연꽃크리스탈인등
- 신중탱화, 영가단, 법당연등설치
- 에어컨, 1.2층도시가스, 가스보일러 (시설비 일체무료로 드립니다)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도청 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사찰, 연수원, 예술공방 최적지
- 자연경관최고, 천평, 황토건물 50평 2층
- 경내 500년 큰나무, 연못조경 옆큰저수지
- 오래된 돌담, 국유지 200평
- 가액 : 9억(전세가능)

010-9805-552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 약 800평, 임야 :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심야전기 2,
- 삼존불, 소불, 108불, 신중칠성탱화, 집기일체양도
- 가액 : 일억삼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철 도보 3분거리
- 125평 3층
- 가액 : 2억 5천만원 (융자 9천8백만원)
- 승계가능

010-9150-863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토 굴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사과향기 그윽한 시골. 토굴양도
- 대지 - 326평(불사가능)
- 법당,요사채,삼존불,신중,칠성 각종집기
- 공부하시는스님, 방편하시는보살, 최적지
- 가액 : 6,500만원(절충가능) 정부지원 5,000만원가능

010-4296-82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약500평 양가옥 3채 법당
- 방2개, 큰주방1개,화장실2개 웃채 대웅전 30평 인법당 방4개. 화장실2개
- 주변경관산세수려
- 가액 : 2억 전세 3천만원

010-4628-3317
055)356-165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대구은행 옆
- 3층건물 3층 30평, 3존불,
- 수미단, 운각, 관음소불 108불, 16나한
- 가액 : 보증금 500 월30만원 시설비 2,700만원(시설완벽)

010-7740-600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 2층.. 공양간, 3층..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큰사찰(터)찾는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 실내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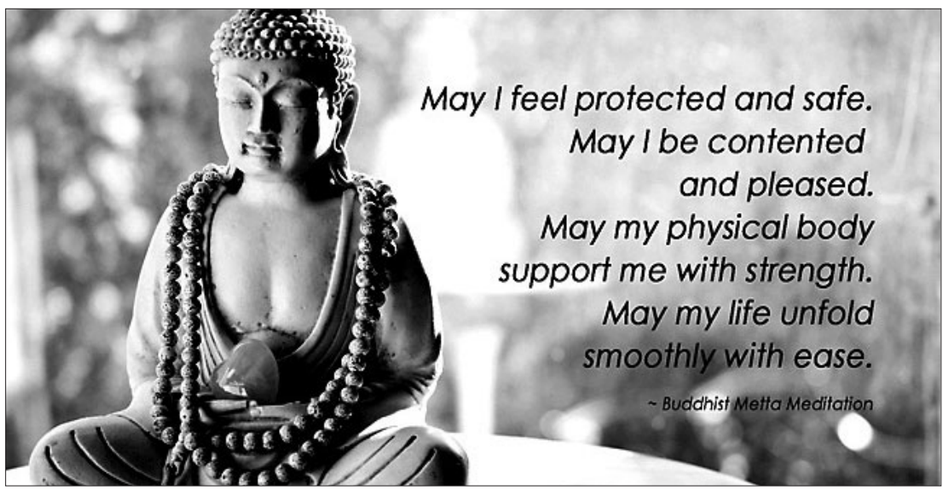
010-5685-2229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붓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3〉 숙고 · 자애 명상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하길…" 발원



아눗사띠…부처님 공덕 숙고 · 염불하는 것
사띠수행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오계 지키고 문제 발생시 계정혜로 해결
사무량심… 상대에 '자비희사' 마음 가져야
수직적 사고방식 수평적으로 변해

아눗사띠 10가지

그 다음 10가지 수행방법은 '아눗사띠(Anussati)'로써, 계속 상기 하고 거듭거듭 숙고하는 것입니다.

아눗사띠의 첫 번째 주제는 부처님의 9가지 공덕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떠한 행위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왜 그분을 공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염불(念佛: 붓다눗사띠)이란 반복된 읊조림이 아닌,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숙고하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어떤 점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천오백 개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공덕아라한에 대해 거듭거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환희심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양을 올릴 때 '잘못 올렸구나!' 하고 후회하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불선업이 될 만한 일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대부분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그럴듯하게 행위를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내면의 거친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밝은 이치의 법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도 매우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에 빠지는 것, 즉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거듭 숙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누구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정각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 1,450그램의 뇌를 가졌으며, 부처님께서는 절대자라든지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삼마 삼붓다', 즉 스스로 정각을 이루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아셨고, 구분해야 할 고(苦)의 진리와 그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고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분명하게 하셨으며, 소멸시키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트겹ㄹ한 지혜와 수행을 완전히 갖추셨습니다. 더 나아가 정당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곤경을 헤쳐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간을 분명하게 잘 아셔서 모든 사람에게 현 생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이렇게 9가지 부처님의 공덕 중 하나를 선택해 숙고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즉 담마의 공덕에 대해서 거듭 숙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가(승가, 僧伽)의 공덕에 대해서 거듭 숙고하는 것 입니다. 물론 삼보라고 했을 때의 상가는 성인의 경지인 수다원부터 아라한 과(果)를 말하며, 폭넓게 상가라고 했을 때는 사부대중을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듭 숙고해야 할 것은 계행입니다. 자신이 계율을 잘 지키면 얼마만큼 스스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가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숙고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지요?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단지 알고만 있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계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재가자라면 최소한 오계를 지켜야만 합니다. 계의 첫 번째는 살아 있는 것은 죽이지 않고(빠나 디빠따) 두 번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아딘나다나), 세 번째는 잘못된 성관계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까메수 밋차짜라),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무사와다), 다섯 번째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수라메라야 맛자빠마닷타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처님의 팔만 사천 가르침은 계 · 정 · 혜로 모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흔히 말하듯 다른 이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해결합니까? 자신의 지위, 나이, 성별로 아니면 그 무엇으로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작고 급한 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계 · 정 · 혜로써 해결하고자 해야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스님들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계(戒)를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스님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 스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삼보에 귀의하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반듯하게 절을 하고 있는 지금 몇 번 절을 하고 있는지 알고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은 정(定)으로써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을 할 때 몸의 움직임을 마음이 알아차려 팔이 '굽혀지고 있구나. 펴지고 있구 나',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급하구나. 평온하구나. 고요하구나' 를 알아차리며 몸-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절하는 것은 지혜(慧)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절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 · 정 · 혜로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은 계 · 정 · 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음식을 고마움으로 먹는 것은 계(戒)로써 먹는 것입니다. 몸을 아름답게 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정(定)으로써 먹는 것입니다. 팔을 굽히고, 음식의 맛을 알고, 맛에 따라서 감정이 반응하고 또한, 움직임이 있기 전에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의도함을 가지면서 먹는 것은 지혜(慧)로써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행의 첫 단추가 되고, 첫걸음이 되고, 첫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 계입니다. 이 계를 지키지 못하면, 즉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이 안정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하고, 고요해지지 못하면 집중을 얻지 못합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지혜(빤냐)가 생겨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에 대해서 거듭거듭 숙고하여 떠올리십시오.

다섯 번째, 짜가눗사띠(Caganussati), 즉 베풂, 보시에 대해서 반복 사마타 수행하여 숙고해야 합니다. 베풂을 하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익이 생깁니다. 먼저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받기만을 바랍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도 얻고자 합니다. 종교를 갖고서도, 불교공부하면서도 얻으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얻기보다 잘못된 것을 먼저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얻을 것은 실은 없습니다. 베풂을 하고, 보시하면 우선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더불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성냄입니다.

이 성냄은 탐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면 탐욕이 10㎝일 때 베풂이 없는 상태라면 성냄은 10㎝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탐욕이 50㎝일 때 베풂이 없는 상태라면 역시 성냄은 50㎝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푼다면 탐욕은 줄어들게 되고, 탐욕이 적으면 성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베푸는 일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지요?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베풀지를 못합니다.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아까워서 쌓아만 두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던가요? 몸과 마음이 매우 가볍고 기쁘지요. 왜? 잘못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선한 마음 상태가 되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선업을 지키려는 힘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현생에서, 즉 욕계 세상에서(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계欲界임) 선업을 잘 쌓아 천인으로 태어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죽을 수 있다' 고 숙고하게 됐을 때, 죽음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자녀 계획을 세울 때 청사진만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죽음도 포함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의 몸을 서른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내장, 위, 담, 오줌, 피…. 이렇게 서른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숨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띠(sati)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열 번째, 모든 번뇌가 끊어진 닙바나의 공덕을 대상으로 하는 '우빠사마누삿띠' 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짐이 모두 소멸된 상태를 여러분이 거듭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 가지에 대해 여러분은 거듭 숙고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에다 이 열 가지를 포함하면 모두 30가지입니다.

사무량심 4가지

그 다음 네 가지는 사무량심(브라흐마위하라)입니다.

사무량심의 첫 번째가 멧따(Metta), 즉 자애입니다. 자애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도 싫어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도 원할 것이라고 이해해, 내가 싫은 것은 상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똑같이 상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거듭 상대가 괴로움, 고통, 적대감에서 벗어나고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자애입니다. 이 자애를 지녔을 때,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수평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가루나(Karuna), 즉 연민, 동정입니다. 이때 연민과 자애의 마음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애를 지니려면 실은 이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자애가 일차적으로 완성되려면 초선정에 들어야만 합니다. 초선에 들어야만 순수한 자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지요. 즉 이 자애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다섯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힘이 있어야 자애의 순수한 힘이 생겨납니다. 다섯 가지 장애요인의 첫 번째는 감각적인 욕망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나쁜 생각,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무기력이나 나태, 네 번째는 후회, 불안감이고, 다섯 번째는 회의인데, 이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할 힘이 있어야만 자애가 있게 됩니다.

이 자애의 마음보다 좀 더 부드럽고 포용성을 가진 마음이 연민과 동정의 마음(가루나)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환자의 몸에서 불필요한 부위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끌리지 않고 단지 동정의 마음에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것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연민보다 좀 더 넓으며 수용력이 있고 섬세하고 강한 마음을 '무디따' 라고 합니다. 무디따는 상대의 잘 된일을 마치 내 기쁨처럼 똑같은 기쁨이 일어나는 높은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애의 마음도 부족하고, 연민의 마음도 부족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잘 됨에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던가요? 분명 이득이 됩니다. 한국이 잘 살면 이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른 나라가 잘 살면 이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이득이 되듯이, 다른 사람이 잘 됨에 대해서 기뻐함이 일어나는 마음이 무디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이 '평정심(우?카)' 입니다. 세속의 여덟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팔풍(八風 : 이득-손해 / 명성-악명 / 칭찬-비방 / 즐거움-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기건 지건, 명예든 불명예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팔풍에 대해서 좋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싫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고,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 갖는 것이 평정심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넓히고 깊이 하는 것이 사무량심(四無量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누구나 계발하면 계발할수록 점점 더 무한히 커질 수 있으므로 사무량심이라 부릅니다. 자애의 마음은 네 가지 마음 중 가장 거친 마음입니다. 이 자애의 마음보다 연민의 마음은 좀 더 부드럽고, 연민의 마음보다 무디따, 즉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더욱 섬세하고, 평정심은 미세하고 매우 섬세한 마음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붓다락키따 스님이 법문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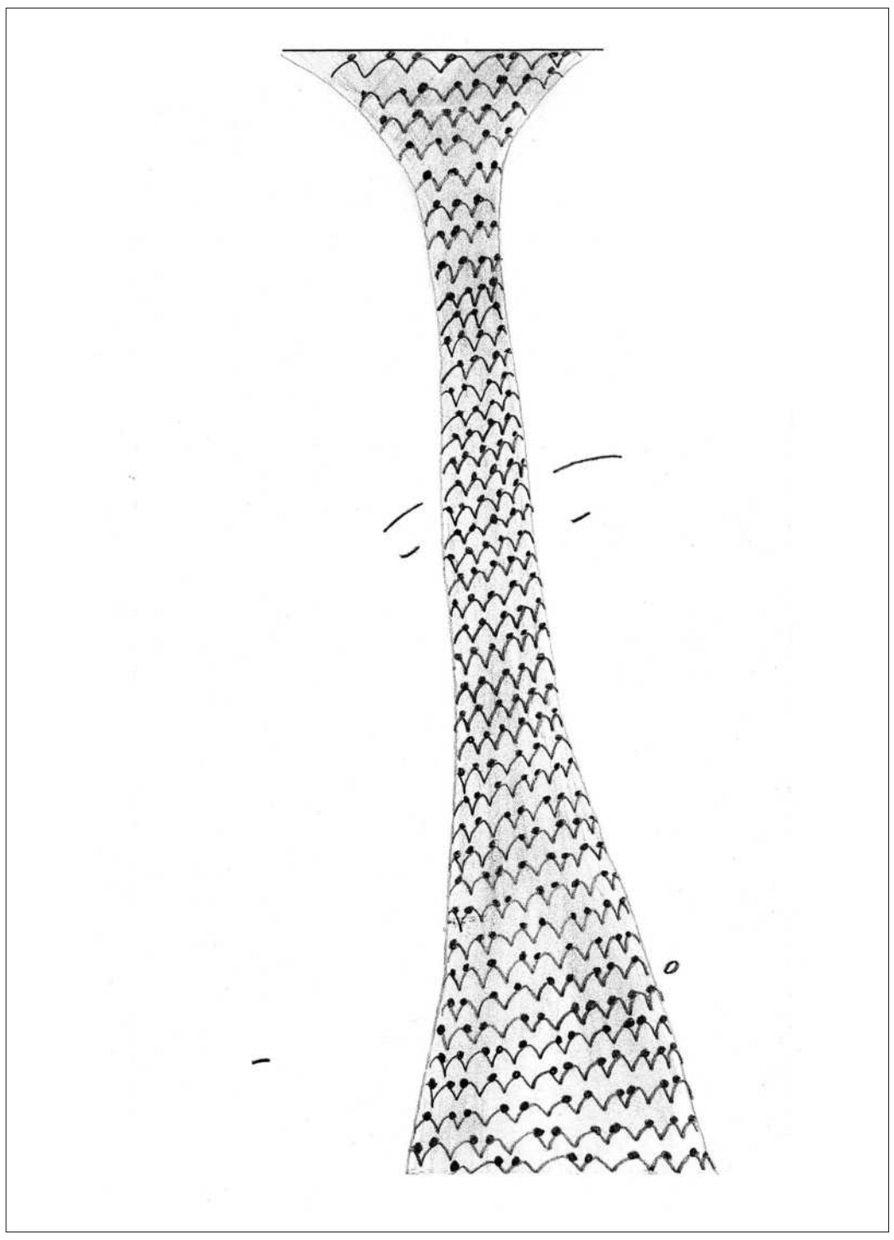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갤러리 색즉시공



바로 너니라

어떤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 주고자 하나
네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화상의 정성스러운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니라!!"

그림·글 희상 스님

내 인생의 신장, 남편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나는 김장 김치 하나를 담아도 한겨울에 먹을 감치와 초봄에 먹을 김치를 따로 담아 항아리에 이름을 붙이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일일이 담을 정도로 나 나름대로는 살림에 정성을 쏟는 편이다. 그러나 그런 정성들이 단순히 일로만 그치고 말았다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살림이 명상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돈벌이로 생각하면 '돈벌이' 일 수도 있는 것이고, 노동으로 생각하면 '노동' 일 수도 있다. 수행을 통해 '나' 라는 본성을 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 일들을 하는 동안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살림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도반이고, 스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장님이란 생각이 든다.

남편으로 인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으니 무엇보다 고마운 인연이고 앞으로 나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을 남자친구이니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작년에 틱낫한 스님이 방한하셨을 때 아들과 떡을 가지고 월정사까지 와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수행 잘하라고 격려하고 돌아간 고마운 남편이다.

불교를 만나기 전 살림을 하면서 붓글씨, 동양자수, 다도 등 규방의 솜씨를 익힐 수 있었던 것도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나에게 가져다준 월급봉투 덕분이었으니, 그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늘 감사하며 산다. 남편이 월급을 타오면 조금 떼어내어 봉투에 넣어 조상님 앞에 올렸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살았고, 특별한 시집살이가 없었기에 나만의 세계를 누릴 수 있었다. 모두 남편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스물네 살 때 지금 평생도반으로 사는 남편과 만나 혼인했다. 남편은 내 직장 친구의 나이 많은 조카였다. 직장 친구가 조그마한 계모임을 주선했는데, 그 친구가 조카에게 계를 들 것을 권유해서 남편이 같은 계원이 되었다. 친구가 남편에게 곗돈을 받으러 다방에 가면 같이 가서는, 나는 다른 장소에 앉아 있고, 친구는 조카와 얘기하고 돈을 받아 오곤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카가 너를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키가 작으니 작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몸집이 아담한 한 친구를 소개했더니 다시는 더 만나지 않았다. 나중에 왜 다시 만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다방에서 나오자마자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 후 남편이 친구에게 정식으로 나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친구가 나에게 의사를 물어왔다.

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바로 어머니와 의논했다. 그 말은 들은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주를 보신 모양이었다. 좋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났는데 하루는 남편이 "정한 데 없으면 나한테 와주면, 호위호식은 못해줘도 밥 세끼는 먹여주겠다."고 했다. 엄마한테 그대로 말했더니 "나이 먹은 사람이라 말은 잘하네." 하셨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지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고모부를 보내 남편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 고모부가 보시고 하는 말씀이 "집안에서는 우리 란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네가 란이를 데려가니까 더 똑똑한 사람일세." 하셨다. 아버지께서도 고모부의 말씀을 전해 듣고 흡족해하셨다.

살림하면서도 '공부' 할 수 있어
남편의 '과음' 싫기만 했는데
'지난날' 알고 나니 큰마음 생겨

남편은 내가 아이를 가지기 전, 자주 나를 데리고 여주의 신륵사에 가곤 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신륵사는 남편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위폐를 모셨던 연유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절에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내가 아이를 갖고 난 후 붓글씨 공부를 할 때 곁에서 화선지를 잘라주고 먹을 갈아 주며 채본에 날짜를 적어주었다. 차를 마시며 옆에서 먹을 갈아주던 순간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위한 태교의 시간이 되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햄버거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가지고 들어왔고, 외출했다가 늦으면 정류장에 포대기를 갖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일도 있었다. 나에겐 아름다운 기억들이다.

남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술을 좀 과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점 때문에 나를 닦을 수 있었으니 그것도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든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시간에 나는 붓글씨를 썼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자는 시간에 수를 놓고 사경을 했다. 염불하면서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그토록 술을 먹은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칠십이 넘은 최근 수술 전까지 술을 마실 만큼 애주가인데, 술을 마시면 통일노래를 불렀다. 시아버님이 납북을 당한 탓이다. 시아버님은 양정고등학교를 나오고 인품이 좋으셨으며 금강산에서 스키를 타실만큼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깊었던 그는 "아버지가 간첩으로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술을 좋아하는 것도 그의 지난날을 이해하다 보니 편하게 받아들여졌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힘들었던 그의 지난날은 그의 깊은 트라우마였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통일노래를 부르곤 했다.

하루는 남편이 흐느껴 울도 있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것이다. 나도 울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프면 남자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겠는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내가 어떻게 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길 밖에 없었다.

남편이 울면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울어?"
"당신이 울어서 울어요."

그에게도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과 홀로 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하면 아이를 업고 나가서 기다렸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매번 통일노래를 부르고 말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런 세월이 쌓여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지금도 남편이 처연하게 불렀던 '통일 노래' 가 가끔 늙은 그의 등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다.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군대에 갔을 때 돌아가셔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하니 이래저래 외로운 사람이다.

최근 이산가족 찾기에 신청을 해놓았다고 한다. 고향에 가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셨을 아버지의 행적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요즘은 그 일로 바쁘다.

상대방의 지난날을 이해하면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면 미움보다는 사랑이 생긴다. 기도를 해보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도는 내가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지장보살 기도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원력을 가진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일이 이뤄지듯, 부처를 부르면 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술을 "마셔라, 마라"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엔 남편이 술을 먹는 것이 그렇게 미웠는데, 큰 수술 후 술을 마시지 못 하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남편은 20여 년 동안, 집에서 가정법회를 할 때도 좋다 싫다 말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뒷바라지해주었고, 내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걱정해주고 보살펴주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다.

요즘 우리 부부는 한 달에 한번 여행도 할 겸 남편과 함께 문경 관음사로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간다. 오는 길에는 맛있는 밥도 사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낸다. 노년을 함께 도반처럼 지내며 함께 마음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좋은 평생도반으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 고맙기만 하다.

〈여여원 원장〉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무료배송 66%

엡손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전시상품 절대 아님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
입금계좌: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대행 스님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죽고 살고도 없다

이렇게 형제 법우님들하고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도 벌써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으로부터, 그 작용으로부터 발전을 시키고 이 세상을 조절해 나가는 바로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이 세계를 다 조절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유지시키고 개발시키고 좀 더 평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 하나 잘 먹지 못하면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과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낳게 되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그런다면 뭐 남는 게 있어서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체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불교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을 가진 '불(佛)'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교(敎)'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교 아님이 없고 만물만생이 다 불교 아닌 게 없어서 그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 위에서 한 소나무를 만났는데, 어저께 만난 거 따로 있고 오늘 만난 거 따로 있지마는 만나는 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듯이….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체 보면 보는 대로 둘이 아님으로써 네가 있고 내가 있지만 마음은 이심전심,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걸 모른다면 내 집이 빈집이 돼서 그 에너지를 뺏긴다고도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밑지고 사는 분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비었으면 항상 에너지를 뺏기고, 뺏기기 때문에 내 몸이 쉬 망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떳떳하지 못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집안은 화목하지가 못하고, 뿌리가 성성하지를 못하니 가지와 잎, 즉 가족이 다 성성하지 못하죠.

불법이라는 거, 이 불교라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일으키는 것이 법이요, 불은 바로 영원한 자기의 불성을 말하니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 근본은 능력이 있는 거고, 법은 생각을 내면 생산해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겁니다.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지, 생각이 없다면 무슨 사람입니까?



그림 · 최주현

바로 이 세상, 우주 전체는 모두 에너지 자체가 들고 나고 쓰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건 왜냐?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긁어모아서 자기 한마음 속에 전부 넣고, 한마음이라는 그 그릇도 없는데다가 그냥 다 넣어 버렸으니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에너지를 다 넣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생각을 내면 법바퀴거든요, 그게. 법이란 바로 생각을 내면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별성과 같습니다. 인간도 그 몸이 헤져서 망가지면,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듯이 별성도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옷 벗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불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火)로 원점으로 가고, 물(水)로 원점으로 가고, 바람(風)으로 원점으로 가고, 흙(地)으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없고, 다시 생산해서 그 옷이 다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헌쇠를 넣으면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금도 그냥 닳고 조각난 것을 갖다가 다시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시 탄생시키지만, 금으로 그대로 있듯이 우리 불성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원(圓), (손으로 큰 원을 그려 보이시고) 불바퀴로 하나로 돼 버리죠. 하나로 돼 버려서 법바퀴에 에너지가 배출이 되면서 거기서 내 마음대로 생산이 다시 되죠.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모습, 물질적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 물질적인 '나'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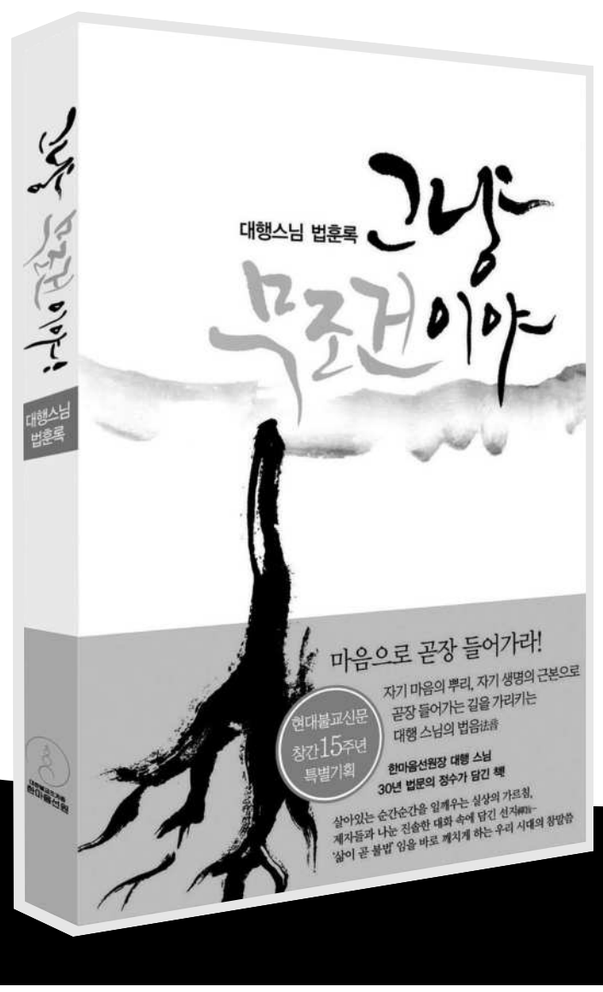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영혼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줄 알고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되풀이하지마는 이 몸속에 있는 그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쫙 깔려서 자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 마음 자체를 비워라, 비워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에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내쉬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나서 들이쉬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또 '부처가 어딨느냐? 그 생명 근본이 어딨느냐?' 한다면 우리의 들이고 내는 작용 가운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것을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들이고 내는 그 작용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할 때는 들이고 내고 한다는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없이 대답을 하는 그런 습관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발현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했죠. '내가 들어가는 게 옳으냐 나가는 게 옳으냐. 들이는 게 옳으냐 내는 게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식과 관습이 죽어서도 남아 가지고는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게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에는 뭐냐? 그 고생을 하면서 장만해 놓은 내 집, 내 가정, 내 재산이 있다는 의식과, 내가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은 갔어도 마음은 그대로 거기 있으니, 살아서 몸뚱이를 가지고 참섭을 해도 참 귀찮을 노릇인데, 이건 보이지도 않는 데서 집집마다 일일이 참섭을 하고 돌아다니니 이거는 못할 짓이다 이거죠, 자식들이. 그게 자기 이세인데, 그 이세인 자기를 자기가 아니라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관습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떠나려고 해도, 집안 재산과 자식들과 가정에 대해 착을 모두 떼었는데도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 도리를 몰라요. 내 몸의 중생을 제도 못했어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나오는 대로 되말겨 놓아야 훌렁 벗어날 수 있어요

☞ 29면에서 계속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인과로써 생긴 악업 선업을 그냥 녹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아, 죽었는데 말입니다. 아! 떠억 나서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림자처럼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서 앞을 막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그 도리를 살아 있을 때 몰랐기 때문에 죽은 뒤에 그것들이 모두 나타난 거죠. 야, 하다못해 똥을 봐도 똥 묻으면 어쩌나 하고 가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색색(色色)으로 참,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들이 질경이같이 그냥 벌어져 있으니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과로써 인연을 가진 사람은 머리 풀어 산발을 하고 그냥 귀신처럼 들이덤비죠? 눈 없는 게 들이덤비지, 팔 없는 게 들이덤비지…. 온통 과거에 산 대로, 자기가 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냥 인연이 되어 가지고 내 몸속에 다 있으니, 지금 모습은 다 그냥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아, 그 인연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는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딜 갑니까? 그걸 훌렁 벗어 버려야 자유인데, 훌렁 벗어 버리지를 못해서 아주 배어 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산을 넘어간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들을 넘어간들 안 쫓아다니겠습니까? 한바퀴 돌아서 이 세상에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똑같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무(無)의 세계에서도 보이질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없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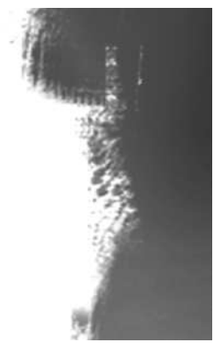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지금 정보실에서 정보원들이 정보국장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를 감시한다고 합시다. 도솔천에서 감시를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아예 입력이 돼서 항상 통신이 되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니 몇 생을 돌아가도, 오백 생을 돌아가도 뭐, 꼼짝없이 꼭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시라 맡겨 놓으시라,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되맡겨 놓으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일체 만법을 다 작용하면서 나를 이끌었으니 난 심부름만 했지, 내가 주인이 돼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거니까 주인이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놔야 그것이 몽땅 벗어지는데, 이건 만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 그러니 과거에 짊어져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도 죽겠는데 또 미래에 나올 것을 연방 입력을 해 넣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입력이 되니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게 몽땅 지워져서 정보원에서 컴퓨터에 넣어 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훌랑 벗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안다면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뿐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꾸 보고 듣고, 듣고 듣고, 보고 보고, 가고 오고, 만나고 그러는 게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공해 버렸으니까 그것을 알면, 마음으로 알면 누적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듯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치않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세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이 없이 현실 속에서 참나를 완전히 알기만 한다면, 세상을 모두 감지하고 조절해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딴말 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면 목이 말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으니까요.



관습으로 인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입력돼서 컴퓨터에 나오니까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립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비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에너지를 넣을 수도 없고 기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다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건강하게 잘할 거 아니야?' 하고 한생각만 그렇게 해도 에너지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기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 병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을 수가 없듯이….

그래서 얘긴데, 이제 이 말 끝나면 여러분이 또 나한테 튕겨 주셔야 돼요. 허허허…. 그래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고 어디 먼 데로 도망을 가려고 해도 꼭 잡힙니다. 잡혀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 모습을 아무거나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행동한 대로. 그러니까 여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맡겨 놓고 믿고, '모든 거를 들이고 내는 것이 거기다.' 하고서 믿고 맡겨야 그게 벗어진단 말입니다.

또 그게 벗어졌어도 만약에 그게 찌그럭지라도 조금 남았으면, 나라는 게 남고 그 관습이 그냥 남았다면 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물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있나. 그러니 영혼이 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이 만약에 배를 기다린다 한다면, 오백 생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 언덕을 넘어, 강을 건너서 만나리. 넘어서면 영원한 밝음이 있으리." 하고, '아제아제바라아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려면 '지수화풍,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니로구나.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둘이 아니로구나.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생각 끄떡하면 건널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알고 있는 것은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니라. 그러니 생시에 알고 있다면 꿈에도 알고 있는 거고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한생각을 하면 그냥 강도 들도 따로 없느니라. 아무리 높은 산이든 낮은 들이든 깊은 강물이든 불 속이든, 어디에 타 죽는 것도 없고 빠져 죽는 것도 없고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또 강을 못 건너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우주 전체 모든 물질이 불성입니다. 별성도 불성이요, 우리 인간도 불성입니다. 불성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블랙홀이라고 그러고 불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데 어우러져서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정해 놓는 데 따라서 유성이나 행성이나 조그마한 거, 조금 큰 거, 좀 더 큰 거, 아주 큰 거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쪼개지면서 분배되면서 분류되면서 분신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 노릇을 못하고 문지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만날 떠돌면서도 심부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그냥 떠도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지. 호텔에 가면 문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 바깥에서 문지기 노릇을 합니다, 사람들 모두 안내하고. 이런 거와 같이 불바퀴를 보면 타 죽을까봐 그 소용돌이 속을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 맛을 못 보는 거지요. 영원한 밝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뭐, 죽고 살고가 없지요, 자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날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그 마음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마음인데, 왜 마음이라고 지었을까? 너무 불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니 어떻게 마음이라고 안 짓습니까! 불성은 불성이요, 마음은 마음이지. 불성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된 생명의 근본이지만 그 생명의 근본이 있으니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내는 것이 생산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 법이죠. 불성과 법이, 불과 법이 둘입니까, 어디?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으면 몸을 움죽거릴 수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습으로 인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입력이 돼서 컴퓨터에 나오니까 안 된다.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다. 그냥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붙잡아다 자기 한 것대로 일을 시키니까 안 된다.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을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립니다. 우리 몸뚱이가 창살 속에 갇히면 꼼짝 못하듯, 이 마음의 그 영혼도 갇히면 꼼짝없어요, 모르니까요. 자기가 지금 물질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잡혀 있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내가요, 내려앉자고 그런 것은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거지, 내가 무슨 위라 그래서 위가 아니고 아래라 그래서 아래가 아닙니다. 안 보인다 그래서 위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뭐 높아서 여기 앉았겠습니까? 높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같이, 나도 실험을 예전부터 무수하게 해 왔고 지금도 실천을 하고 갑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몸뚱이, 고깃덩어리만 봐서도 아니 됩니다. 예전의 일체 선사들, 일체 부처님이 다 어떠한 노릇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지금 말만 듣고 이렇게 올 뿐이지 여러분이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도리를 배우게 되면 아주 선지로서, 일체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대치를 해 나가고, 칠보활궁공법(七寶活宮空法)으로써 마음을 내서 보배로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저런 혹성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재미있는 일들도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지금 말을 한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모두를 부처님께서 하시듯이, 종지가 원한다면 내가 종지가 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죠. 이 도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빨리 알아들으시리라고 봅니다. 내 마음 하나에, 즉 말하자면 블랙홀 안에서 나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 에너지도 배출이 되지만 내 마음의 영원한 그 근본 '불'이라는 것이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작용을 무수하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우리네 지금 숨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입니다, 법바퀴.

그래서 이 불바퀴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배출이 되면 또 생산이 되고 그럽니다. 두 부부가 생산을 안 해냈다면, 움죽거리지 않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생산을 안 해냈다면 여러분 자손이 어디 나왔겠습니까, 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별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성에서는 불바퀴에서 배출되는 에너지가 자력에 의해 저절로 가서 틀림없이 한데 합쳐진단 말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로서 그게 아주 거대하게…. 그러니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게 지금 조절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체가 없는 마음이, 별성들이 와르르르 일어났다 하면 그 불바퀴가 얼마나 팽창될 것입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8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불자 세상보기

日 산케이 신문 왜곡 보도 한일관계 악화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민족에게 있어 8월은 광복과 해방을 기리는 찬란한 축복의 달이다. 그런데 "보도내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그러하듯 참으로 민망스럽고, 황당한 기사가 우리의 8월을 어지럽히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 신문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된 기사이다. 이 기사를 두고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항의하고 있고 일본 측은 '보도 자유의 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나저나 그동안 불편하게 꼬여 왔던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새삼 '믿음'이라는 문제를 새삼 생각하게 만든다. 생뚱맞게 여기에 무슨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가? 인간의 삶은 다양한 믿음의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흔히 사회적 존재라 칭하고 있다. 바로 사회적 존재는 믿음의 구조와 기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창간이래. 일본민족주의라는 폐쇄적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그 논조를 계속 펴오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믿음의 체계이다. 산케이는 이러한 믿음의 틀 위에서 일본군에 의해 30만이 죽임을 당한 중국의 난징대학살 사건을 날조된 사건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위안부"라고 비꼬는 기사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일부 개신교의 광신자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귀중한 불교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것이 여러 심리실험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은 믿음의 왜곡과 믿음의 폭력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과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슨 반면교사? 여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 상황도 '믿음의 갈등과 폐쇄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

폐쇄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왜곡된 믿음의 폭력성 표출
한국사회도 반면교사 삼아야

리 사회도 믿는 대로 보이는 '믿음의 마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믿음은 종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불교에서도 믿음은 제일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흔히 깨달음의 종교로 칭해지지만 불교 신자가 되는 첫 걸음은 믿음이다. 붓다를 믿지 않고,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을 믿지 않고 어찌 불교가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불교는 믿음의 마술로부터 벗어난 종교이다. 불교의 믿음은 숭배나 찬양에 그치지 않고 수행 정진하여 근원적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즉 '열린 주체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 의심하는 '간화선'이 불교 수행의 큰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화쟁의 길'로 가는 길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광장을 만들 때 화쟁의 길이 가능한 것이리라.

아쉬운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을 너무 존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7시간의 동선을 밝히는 것도 무례로 생각한 것인지?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계 시민으로부터 열렬히 환호 받는 것은 '낮은 데로 임하는 자세'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한다면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 같은 것은 결코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니라. 하심(下心)이라 낮은 데로 임하소서.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입법 회기였던 제199차 임시회가 8월 12일 열렸다.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종헌 개정안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이기도 했다. 회의 결과는 참담했다. 종헌 개정안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진입을 명시한 종헌 개정은 큰 표차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실망크지만 종헌개정 끝까지 노력할 것"



일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진입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입장에서 일단 종도들을 뵐 면목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관심도도 높았고 내심 기대도 했는데 끝내 이렇게 돼 버렸다. 공청회도 열고 여론도 수렴하며 4년 동안 피땀흘려 마련한 법안들이 몇 사람의 반대로 저지됐다.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노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심경이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비구니 스님들을 비구니가 갈마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중 살림을 살다보면 일부 비구니 스님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종회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이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호계위원 참여를 주장했던 것이다. 비구 스님들의 명예나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비구니 스님 2명을 호계위원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갈마 범위를 비구스님들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됐다. 함께 종단을 평등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였는데 문호를 열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느낀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종헌 개정을 위해 원로 스님들과 다른 비구 스님들을 찾아뵈었을 때는 호의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62명 중 21명이 반대를 했다는 개표 결과는 충격이었다. 반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실망이 크다.

종단발전을 위해서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더 많은 대립과 소모전을 일으킬 뿐이다.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진입이 종단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회적으로는 명실공히 양성평등시대지만 아직 한국 불교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16대 종회에서 다시한번 차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 대다수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다.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소통법을 연구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다.

"종단 내 남녀평등 실현이 급선무"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8월 12일 조계종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비구니승가의 법규위원 · 호계위원 참여와 관련된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교계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가 비롯된 데에는 비구와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는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종교적 보수성을 감안해 계율을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입장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수적인 종교계에서 그것도 계율로 이 부분을 접근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고 수행자로 받아들인 정신으로 '참종권 확대'가 아닌 '평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스님들의 노동을 금지한 계율을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청규라는 방편으로 해결한 것과 같은 혜안이 요구된다.

불교계는 2500년 전 만들어진 계율을 현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법의 정신에 입각해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종헌개정안 부결문제도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차별 문제를 열린 각도에서 현대사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승단에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숱하게 볼 수 있다.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스님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유마경〉에서는 남성, 여성의 몸은 한낱 모습일 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계율 문제는 진보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고 수행자로 받아들인 것은 불교가 최초다.

이처럼 앞서가는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종단 내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社說

마무리 부족했던 15대 중앙종회

지난 2010년 출범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가 8월 12일 열린 제199차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종회였던 만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오는 10월 16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2개월 여의 시간이 있지만 입법 회기를 모두 마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15대 중앙종회는 열리지 않는다.

제15대 중앙종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산중총회법 등 종단 1차 쇄신입법들을 대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승가의 청정성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시된 총무원의 쇄신 법안을 중앙종회가 입법화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다. 또한 활발해진 종책질의도 이전 중앙종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종회의원 출석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다양한 입법 성과에도 승려법, 교구법,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방법 등 종단 선거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옥의 티'이기도 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위한 법규위원과 초심호계위원의 진입이 무산된 것은 비구 스님 중심의 종단 풍토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 종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막상 표결로 들어가니 입장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분명 제15대 중앙종회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그 마무리에서 사부대중은 종단 구태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부경대 불교 동문회의 후배 사랑

취업난 등으로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고사 위기에 있다. 회원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다. 바로 부산 부경대 불교동아리 같은 곳이 꿋꿋이 건재하고 있어서다. 성공 비결은 평범했다. 선배 동문들이 앞장서 후배들을 이끌어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시켰다.

부경대 불교학생회에는 현재 약 5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얼핏 들으면 큰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 동아리 대비 결코 뒤지지 않는 숫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현재 대불련 부산지부 회장을 맡는 등 부산지역 불교학생회의 구심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부경대는 국립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 두 대학이 1996년 통합돼 탄생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도 대연 · 용당 등 두 곳으로 나눠져 있다. 비록 캠퍼스는 따로 있지만 부경대 불교학생회는 양쪽 캠퍼스별 불교학생회장을 각각 두고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선배들의 지원이 얼마나 지극하길래 타대학은 힘들다는 불교동아리가 되살아나는 것일까. 부경대 불교동문회에서는 동문회 관련 각종 모임과 행사에 재학생들을 적극 동참 시킨다. 그래서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여기서 맺어진 끈끈한 관계는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지속된다. 이러다보니 선배들의 후배 사랑은 경제적 지원으로까지 이어진다.

매년 200~3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지원. 학생회 MT지원,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 심지어 올 여름 제주도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워크샵에는 선배들이 십시일반 비행기표 값을 지원해 재학생 14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원래 동문조직도 양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며 두 개였지만 2000년 봉축을 계기로 하나로 합 합쳤다. 역시 한마음으로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한다. 통합을 계기로 후배들을 이끌자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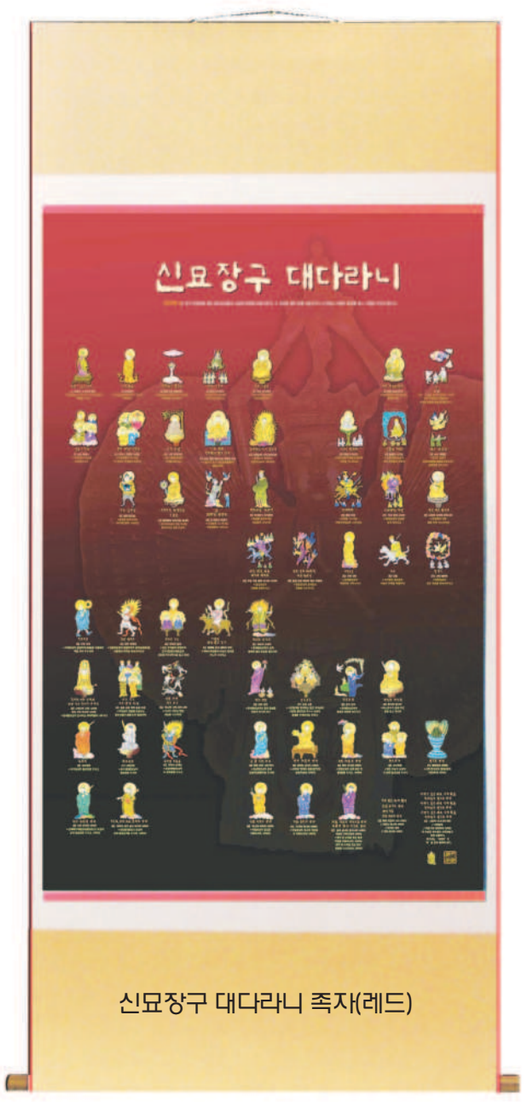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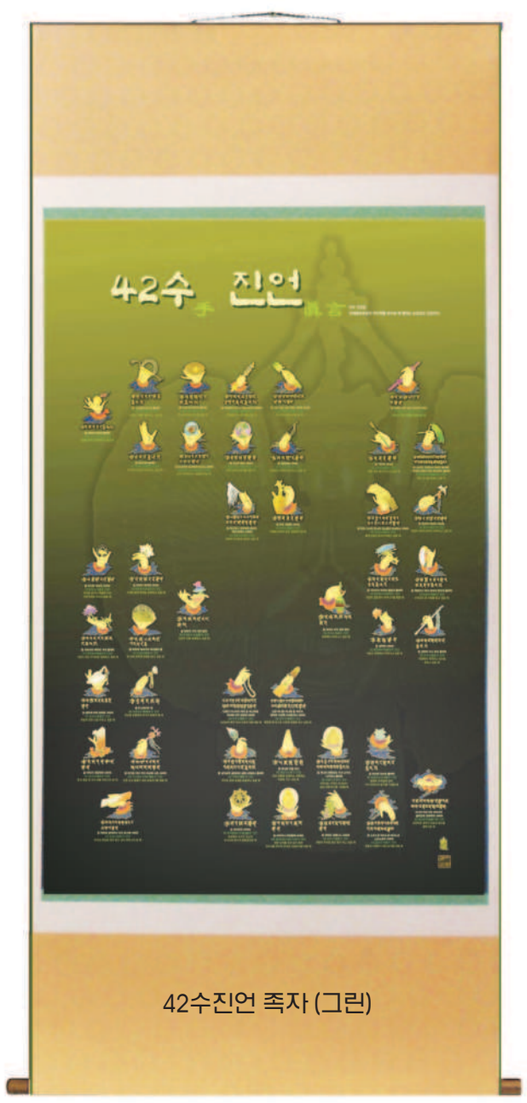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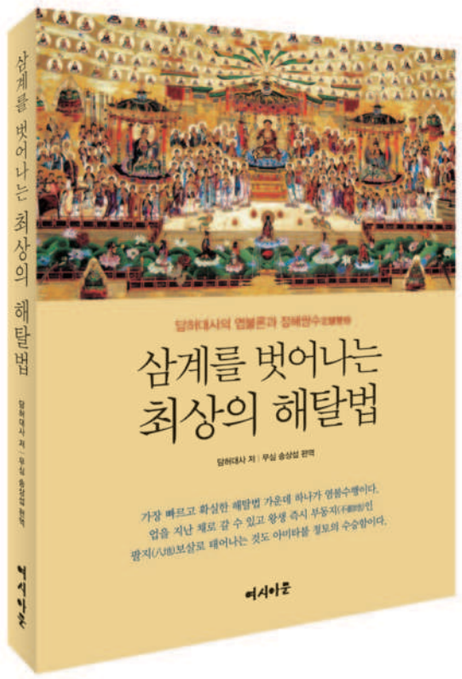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염불처럼 강한 해탈(三界超脫)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開悟成就)문이 없다.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닦는 이마다 하나같이 죽음도 능히 정복할 만큼 편안히 미소 지으며 정토왕생을 쉽게 성취한다.
선정은 심통(큰 깨달음)을 얻는 제일 똑똑한 수행법이고 닦으면 번뇌가 싱거울 만큼 전심(全心)이 성취되는 부사의(不思議)한 큰 도력을 얻는다.

염불을 정진하고 누가 극락왕생을 못하며 선정이 숙달되고 누가 개오(開悟)를 못 이루는가?
염불에 득력하면 생사를 가지고 놀고 선정에 득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논다. — 본문 중에서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염불수행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신간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